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영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예금 지급 상한액 10배,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1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간에 따라 상환기간이 최고 30년까지 늘어납니다.
문의전화 080-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8월 28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부모를 잘 섬기면

음력 7월 보름날 행하던 백중은 혁가족화와 서구문물의 위세 속에서 그 빛을 잃고 있다가 불교계가 기리는 우란분절행사에 의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날 백가지로 생각하고 차리는 햇과일과 채소로 조상을 추모하고 아울러 부처님 스님 중생에게 공양하는 우란분공을 올린다. 소중한 우리의 미풍양속이다. 조상의 덕을 추모하며 은덕과 음덕을 감사하는 것은 생(生)을 받은 자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이기 때문이다. 〈편집자 주〉

"밖지국 사람들이 조상을 공경하고 제사를 지낸다고 들은 적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는 누구의 침략도 받지 않을 것이다."
〈장아함유행경〉

부처님은 장래에 사람들이 포악해져, 부모가 길러준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불효할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고자 스스로 정반왕의 관을 메고 화장터로 가셨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전단향의 나무를 모아 화장을 하고, 유골을 모아 황금함에 담아 탑묘에 안치하셨다. 〈불설정반왕열반경〉

부모가 큰 고통을 받으사 옛 같이 차도록 내 태를 품으시며, 태어난 다음에도 마른 자리로 옮겨 눕히사 습기를 제거하시며, 더러운 똥오줌을 치우시며, 젖먹이고 씹어먹여 길이 기르사 내 몸을 보호하시도다. 이런 도리 때문에 나는 항상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하리니, 부모를 봉양하고 모셔서 지켜드리며, 그 뜻을 받들어 섬겨야 하리라. 〈열반경〉

자비스러운 부모가 오래 길러주셨기 때문에 모든 남녀가 다 편안할 수 있는 것이니, 아버지의 은혜는 높아서 산왕(山王)과 같고, 어머니의 은혜는 깊어서 대해(大海)와 같다. 〈심지관경〉

만약 모든 중생이 그 부모를 충심으로 존중하며, 예배하여 섬겨서 경애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하여 살아간다면, 이런 사람은 무량한 복을 낳으며, 온갖 지혜있는 이들이 다 칭찬하여 명예가 널리 들리며, 여러 사람 속에 있어도 두려움이 없고, 죽은 뒤에는 선취(善趣)에 태어날 것이다. 〈본사경〉

남의 자식이 되어 부모보다 더 좋은 것을 입고자 한다든가, 음식을 부모보다 맛있는 것을 먹고 한다든가, 말을 부모보다 높이고자 한다면, 이런 자는 죽어서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아유달경〉

땅에 진기하나 보배를 쌓아 올려 이십팔천에 이르는 그것을, 남김없이 사람들에게 보시한다해도, 부모를 잘 섬기는 것만은 못하다. 〈말나말경〉

관련기사 3면

조계종 '한가족 봉사단' 발족

17일 50가정 발대식…부모·자녀 매월 이웃돕기

부모와 자녀 가족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새로운 모델의 자원봉사단이 발족됐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은 지난 17일 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한가족, 한마음, 한사회운동'이라는 슬로건 아래 '한가족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50가정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진 복지재단의 한가족자원봉사단은 국민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자녀와 부모가 한 팀이돼 오는 9월 15일 한강 환경캠페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어 한가족봉사단은 매월 1회이상 장애인 나들이봉사, 노인 및 장애인시설 환경개선작업(도배 청소), 복지시설 김장담그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복지재단 기획실장 현중스님은 "한가족봉사단의 발족은 가족구성원간에 공동체의식을 고취시켜 세대간의 갈등을 줄이고, 더나아가서는 봉사활동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을 촉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재단은 한가족자원봉사단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1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복지재단은 1차적으로 올해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 오는 12월26일 평가회를 거쳐 점진적으로 한가족 봉사자들의 참여를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아들 유동연군(수유중 1)과 함께 참석한 김명숙씨(39)는 "자원봉사활동이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공가자료가 돼 동연이가 꽤 침스러워 했는데 저랑 함께해서 무척 즐거워 하는것 같다"며 "가족이 함께 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여가생활을 즐기며 공동관심사를 만들고 더불어 이 세상의 어둠과 기쁜일들을 같이 느끼며 사랑을 나누는 기회가 돼 가족간의 이해와 사랑이 더욱 애틋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복지재단의 한가족봉사단 발족을 계기로 자녀들은 부모들의 활동을 돕는 보조자로, 부모들은 봉사활동 후 자녀들에게 조언과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인도자로 역할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교육은 물론 가족구성간의 윤리관등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필선 기자〉



◇한가족봉사단은 매월 1회이상 환경캠페인 노인시설 및 장애인시설 도배 청소 복지시설 김장담그기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발대식을 가진 50가족의 기념촬영 모습.

중앙승가대학은 지난 22일 회의실에서 이사회(이사장 월주)를 개최하고 정규대설립에 따른 정관개정 및 대학헌장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정규대설립에 따른 정관을 중앙승가학교에서 중앙승가대학교로 개정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승가의 화합정신을 체득, 한국불교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모순과 고통을 해결할 선지식을 양성한다'는 내용을

정규대 헌장 의결

22일 중앙승가대 이사회

골자로 설립목적에 바탕을 둔 대학헌장을 통과시켰다.

또 이사회는 전임교수 및 강사14명, 연구위원1명, 대우전임강사1명 등 17명을 교원임용 예정자로 의결했다. 한편 중앙승가대학은 여름방학 동안 후원기숙사법당(87평)을 강당으로 용도변경해 정규대설립시 부족했던 약 73평의 교사기준도 확보했다. 이에따라 중앙승가대학은 8월말까지 정규대설립을 신청, 승인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경북도의회 신행모임 '정각회' 창립

9월5일 직지사서…의원 90명중 42명 참여

광역의회 불자의원들의 신행모임이 경상북도의회에서 처음으로 탄생된다. 경상북도의회 정각회(회장 주기돈 · 울진)는 9월5일 직지사 연수원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한다.

회장으로 선출된 주기돈의원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가르침을 주체적으로 실천하여 회원들의 자질과 인격을 함양시킴은 물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불자상을 정립하기 위해 회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회장은 최식(경주) 김경희(포항)의원 이다.

경북정각회는 전국의 15개 광역의회에서는 처음으로 결성된 불자의원 신행모임으로 경상북도의원 90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2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창립법회와 함께 회원들의 신행수기 등을 모은 〈우리들의 이야기〉 출판기념회도 개최한다. 경북정각회는 지난해 12월 결성됐으나 그동안 회원확보에 주력키 위해 창립법회를 미루어왔다.

경북정각회는 매월 경북도내 1사찰 정기순례법회를 통해 신심을 증장하고 불교와 관련된 지역현안 문제를 논의, 공동대처하는 협의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포교원은 교구본사와 함께 경북도의회 뿐만아니라 전국 광역의회의 불자의원 신행모임 결성을 확대하기 위해 불자의원들의 명단을 파악, 결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조계종 행자교육 31일부터

231명 입방지원…선학원 제외

조계종 교육원(원장 원산)이 실시하는 제11기 행자교육에 남행자 1백40명 여행자 91명등 총2백31명이 입방지원했다. 이 숫자는 지난 3월에 실시한 10기 2백93명(남 1백56명, 여 1백37명)에 비해 60여명이 줄었으며 종헌(제9조3항)을 따르지않는 선학원소속 행자들의 입방이 제외됐다. 그러나 보문종이 위탁한 행자의 입방지원서(1명)는 접수됐다.

본사별 행자지원자는 직할교구 35명을 비롯 해인사가 30명으로 가장많고 용주사 신흥사 고운사가 각 1명으로 10명이하인 본사가 17개인 것으로 밝혀졌다.

제11기 행자교육은 신체검사, 서류심사를 거쳐 8월31일부터 9월22일까지 합천 해인사에서 진행된다.

한편 지난 10기 행자교육기간 동안 42명의 행자가 탈락, 11기 행자교육생 가운데 예비승의 숫자는 더 줄어들것으로 보인다.

데생용 미륵반가상 중·고교에 보냅시다



◇법타스님 ◇안기천씨 ◇이난희씨

동참해주신 분

△법타 은해사주지: 동국대 청주상고 청주중 청주석교초등 청원 남성초등(6구좌) △안기천 부산불교산악회 고문: (3구좌) △이난희 부산불교신도회 이사: (1구좌) △김강심: 신창초등(3구좌) △황정현: (1구좌)
(8월22일 현재 총 436구좌 접수)

◇보급기간: 1996년 12월 31일까지
◇구좌단위로 참여(1구좌 10만원)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
※ 온라인 계좌
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입금후 반드시 본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게시판 부다피아 모뎀번호 792-1550-3
심복사 인근 폐자재 수거장 15면
태고 보우스님 중국 구법 700리 14면
서점가 윤회책 '열풍' 12면
열린마당-사찰현경권 2면

우리들의 미래와 청소년을 위한 대행스님 큰법회

9월15일 잠실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만납시다



이 세계는 지금까지 너무나 물질적인 발전에만 치우쳐 왔습니다.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공황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대자유인의 길을 일러주신 부처님의 법음을 전파하는 일의 시급성은 불자라면 누구나 느끼고 있을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수행에만 전념하면서 외부와 문을 닫고 사는 불교가 아닌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불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평소 "불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지혜」"라고 강조해 오신 대행 스님을 모시고 봉행하는 이번 큰법회는 우리 모두에게 대자유의 길을 열어 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합장

고라는것,
그것은 결코 피할 대상도,
싫다거나 좋다거나 할
대상도 아닙니다.
그저 묵연히 수용할
대상일 뿐입니다.
오면 오는 대로 놓고,
가면 가는대로놓는 중에 그
것이 마음 바탕과
둘이아닌
이치를 바로 볼 수 있게 될
때 고란 실재하는 대상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 대행스님 법어중에서 -

• 주제 : 한마음의 인생살이에는 고(苦)가 없다
• 일시 : 불기2540년 9월 15일 오후2시
• 장소 :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 후원 :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 포교원, 문화체육부, 서울특별시, 전국비구니회, 군불교진흥회, 파라미타, 불교방송, 불교TV, 현대불교신문사

법회프로그램 안내
1. 식전 행사(13시 20분~14시)
: 비디오상영 · 어린이 풍물패 공연 · 내외빈 입장
2. 법 회 : 「한마음의 인생 살이에는 고(苦)가 없다」
3. 특별공연 : 연주-국립국악 관현악단(지휘 박범훈) · 창-김성녀 · 합창-한마음선원 합창단

교통수단
전철 : 2호선 성내역 하차 ~ 일반 버스 : 212, 성내역에서 셔틀 버스 운행 예정
5호선 올림픽역 하차(2호선 왕십리역에서 마천행 승차)
버스 : 남4문 평화의 문 ~ 일반 버스 : 21-2, 813-2, 좌석버스 : 30 / 남2문 ~ 일반버스 : 21-2, 813-2 좌석버스: 41 / 동2문 ~ 일반버스 : 21-2, 67, 813-2 좌석버스:41

대한불교 조계종
한 마 음 선 원 (禪院)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 0343)72-3100 · 1512

사 설

이타행 결집의 첫걸음

— '한가족봉사단' 발족을 환영하며

지난 17일 조계종총무원 불교회관에서 '한가족봉사단'이 발족했다는 소식은 무더위 속에 감로수 같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자원봉사활동을 펴게될 가족봉사단으로 매월 1회 이상 노인정봉사, 환경개선을 위한 봉사, 장애인과 사랑나누기 봉사, 복지시설의 김장 담그기 봉사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펴나가리라 한다. 때늦은 감이 있으나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무릇 봉사라고 하는 것은 남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것을 말한다. 자기의 이해를 돌보지 않고 노력이나 힘을 들여 친절하게 보살펴주는 일이다. 물질적 또는 정신적으로 깨끗한 마음을 내어 아낌없이 베푸는 보시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봉사라면 이미 부처님께서 누누히 일러주신 말씀으로 "만일 빈궁한 사람이 재물을 보시하지 못하더라도 남이 보시할때 수희(마음으로 귀의하여 종교적인 기쁨을 느낌)하는 마음을 내면 수희하는 복덕이 보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했다. 남에게 봉사하는 일을 보고 기쁜 마음만 일어나도 보시하는 것과 버금가는 봉사라고 하셨는데 이를 스스로 실천에 옮겨 자원봉사를 한다면 그 실천의 결과는 여간 큰것이 아니리라.

봉사를 실천하자면 다음 세가지가 있어야 한다.

첫째 마음에서 느껴야 한다. 궁핍한 이웃이나 고통받는 이웃을 보면 내가 당하는 일처럼 측은하게 여겨지는 자비로운 마음이 느껴져야 한다. 둘째로는 마음이 움직여야 한다. 느낌이 느낌으로만 사라진다면 봉사로 이어지지 못한다. 내가 괴로우면 그 괴로움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려고 마음을 움직이듯이 남의 괴로움을 측은히 여긴다면 그 측은한 마음이 움직여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세번째로는 이런 행동화의 실천을 결집할 수가 있어야 한다. 아무리 측은한 동정심이 느껴지고 이를 돕기 위해 마음이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그 힘의 실천이 결집이 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들도 많기 때문이다. 이런 뜻으로 보면 이번의 한가족자원봉사단은 실천의 결집이라고 생각된다.

보시가 개인의 복덕과 가족의 행복추구와 같은 기복적인 수준을 넘어서 현대사회에 걸맞는 봉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꼭 다음 몇가지가 유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뜻이 담겨 있어야 한다.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이타심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봉사를 했다는 행위의 전시성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된다. 지속적이어야 한다. 한두번의 마음 내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생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이어야 한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어야 한다. 개별적인 것이기 보단 그 개별성이 모여 집합적 힘을 낼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구성의 기본 집합체인 가족봉사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개개인이 아닌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 실천하는 '가족봉사'는 바로 사회를 따뜻하고 풍요롭게 하는 첫걸음이다.

내가 필요가 없어서 버리는 것은 봉사가 아니다. 나도 필요하지만 나누어 가지는 것이 봉사다. 내가 주고싶은 사람에게만 주는 것은 봉사가 아니다. 대가를 바라는 것은 봉사가 아니다.

이제 한가족자원봉사단이 발족하였으니 그 구성원 모두는 보시를 폭넓게 실천할 일이며 주최측은 마땅히 그 길을 다양하게 여는 프로그램 개발에 소홀히 해서는 안될 일이다.

열린마당

사찰환경권

사찰환경이 침해당하고 있다.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수천년간 지켜온 사찰환경이 하루아침에 폐허가 되곤 한다. 뿌리채 흔들리는 민족정신을 지키기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사찰환경권의 법적명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찰환경권을 제도적 장치로 규정하기위한 방안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정신문화 훼손방지 '환경권' 입법추진

조성준 〈국민회의 국회의원〉



국립공원 가야산 해인골프장 건설추진을 비롯해 곳곳에서 개발이라는 미명으로 사찰환경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다. 불교는 1천6백년전 우리나라에 공식으로 전래된 이후 우리 민족의 사상과 정신문화의 기둥을 이루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개발의 논리에 밀려 사찰환경권이 침해됨은 불교는 물론 우리 민족의 사상과 정신문화를 훼손시키는 형위이다.

지난 6월17일 서울고법은 해인골프장 건설사업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추상적인 환경권을 이유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논리였다.

환경권이 왜 추상적인 개념인지 물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두달 사이 서울에는 여섯 차례의 오존경보가 발령됐다. 전남 여천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대기가 오염되어 이주가 불가피한 현실이다. 환경파괴가 곧 생명의 파괴임을 확인해주는 사례이다.

사찰환경권은 우리 정신문화의 발원지인 사찰을 수행도량이게끔 하는 불교의 존립권이다. 사찰환경의 파괴는 단순히 자연환경의 파괴에 머물지 않는다. 불교의 요체인 수행환경을 파괴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수행환경권은 즉각 보호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전통사찰보존법 문화재보호법 등 불교관련법 어디에도 사찰환경권을 보호하는 조항이 없다. 현실을 쫓지 못하는 법의 맹점이다. 그렇다고 도덕성에 호소해 해소될 상황도 아니다. 부득이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더이상 개발의 논리에 밀려 자연환경과 사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나서야 할 때이다.

국민회의 불자의원·당원들의 신행모임인 새여등회에서는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의원입법을 통해 관련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정각회와의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불교계에서도 법률환경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제·개정안을 마련, 청원 등의 방법을 통한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있어야 한다. 사찰환경권의 수호는 불교계의 권리이기 이전에 후손에게 물려줄 자산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이기 때문이다.

'전통문화 계승발전의무' 헌법에 명시

연기영 〈동국대 법학과 교수〉



사찰환경권은 헌법에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되어있는 환경권(헌법 제35조)의 내용을 이루며, 국가의 전통문화 계승 발전의무(헌법 제9조)와 깊은 관련이 있다.

헌법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그 내용과 행사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시키고 행복추구의 실질적 바탕을 마련해 주기위한 내면적인 정신생활보호규정(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의 바탕위에 민족문화의 창달의무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사찰환경권은 이와 같은 헌법상의 여러 기본권을 포괄하는 특수한 환경권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 사찰환경권의 구체적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국가가 법률로 정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다.(헌법 제35조 2항)

우선 기존관계법령에 규정한다면 전통사찰보존법,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존법 등에 사찰환경보존 및 관리에 관한 개별조항을 둘수도 있다.

보다나은 입법정책적 방향은 문화유산보존법(가칭)과 같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포괄적인 사찰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방법 및 재산권,개발권등 다른권리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는 사찰환경보존 및 계승·발전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통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문화유산을 조성하는 기본이며 이를 후손에게 물려주어 단절없는 문화국가의 계승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헌법정신을 반영하는 길이다.

전통사찰보존법 민족문화보존권, 환경권 등 헌법정신에 따라 사찰환경권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 할 법령으로 먼저 '전통사찰보존법'을 들수 있다. 전사법 제9조 '경내지의 보호'는 단순히 "전통사찰의 경내지에서는 영업행위를 할수없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이를 '전통사찰의 환경보존 등'으로 제목을 바꾸고 "①문화체육부장관은 전통사찰의 환경보존 및 계승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문화유산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②경내지 및 대통령령이 정한 구역안에서는 포교 도제양성 역경(전법·수행)들의 불사목적이외는 일체의 개발행위와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개정해야한다.(연기영교수 의견)

이밖에 사찰환경권과 관련된 법률로 자연·도시공원법 및 동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및 동시행령, 도시계획법 및 동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산림법 및 동시행령, 건축법등이 있다.(조계종 불교관계 국가법령 개정안 참조)

조계종 종단현안문제해결 대책위원회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사찰은 자체가 문화재로서의 기능을 하고있으며 사찰이 고유한 종교활동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당해사찰과 소속 종단의 자율성 존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자연공원법 제18조(관리에 관한 협의 및 재정):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찰경내지가 공원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사찰이 소속한 종단의 대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를 추가.

제51조(타인의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②종교시설에 출입하거나 종교시설 소유의 토지의 사용이나 장애물의 제거인 경우는 미리 그 종교시설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추가.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준도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②문화재보호법과 전통건조물보존법,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건축물·시설을 훼손하거나 그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를 추가.

도시계획법 제18조(보존지구 지정): 보존지구지정에 있어 "문화재 및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문화재뿐 아니라 전통건조물, 전통사찰 및 그 부대시설을 추가.

제19조(지역 지구 및 지구안의 행위제한 등): 문화재뿐 아니라 전통건조물과 전통사찰도 포함.

명문화 시급한 관계 법령들

전사법·자연공원법등 개정통해 사찰문화유산 보호권 강화해야

제22조(도시개발예정구역의 지정) : "①도시개발예정구역내에 문화재보호법, 전통건조물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에 규정된 문화재, 건조물, 사찰 및 그 경내지가 편입되어 있을때는 당해사찰이 소속한 종단의 대표자와 이를 관장하는 소관부처의 장이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를 추가.

산림법 제90조(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 6항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해 입목벌채 허가할수 있다"는 조항을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사찰의 보존을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과의 허가를 받을 경우"로 개정.

건축법 제3조(적용제외): 건축법 제외조항에 '전통사찰보존에 의한 전통사찰'을 추가.

현대만평

박구원



효도합시다

목어

어머니의 품

"이렇게 부수면 통일이 되는거야."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점거농성을 벌였던 연세대 캠퍼스에서 흘러나온 어느 인사의 말이다.

9일간 투쟁의 무대였던 연세대 종합관과 과학관. 20일 경찰의 '독수리' 진압작전 직후 언론은 그곳을 '아수라장' '전쟁터의 폐허' '화재현장'을 방불케 했다고 표현했다.

아수라장이란 어떤 곳인가. 싸움을 일삼는 귀신 아수라가 제석천을 상대로 싸운 곳이다. 즉 모진 싸움으로 처참하게 된 곳을 이른다.

"책상·걸상은 불에 타 앙상한 잔해로 남았고, 유리창은 모조리 깨졌다. 쇠파이프, 학사관련 서류, 어학실습 기자재, 피묻은 수건, 붕대 등이 최루탄 냄새에 뒤섞여 널브러져 있었다."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실험용 암석을 투석용 돌로 사용했고, 첨단 실험장비를 쓰레기로 만든 아수라장. 그 쑥대밭에 "엄마가 보고싶어요"라는 말이 칠판에 적혀 있었다. 어느 신문 사설에 "눈물짜기 작전"이라고 했듯 학생들이야 작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들·딸을 찾는 어머니의 애간장 태우는 모습에는 가식이 있을 수 없다. 경찰에 연행된 4~5천명의 한총련 학생들이 훈방되면 제일 먼저 갈 곳은 어디인가. 어머니의 품이다. 그때 한총련 소속학생의 어머니들은 '통일축전'이란 이름아래 나라를 어수선하게한 아들·딸들에게 꼭 해줘야 할 '어머니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진정 조국분단의 아픔과 통일을 두 어깨에 지겠다고 나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길인가를 일러줘야 한다.

45년이 지나도록 풀지 못하고 있는 민족분단이라는 업(業)의 실타래를 이번 사태가 더 뒤엉키게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도록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머니들도 광소 통일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사회교육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 통일문제는 대학생과 정치인 등 특정인들만의 단골메뉴가 아니다. 국민 모두 통일에 대해 이야기 할 때 '통일 시절인연'은 성숙될 것이다.

새싹불자를 위한 부처님 말씀

착한말이란 …

말씀마다 자기을 러웁히지 않고 남 또한 해치지 않는 것을 착한 말이라 할 것이요, 부드럽고 사랑스런 말로 남을 기쁘게 하며 모든 허물 짓지 않아야 한다. 〈잡아함경〉

협찬 흥국사 주지 화법 TEL.(0346)65-8010

ASEM을 빙자한 무역협회 고층건물신축에 대한 봉은사의 입장

봉은사는 신라 원성왕 10년(794년) 연희국사에 의하여 창건된 천년고찰이다. 서산대사, 사명대사를 비롯한 수많은 대덕고승을 배출하였을 뿐아니라 병자호란 당시에는 항마군이 결집했던 호국불교의 중심지였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억불정책에 의해 꺼져가는 불교를 중흥시킨 호법도량이었며, 현재 그 위상에 걸맞게 30여 스님과 10만 신도가 수행 도량으로 삼고 있는 도심 최대의 전통사찰이다.

봉은사는 현재 신도들의 기도도량으로써 뿐만아니라, 도시생활에 지친 시민의 휴식처로, 학생들에게는 자연과 호흡하며 살아있는 역사를 배우는 곳이다. 이렇듯 봉은사는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 그리고 자연적 가치가 조화롭게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

이처럼 문화적 역사적으로 귀중한 천년고찰 봉은사가 대규모 건축 계획에 위협받고 있다. 일주문에서 고작 100m 거리에 국제회의를 위한 대규모 건물 단지가 조성된다는 것이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수천년간 지켜온 우리 봉은사의 역사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하다.

강남은 서울에서도 가장 복잡한 곳이다.만약 이곳에 대규모의 건물이 들어선다면 필연적으로 교통난과 대기오염의 가중, 국토의 불균형 개발의 심화 현상이 발생할것이다. 또한 강남 유일의 녹지공간인 봉은 근린공원 주변개발에 명분을 주어, 그나마 가꿔온 녹지마저도 훼손될 것이다.

이에 전통사찰을 수호하고 전통문화를 지키려는 각오로 교통난 대기오염 등의 생활환경을 파괴하는 위협에 맞서 구민과 함께 한마음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ASEM회의를 빌미로 이익을 챙기려는 무역협회의 대규모 건물신축을 반대한다.

무역협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건물신축을 구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번 대규모 단지 조성이 ASEM을 위한 국책사업인양 선전하고 있다. 국제회의를 위한 컨벤션센타가 부득이 필요한 시설이라 할지라도, 사무실 2개동(45층, 36층), 백화점, 호텔 (23층 800실 규모) 등은 ASEM사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수익사업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책사업이라는 무역협회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2. 판전을 비롯한 귀중한 전통 문화재의 훼손과 불자들의 수행환경을 파괴하는 이번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한다.

봉은사는 서울시 지정문화재, 보물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각종 문화재가 상당수 보존되어 있다. 또한 봉은사 자체가 살아있는 불교의 역사이기도 하다. 현재 봉은사 주변은 현대와 전통의 조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있다. 운봉빌딩 신축 금지 판례는 문화환경 보존 가치를 인정해준 좋은 예이다. 각종 공해와 소음으로 고즈넉한 전통사찰의 면모를 잃게 되고 스님들의 수행생활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며, 따라서 수행도량으로서의 면모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문화환경과 수행환경의 파괴를 필연적으로 불러 올 이번 대규모 신축공사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3.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으로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이 많은 이번 사업은 철회되어야 한다.

컨벤션센타를 비롯해 20여만 평 이상의 규모로 지어질 이번 신축건물은 정상적인 경우, 공사 허가 기간만도 2년 이상 소요된다고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무책임하게 조속한 공사 허가를 시달한 바 있다.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이 초래할 부실공사의 결과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시기상 촉박하다 하여 부실공사가 우려됨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될 것이다.

4. 교통난 가중, 대기오염 가속화 등,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위협할 이번 대규모 건물 신축계획은 마땅히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신축건물의 217,606평, 주차장만도 70,399평으로 8,600대가 한꺼번에 주차를 할 수 있다. 이것을 유동차량까지 합산한다면 아마 수만대에 이를 것이다. 주변에 교통 유발도가 높은 호텔, 백화점, 전시장, 사무실 등이 들어서 막대한 교통혼잡을 초래하게 된다. 이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화는 주민들의 생활마저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마땅히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건물을 신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역협회가 제시한 계획안에는 교통대책이 전무하다. 따라서 교통난과 대기오염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번 계획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5. 봉은사는 사찰수호와 문화환경권 보호 차원에서 30여 스님과 10만 신도들이 한뜻으로 뭉쳐 이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불기 2540년 8월 20일

무역협회 고층 건물 신축반대 봉은사 비상대책위원회

수재 사찰·군법당 복구 '뒷전'

긴급진단

사람과 차가 오가던 길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범벅이 되어버린 흥국사 앞길에는 진입로를 닦느라 서너명의 스님들이 목에 두른 수건으로 연신 이마에 흘러내리는 땀을 닦아내며 쉴새없이 흙을 치우고 땅을 다지고 있다. 수마가 흥국사를 할퀴고 간지 한달이 다 되어가지만 완전복구는 아직도 요원한 실정이다.

이는 군경찰의 지원인력과 장비, 자원봉사자들이 줄을 잇는 가운데 경기도 파주시와 연천군 수해지역이 차츰 제모습을 찾아 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불자들을 더욱 안타깝게 한다.

제25교구 봉선사말사 흥국사(주지 화범)는 이제 겨우 유실됐던 사찰진입로를 사람과 소형차가 오갈수 있을 정도로 닦아 놓았을뿐 집중호우에 지붕기와 1/3정도나 떨어져나가 붕괴위기에 있는 독성각에는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방치해 놓고 있는 형편이다. 다만 무너져내린 독성각 지붕에 비가 더 이상 새어들지 않도록 얼마전 몇안되는 스님과 종무원들이 비닐을 씌워 놓았을 뿐이다. 흉한 그 모양새는 유서깊은 주련과 편액, 불보살상 등 다른 절에서 볼 수 없는 성보문화재가 많은 전통사찰인 흥국사의 진가를 떨어뜨릴 정도다.

흥국사 주지 화범스님은 "수해이후 계속된 초하루 약사재일 칠월칠석법회로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던 탓도 있지만 일손의 절대부족으로 복구는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하고 "불자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흥국사는 불자들의 외지 자원봉사활동 및 위로·격려방문, 의연금전달에 철저히 외면당한 채 속앓이만을 하고 있다.

흥국사뿐만이 아니다. 퍼붓듯 내린 이번 폭우로 사찰 진입로 유실 및 법당이 붕괴되는 등 크고작은 재산피해를 본 많은 경기·강원지역 사찰과 군법당의 피해복구또한 막막한 상태다. 피해사찰 관계자들은 불자들에게는 물론 사회로부터 구호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은 '사각지대'로 소외된채 하루하루 재기의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사실상 일반 피해지역에 연일 줄을 잇던 각 사찰·단체의 불자자원봉사자들이 일반 시설 및 피해자들을 보살피느라 교계의 아픔을 돌보지 못했다. 또 수해지역 주민을 위해 위로·격려 방문을 했던 각 종단에서도 불교계 시설을 위해 발빠르게 대처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불교계의 고질병으로 지적되는 '외화내빈'의 치부를 다시한번 드러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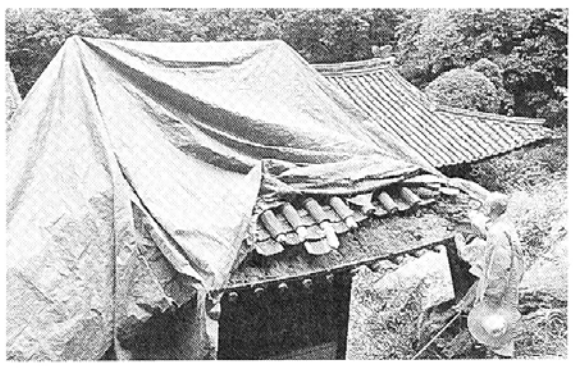
사찰의 경우 신도조직을 중심으로 복구할 수 있는 여력이 그나마 있다하더라도 매달 1천여명이 입소해 3백여명이 수계를 받았던 신병교육대 법당을 완전 유실당한 5사단의 경우는 지원인력과 재원이 없어 군불자들이 복구에는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넋을 놓고 있는 상태다. 요사채붕괴위험으로 불안속에 지내고 있는 15사단 천불사 또한 마찬가지로 불자들의 도움을 고대하고 있다.

수해피해사찰 관계자들은 "수해피해 불교시설에 대한 인력과 재원지원이 급선무로, 내실을 다지기 위한 종단차원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불자자원봉사자들의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관심을 당부한다"고 입을 모았다.

도필선 기자

교계 의연금 주민돕기에 집중

"이제 '부처님 집'에도 관심을"



◇일손과 장비의 절대부족으로 수해를 입은 불교계시설의 완전복구는 한달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독성각 지붕이 내려앉은 흥국사 22일 현장. 〈남양주=고영배 기자〉

봉은사, 아셈건물 신축반대 대책위 가동

"천년고찰 환경권 사수 결의"

강남구청 "구민합의 있어야 허가" 표명

요즈음 서울 강남 봉은사(주지 무상)는 '굴러온 돌이 박힌돌 뺀다'는 속담을 실감하고 있다. 70년대, 봉은사 소유 토지를 강제수용해 세운 무역협회가 봉은사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초고층빌딩을 건립하려 하기 때문이다.〈본보 6월12일자 보도〉

봉은사는 지난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무협이 계획중인 아셈(ASEM)행사장은 봉은사 코앞에 세우는 대형건물群으로 천년고찰의 조망권과 환경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대형건물 건립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무협이 구상중인 아셈행사장은 조선명종때 승과고시가 부활된 '승과굉(僧科坪)' 자리 2만3천여평으로 정상회의장등 5층규모의 컨벤션홀 및 전시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봉은사가 반발하는 것은 행사장 부대시설로 36, 45층 업무용빌딩 2개와 23층 특급호텔, 쇼핑센터등 초고층빌딩群. 이 고층건물들은 봉은사 일주문에서 도로(왕복6차선·폭30m)하나 거리를 두고 세워지게 되어 수행과 기도도량으로서 면모를 잃을뿐아니라 천년고찰의 존폐까지 우려된다.

이러한 위기감속에 봉은사는 지난 17일 대중스님,신도회,각신행단체장을 주축으로 '무역협회 고층건물신축반대 봉은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최호정)'를 결성하고 각계에 홍보하는등 향후대책을 모색하고있다. 대책위는 객관적인 자료확보와 여론형성을 위해 환경, 교통전문가들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간담회에 앞서 대책위는 또한 지난 20일 칠석법회에서 성명서를 채택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날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아셈회의를 빌미로 이익을 챙기려는 무협의 대규모건물신축 반대 △전통문화재훼손과 수행환경파괴하는 무협계획 철회 △주민생활환경위협하는 대규모건물신축계획 이전을 요구했다.

봉은사 주지 무상스님은 "아셈대회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부대시설 신축을 막고자한다"며 "무협측이 공사를 강행할 경우 10만신도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용문 강남구청장은 "봉은사와 지역주민의 합의가 있기전에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밝혀 향후 아셈행사 부대시설 건축여부를 놓고 무협과 봉은사, 지역주민간의 대립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이준엽 기자

"대사회 보살행펴는 조직으로"

변화조짐 보이는 전국신도회

박완일씨 회장에 추대… 새 방향 모색

전국신도회가 지난 21~23일 경주에서 열린 하계수련대회에서 박완일씨(14~16대 회장역임)를 제18대 회장으로 추대하는 것을 계기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신회는 지난 5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7인활성화대책위원회(위원장 김양수)에 회장선출 권한을 위임한 바 있다. 이번 수련대회에는 시·도지부장 및 시도지회장, 중앙운영위원 등 196명이 참석했다. 박완일회장 취임법회는 9월중순 봉행될 예정이다.

이번 수련대회는 '21세기 불교환경' '불교에서 본 가정교육' '불교신도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주제로한 강의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 가운데 관심을 끄는 부분은 '신도운동의 발전된 내일을 위한 제언'과 이를 토대로 한 토론이었다.

손안식 사두총장은 '제언'을 통해 전국신도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중앙일변도의 조직운영, 특정인에 의존한 재정운영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신도회활동 또한 통일 환경운동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조계종총무원이 전국신도회 자체를 부정하고 새로운 신도조직인 중앙신도회 창립을 준비하는 등 내외적으로 와해의 위기에 처하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풀이된다.

전국신도회는 그동안 조계종의 유일한 전국조직이란 외형이 내부의 허실을 덮어줬으며, 내부의 비판의 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정체된 조직으로 평가됐다. 또 94년 당시 회장이었던 조기현씨가 상무대비리 사건으로 구속되며 도덕성을 결핍한 조직이라는 안팎의 비난에 직면해 있었다. 따라서 이같은 내용을 토론주제로 상정한 것 자체가 놀라움으로 받아들여진다.

또 통일과 환경운동을 주요사업내용으로 제시한 대목도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법당안에서의 기원만으로 인간해방을 염원하는 것은 소극적 실천"이었다고 평가하고 "실재하는 고통의 현장으로 뛰어드는 보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회속에서 불교가 어떠한 지위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실천을 어느 정도 해냈느냐에 달려있다는 현실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전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체질화된 중앙 또는 1인 중심의 운영체제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변화시킬 것인지, 또 사회문제를 철저히 외면해왔던 전신회가 이같은 선언으로 어느 정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는다.

정성운 기자

시론

효도는 으뜸 복밭

사람이 사람답다는 것은 사람이 사람다운 도리를 하는 것을 뜻한다. 사람의 도리는 다름아닌 인륜이다. 사람의 도리를 하는 가장 기본이 효도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효는 백가지 선(善)의 기본이라고 강조하였고 만가지 복의 으뜸이라고 하였다.

사람다운 도리의 기본

사람이 태어난 뿌리가 어버이인데 그 어버이를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능멸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셈이다. 그래서 인간이 공동체를 형성하여 더불어 살기 시작하면서 효의 가르침을 어느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효란 어버이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지나온 삼십여년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큰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것은 잘 살아보겠다는 한생각으로 살아오면서 우리들이 만들어낸 풍속도이다.

옛것을 재빠르게 벗어던지고 새것을 받아들이면서 영악스러울 만큼 욕망에 급급하였다. 그러고 보니 삶은 풍요로워졌지만 삶의 질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게 되었다. 오늘날 인류적 측면에서는 나 잘 살기 위하여 부모도 외면하는 노릇은 씻어야 할 업보이다.



석 성 우
〈스님·파계사 주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으로 얽혀 있다. 인연 가운데 제일 소중한게 있다면 바로 부모와 자식간의 인연이다. 그것은 천륜이다. 그러나 그 인연에는 착한 인연, 악한 인연, 소중한 인연, 원수같은 인연 그렇게 가지가지이다.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난 인연의 소중함을 모른다면 그것 또한 서둘러 정신차려야 할 일이다. 만약 인연의 무게가 적다면 그것을 원망할게 아니라 더 무겁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인연의 힘이 모자라면 힘이 있도록 공을 쌓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도 효 사상을 강조한 부분이 많다. 〈부모은중경〉이 그 대표적 예가 되겠는데 아주 현실적으로 해설하였다.

하나의 목숨이 생성되면서 은혜로움을 알아야 한다고 하셨다. 그래서 아이를 태중에 배고 있는 동안의 은혜, 해산할 때 크나큰 고통을 겪는 은혜, 자식을 낳았다고 즐거워하는 은혜, 나쁜것은 주지않고 좋은것만 주는 은혜, 젖은 자리 피하고 따뜻한 자리 마련해주는 은혜, 젖먹여 길러주신 은혜, 대소변 가려 주신 은혜, 자식을 위하는 은혜, 항상 염려해 주시는 은혜, 이렇게 열가지 은혜를 설명하셨다.

〈불설효자경〉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 백가지 맛나는 음식으로 봉양하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귀를 즐겁게하고, 부드럽고 이쁜 옷 해드리는 것보다 부모를 삼보에 귀의시키는 일이 더욱 참된 효도라고 가르친다. 왜냐하면 맛나는 음식, 즐거운 음악, 아름다운 옷은 잠시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에 귀의함으로하여 영원한 영혼의 안식처를 얻게하여 해탈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효도다운 효도라고 하셨다.

그리고 〈범망경〉에서는 설령 금생에 인연이 성숙되지 않아 불법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영가라도 부처님 말씀하신 대승경율을 들려 줌으로하여 불법과 인연 맺도록 하라고 간절히 일러 주셨다.

〈지장경〉 역시 악업 중생이라도 불교에 귀의시켜야 한다고 역설하셨고 〈목련경〉도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천도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다.

효는 가르쳐야 한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지지만 인연의 실상은 공적한 것이다. 그러므로 밝은 인연의 무게를 체감하게끔 효를 가르쳐야 한다.

첫째는 인연의 소중함은 금생에만 있는게 아니고 다음생 그 다음생에도 이어지므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부모자식간의 좋은 인연은 더 좋도록 서로 노력하여야 하지만 만약 좋지 않은 인연은 좋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모 솔선수범 큰교육

둘째는 자기가 부모에 효도를 실천하므로써 자식들도 배우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 가운데 인성교육의 가장 으뜸이 밥상머리 교육은 사람 됨됨을 배게하는 표본이다.

셋째는 효를 가르치는 방법의 하나인 육아일기를 써서 아이가 자라고 나서 읽도록 재산 일호로 전해주어야 한다. 자식 키우며 즐겁고 괴로운 일, 정신적 경제적 상황을 자세히 적어 인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도록 해야 한다.

효도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면서 자연스레 해야할 의무이다.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제일 보람스런 일을 효도하는 일에 가치를 둔다면 그 이상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것이다. 효도하는 삶은 고귀한 것이요, 멋있는 삶이다.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서울대회

1. 대 회 명

「韓·中·日 佛敎友好交流會議 서울大會」

2. 대 회 주 제

「21世紀에 있어서의 韓·中·日 佛敎의 使命」

3. 일 시

1996년 9월 9일 ~ 12일(3박4일)

4. 장 소

서울 쉐라톤워커힐 호텔 ☎(02)453-0121

5. 개 요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서울대회」는 한국, 중국, 일본 불교계를 대표하는 각 종단 고승대덕 최고지도자들이 모여 과거 삼국 불교 우호교류의 역사적 전통을 계승하고, 21세기에 있어서의 삼국 불교의 사명을 모색하기 위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세계난민구제, 환경보호, 학술, 문화, 정보교류 등 제반 실천사항을 가지고 삼국불교 각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 사업 추진에 따른 논의와 결정을 하는 3국 불교계 최고 대표 회의입니다.
본 대회는 국제 회의와 문화행사 형태로 진행됩니다.

6. 취 지

오랜 역사를 이어 오면서 우리 민족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며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어 온 나라는 중국과 일본이었습니다.

과거 한·중·일 삼국간의 교류 역사 가운데 가장 빈번했던 분야는 문화 교류였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손꼽을 수 있는 것은 고승들의 구도 행각과 포교, 사상 교류와 전파, 불경과 문물 등 불교의 인적, 물적 교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불교의 우수한 문화와 제도 등을 받아들여 국가의 기반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아울러 신라 원효 등 헤아릴 수 없는 고승대덕들이 수많은 저술을 통해 중국과 일본 불교에 사상적 영향을 미치는 등 상호 교환적이며 보완적인 우호 관계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삼국 불교계의 오랜 우호적 교류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삼국 불교계는 95년 5월 중국 북경에서 1차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1차대회시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서환 주석의 만찬,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 예방, 개·폐회식에서의 중국을 대표하는 수많은 정치인들의 참석, 중국·일본 각계 유명 인사들의 축전등은 앞으로 삼국 불교계 유대와 우호교류의 앞날을 밝게 해주는 뜨거운 관심과 성원이었습니다.
이번 2차 대회에서도 한·중·일 불교협회 회장을 비롯하여 삼국 유력 종단의 총무원장, 중진대덕 각 단체장 등 실질적 최고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21세기에 있어서의 불교의 역할과 사명을 논의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도모하고, 인류의 구제를 위한 공동 노력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여 이에 수반되는 사업인 난민구제, 지구촌 환경보존, 인력교류, 정보교류를 위한 기구설치 등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문화 질서를 구축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불기 2540년 8월 일

한 국 불 교 종 단 협 의 회 회 장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서울대회장 송 월 주

7. 대 회 일 정

일자및시간	행 사 내 용	장 소	비 고
9월 9일			
12:00-15:00	중국, 일본대표단 입국	김포공항	400여명
15:00-16:00	대표단 등록	쉐라톤워커힐호텔	회의장
16:00-17:00	3국불교 준비위 실무회의	소회의실	30명
18:00-20:00	대표단 환영만찬	쎈플라워 룸	200여명
9월10일			
10:00-12:00	개회식-축하예술공연	무궁화그랜드룸	1,000명
12:00-14:00	오찬-문체부장관 주재	쎈플라워 룸	
14:00-18:00	기조연설-한.중.일 대표 보충연설-각국 2명씩	무궁화그랜드룸	
18:00-20:00	대회환영만찬 (한.중.일 참관단 전원 참석)	무궁화그랜드룸	1,000명
9월11일			
10:00-12:00	세계평화기원법회 (영산대재 형식으로 진행)	동국대 운동장	2,000명
12:00-14:00	오찬-동국대 총장 주재	동대 학술문화관	대표단
14:00-16:00	회의(보충연설) 각국1명씩	무궁화그랜드룸	
16:00-18:00	폐회식(선언문 채택)	무궁화그랜드룸	800명
9월12일			
10:00-12:00	불교문화대제전 참관	여의도 행사장	중국대표 단은 13 일 출국
13:00-16:00	일본 대표단 출국		

문 의 전 화 : 732-4885

법회 안내

원각사(02)742-0085
밥왕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인등법회 매월15일(음) 오전10시
신행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
관음기도 매월24일(음) 오전10시
가족법회 매월 넷째 일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청수사(02)816-1290
자성일동참불사 매주 일 오전10시
수요정진법회 매주 수 오후7시
학생회법회 매주 일 오후2시
한문교실 매주 월~금 오후4시

죽림사(0562)47-4688
신중기도 매월 1~3일(음) 오전10시
지장회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회 매월 24일(음) 오전10시
교사회 매주 월 오후8시
청년회 매주 수 오후8시
우담바라회 매주 목 오후8시
고등학생회 매주 일 오후8시

보광사(0348)942-7700
가족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초하루법회 1일(음) 오전10시30분
관음재일 24일(음) 오전10시30분
지장재일 18일(음) 오전10시30분
참여법회 매월 셋째주 토 저녁9시~새벽4시

대명심인당(053)625-6627
자성일불공 매주 일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청년·학생법회 매주 일 낮12시
월초불공 매월 첫째 월~일요일 오전10시

구화사(053)323-4948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교리강좌 매월1일(음) 오전11시
보름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1시
초발심자경문 및 지장경강의 매월 18일(음) 오전11시
금강경강의 24일(음) 오전11시

약수사(051)555-4332
인등기도 1~3일(음) 오전10시
조상천도 매월18일(음) 오전10시

공덕원(051)625-2253
지장천도 매월 14일(음) 오전11시
정기법회 매주 화 오전11시
지장불교대학강의 매주 수 오전10시30분

수타사(0366)33-6611
초하루법회 1일(음) 오전11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중고등법회 매주 일 오후3시
청년법회 매주 일 오후6시

장안사(0343)63-1954
가족법회 매월 첫째 일 오전11시
인등법회 매월1일(음) 오전11시
장안법회 매월15일(음) 오전11시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일연사상 기리는 성역화불사 전념"

첫 주지 공채 인각사 대원 스님



"기쁨에 앞서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주어진 일에 몰두할 것입니다."

은해사가 주지채용과 관련 잡음을 줄이기 위해 실시한 교계 최초의 주지공채에서 28:1이라는 경쟁을 뚫고 경북 군위군 인각사 주지에 임용된 대원스님. 부임 이틀째 칠월칠석을 맞았고, 사흘째엔 일연성사 다례제를 봉행하는 등 벌써부터 분주하다.

그러나 대원스님에게 맡겨진 가장 큰 임무는 인각사 성역화 사업. 하지만 스님은 오히려 자신의 힘으로 '부처님 일'을 대신한다는 생각에 머리속에는 벌써 성역화된 인각사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일연스님이 삼국유사를 저술한 곳이며, 조선중기까지 총림법회가 열리는 등 사세가 대단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각사 성역화와 관련, 철저한 고증작업을 거쳐 금당과 일연성사기념관 건립 등을 이뤄낸다는 각오다.

"성역화 사업도 중요하지만 수행자의 본분을 지키면서 가식없이 신도들과 호흡을 맞추는 일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지역정서 파악이 급선무라는 스님은 신도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고 그래서 신도들이 주인인 전법도량으로 가꿔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원스님은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를 수료한 학구파로 알려져 있으며 철원 도피안사 주지를 역임했다.

이윤호 기자

"불자기사 전국연합회 만들터"

BBS교통통신원불자회 엄 한 기 회장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청주등 전국 운전기사불자들의 연합체 구축을 위해 점차적인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회원들의 자질향상에도 힘쓸 생각입니다."

오는 9월 1일 BBS교통통신원불자회 제5대 회장에 취임, 새롭게 교통통신원불자회를 이끌어갈 엄한기회장이 밝히는 사업계획이다.

지난 90년 불교방송개국과 함께 출발한 BBS교통통신원불자회는 지난 7년간 달리는 법당, 달리는 포교사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BBS교통통신원불자회는 그동안 불교방송 프로그램 〈거룩한 만남〉의 차량지원활동, 초파일 자원봉사, 혜광맹인불자회 회원들의 차량지원등 봉사활동을 비롯 항상 불교방송을 들고 다니며 승객들에게 불음을 전파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였다.

엄회장은 또 "매월 열리는 조별 법회의 활성화와 더불어 양로원, 고아원등의 봉사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현재 약 5백여명에 이르는 통신원들의 수를 더욱 늘려 버스나 택시등 어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더라도 항상 불법을 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

게시판

▲실천불교학교 개강=보광사(주지 효림)는 실천불교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의내용은 불교기본교리, 의식, 불교사 등으로 오는 9월4일(수요반) 8일(일요반) 입학식을 갖는다. (0348)942-7700

▲불교기초 무료강좌=(사)한국불교연구원 서울구도회는 오는 9월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불교기초무료강좌를 마련한다. 대상은 제한없음. (02)3411-6167

▲여성사무장 모집=일산 원각사(주지 명덕)는 미혼여성으로 어린이·청소년을 지도할 사무장을 모집하고 있다. (0344)915-5063

▲아동·가정 강좌=덕유사회복지관(관장 영담)은 아동공부방, 영어회화, 주부종이접기, 컴퓨터교실, 주부노래교실 등의 다양한 9월 아동·가정복지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032)325-2161

▲시민불교대학 개강=울산시민불교대학은 28일까지 제7기 기초교리반과 제6기 경전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선착순 각 1백명. (02)52-8697

▲죽림사불교대학 개강=포항 죽림사는 제2기 불교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 과목은 불교기초교리, 사원예법, 불교사상, 문화, 유식학, 연기론, 천수경, 반야심경등. (0562)47-4688

▲자원봉사자모집=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 사무국의 업무보조를 담당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업무는 전산업무, 신문발송, 전화상담 등. (02)928-0750

▲작품공모=한국불교청소년문화진흥회(이사장 박용열)는 오는 9월30일까지 제15회 전국불교어린이 글짓기 작품을 공모한다. 공모부문은 운문부(동요 등시 동시조)와 산문부(일기 독후감 기록문 편지글). (02)425-0748

▲수재의연금모금=군승단은 지난달말 폭우로 법당 및 요사채가 붕괴된 5사단 통일사와 15사단 천불사 불사를 위한 성금을 모금한다. (02)749-8646

▲경전강좌=청계사 서울포교원(주지 현조)은 오는 9월9일 불교입문반, 아함경반, 금강경반을 개강한다. 불교입문반은 매주 월·화요일 오전11시~12시30분, 아함경반은 오전반 매주 월·화요일 11시~12시30분 오후반 수·목요일 오후7시30분, 금강경반은 매주 금요일 오후7시30분. (02)676-2279

부음 도광 양석준 2군사령부 무렬사 주지가 지난 16일 새벽3시 수도통합병원에서 별세했다.

교차로

수재성금 1천만원 전달



설정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스님을 비롯 중앙종회의원들은 지난 7월31일 수재의연금 1천만원을 KBS에 전달했다.

해인승가대서 법화경 강의



현해 월정사 주지스님은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학인들을 대상으로 〈법화경〉을 강의했다.

한마음불자회 초청법회



법장 수덕사 주지스님은 지난 24일 태릉선수촌 한마음불자회 선수들을 초청, 법회를 열고 선수들을 격려했다.

日교포 김희로씨 석방탄원



삼중 자비사 주지스님은 재일동포 차별에 항의, 야쿠자를 살해하고 일본 구마모토 형무소에 수감중인 재일동포 무기수 김희로씨를 위문하고 아시아태평양변호사회 7개국 이사회가 결의한 석방탄원서를 일본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지난 22일 출국했다.

후기 학위수여식 거행



송석구 동국대 총장은 지난 23일 교내 문화관 예술극장(경주캠퍼스는 당교 원효관 소강당)에서 '9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거행하고 학사 354명등 총 833명을 배출했다.

'현대사회와 불교' 출간



강건기 전 북불교대학장은 최근 '지혜로운 삶을 위한 붓다의 가르침'을 부제로 한 〈현대사회와 불교〉를 불일출판사에서 펴냈다.

정년퇴임 인환스님



계율연구·오계수지운동 앞장

8월을 끝으로 정년퇴임해 15년간 정들었던 강단을 떠나는 인환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 지난 82년 교수부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80여편에 달하는 연구논문과, 현장실수를 통한 선(禪)강의 등 학문과 포교에 있어서의 업적은 긴 세월만큼이나 두텁다.

퇴임후 스님은 강단에서 분필을 만지며 디뎠던 발걸음 보다 훨씬 더 바빠질듯. 9월중 출간예정인 〈한국불교계율사상연구 I〉 마무리 작업과 지속적인 계율연구작업, '오계파지운동 국제본부' 총재로서 오계수지 확산운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우〉

대학생 17명에 장학금

황명수 동우장학회 이사장(동국대 총동창회장)은 지난 23일 동국대 교무위원회의실에서 재학생 17명에게 96년도 2학기 장학금을 전달했다.

WFB 부회장 영결식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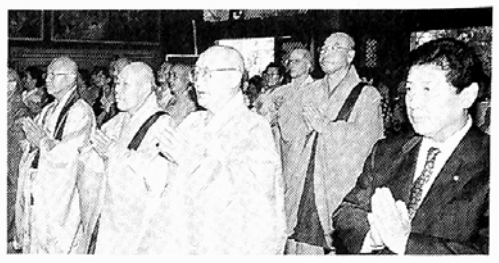
박동기 WFB한국본부회장은 지난 25일 태국에서 거행된 파라송분총 WFB본부 상임부회장 영결식에 참석 분향하고 26일 귀국했다.

한탄강 주변 유적 답사

김재일 두레문화기행 회장은 지난 25일 후삼국의 흔적이 배어 있는 경순왕릉, 보가산성, 숭의전, 통현리지석묘 등의 한탄강사를 답사했다.

문화센터서 원왕생 교육

유재철 대한불교연화회실장은 9월3일부터 불교방송불교문화센터에서 원왕생교육을 실시한다. 불교식 상·장례의식을 보급하는 원왕생교육은 3개월 과정. (02)732-9618



선학원 원장 성해스님 진산식

재단법인 선학원 원장 취임식이 지난 18일 선학원중앙선원 대법당에서 봉행됐다.

이날 진산식에는 선학원 이사장 정일, 화계사 조실 숭산, 일본 고려사 관장 태연스님, 신한국당 전용원의원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

성해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청정비구승단의 수행가풍을 새롭게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애틀랜타 올림픽 선수 환영법회

제26회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선전을 거두고 돌아온 불자선수 환영법회가 지난 1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심권호(레슬링·금), 전기영(유도·금), 조민선(유도·금), 이봉주(마라톤·은) 여홍철(체조·은)선수등과 월주스님, 태응스님, 서석재 국회정각회 회장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했다.



도선사 칠석맞이 청소년 문화한마당

삼각산 도선사(주지 동광)는 지난 18일 마음의광장에서 칠석맞이 청소년문화 한마당을 개최했다.

도선사 학생회·청년회를 비롯 6백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김병조씨(개그맨)의 사회로 사물놀이, 부채춤, 승무, 청소년노래(장기)대회, 연예인 공연 등이 펼쳐졌다.



조계사 '96노가바 경연대회 열려

조계종 포교원과 조계사 중·고학생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96노래가사 바꾸기 대회가 지난 17일 조계사앞 특설무대에서 개최됐다.

'노래속에 피어나는 우리의 불심'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대회에는 9개팀이 참가해 박주연·최선용군(조계사)이 금상을, 김효식의 5명(동대부고)이 은상을, 이혁주외 4명(장안정사)이 동상을 받았다.

불자님을 위한 새로운 통장이 나왔습니다!

금융기관 최초 「21세기 한마음통장프로그램」

"은행거래로 더 많은 보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찰 및 관련단체는 통장명칭을 정하여 기부금(보시)을 받을 수 있는 집금계좌를 개설하고

불자님은 소속사찰 및 관련단체가 정한 이름의 통장으로 평소와 똑같이 은행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은행만의 부담으로 이자금액의 20%와 보너스금리 0.25%를 사찰 및 관련단체 계좌에 기부(보시)하며 불자님의 불이익은 전혀 없고 금융거래 비밀도 보장됩니다.

통장이름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00寺통장, 00선원통장, 00포교원통장, ...

다양한 특별서비스
▶공지사항 회원통지서비스 ▶통장의 디자인 ▶대여금고 무료이용
▶야간금고 설치 ▶ID카드 및 공익직불카드 발급서비스 등



한일은행

- 은행만의 부담으로 이자금액의 20% 해당액을 기부(보시)하는 과목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 은행에서 약정금리 이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보너스금리 0.25%를 기부(보시)하는 과목 : 정기예금, 정기적금, 가계우대정기적금, 근로자정기저축, 자유입출식가계금전신탁, 정기적립식꿈모아적립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계발신탁(확정)

"자연을 그대로 옮겨놓듯 채색"

산문밖의 禪

단청장 박준주 씨



"색깔만 칠하는 것은 죽은 단청이야. 손으로 하지말고 마음으로 해야지…."

69세의 단청장은 자로 재듯 꼼꼼히 매서운 눈초리로 감독하며 화원들의 손놀림이 흐트러지려는 기색이 보일 때마다 여지없이 장군죽비를 후려치듯 일갈한다.

51년의 유구한 세월동안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외도 한번 없이 올곧게 전통단청 맥잇기에 진력해 온 박준주씨(한국단청협회 회장)는 매일아침 30분~1시간씩 좌선에 든 뒤 절주위를 포행하며 마음을 바로잡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외형적으로 흉내내기에 급급한 것은 한낱 나무토막을 물들이는 것에 불과하다. 생명력을 불어넣은 것만이 작품"이라는 화두로 뼈를 깎는 정진을 통해 잉태된 작품들은 불국사 동화사 허인사 등 전국 사찰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주며 궁궐과 절에만 장엄하는 작업"이라고 정의했다.

고정되고 변화하지 않는 이미지의 단청작업은 아무리 집을 잘지어 놓아도 장액을 바르게 긋지 못해 집까지 기울어지게 하는 것과 같다. 또 건물과 건물사이를 조화시키는 작용도 하기 때문에 단청장에게는 어떠한 미혹에도 집착함이 없고 정과 동에 기울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말해 자연과 합일되는 자연스러움이 단청의 생명이라는 것.

박준주씨의 단청인연은 광복되던 해인 1945년 18세 약관의 나이에 전북 김제 백구면의 부용사 김일석스님의 문하생으로 입문해 습화(그림을 배우는 것)로 시작한다. 맨처음 탱화부터 시작했는데 4~5년동안 시왕(시왕상)초 1천장, 보살(보살상)초 1천장, 천왕(사천왕상)초 1천장 등 무려 3천장을 그려냈다. '그렇게 해야 중구난방이 되지

"사회상까지 투영시켜야 생명력 있는 작품돼요"

18세에 입문 탱화 3천여장 습화
51년간 올곧게 전통단청 맥잇기
매일아침 좌선·포행으로 마음안정
전국사찰 만행 '내적 단청'도 몰두

"작품은 그것을 그린 화원의 표상이 나타나는 것은 물론 그 시대 모든 사회상이 투영됩니다. 정력과 혼이 박혀있는 것은 세월의 흐름에 관계없이 세계 어느 누가봐도 탄복의 대상이 됩니다."

길을 지나가다 단청 불상 조각을 힐끗 쳐다보기만해도 그것을 만든 사람의 내재된 심리가 감지된다. "아무리 외적으로 보면 입이 벌어질만한 작품들도 교밀하기만 하지 정교하지 못한 것은 작가가 마음을 땐데 두고 만든 작품이란 느낌을 준다"며 작품 하나에 혼과 성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작가 스스로도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할뿐 아니라 조금씩 변화해가는 변천과정도 민감하게 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불화는 하나의 색채에도 묘미가 있지만 정수는 선에 있다"는 박준주씨는 "훌륭한 불상은 의사(衣紗)를 보면 아름다운 여인네가 엷은 옷을 입은 듯 유연한 형상이 상호로 올라가 입가에는 웃음을 띠고 엄하며 눈은 근엄하고 자애롭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민족의 당당하고 밝은 기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고갱이가 거기 있다는 것을 그는 거듭 강조했다.

박씨는 단청에 대해 "재목을 오래가게 하고 목수의 거친 손길을 마무리해 않는 기초적인 필력을 얻는다'는 스승의 가르침은 엄했다.

그런 다음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입채(채색넣는 것)를 시작했고 단청 개금은 보기만해도 저절로 응용되었다. 그것은 고행의 세월에서 자연히 우러나온 힘이었다. 어느 순간부터 '개금하면 박준주'라는 경지에 이른 것.

그러나 그는 만족하지 않았다. 더 큰 욕심을 낸 것이다. 한 순간 홀연히 모든 것을 버리고 10년간 은둔해 만행을 했다.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을 찾아다니며 자기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고 '내적인 단청' 찾는 작업에 몰두했다. 10년 수행끝에 자신의 내적 단청을 하고나서 박준주씨는 다시 붓을 들었다.

그는 후배들을 위해 강좌를 열고 화원들의 전신인 스님들의 맥을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보고 맥찾기에 열중이다. 한국불교미술의 이론적 체계화 작업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화원은 집착을 떠난 무념무상의 일심이어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돈과 환경에 집착하면 올바른 작품이 나오지 않지요."

옛날에는 화원들이 스님이었고 보통 3~5년에 걸친 정성으로 불사가 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져 잘 되었다. 옛날 작품이 현재의 작품보다 나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화원스님들의 정신과 맥을 이어야 한다는 박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대체적으로 인도-중국-한국으로 전래도를 설명하는데 직접 확인해 보니 선의 굵기와 방식, 작도법이 인도와 우리나라는 똑같은데 비해 중국은 다릅니다." 그 이유를 캐보아야 하는데 눈을 늦게 떠서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하지만 사실 박씨는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용광로처럼 큰 열정으로 조선시대를 거치며 실무위주로 흘러버린 한국단청의 학술적 정립을 위한 역사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그는 그것이 맥이 퇴색되고 있는 전통단청을 살리는 최선의 작업이라 생각하고 있다.

이제는 단청을 하는 것이 단순한 장엄을 넘어 치열한 구도행처럼 느껴진다. 그 치열함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는 대자유, 해방감을 더욱 깊게 느낄 수 있다. 시시때때로 닥쳐오는 단청으로 채색된 삶의 의문덩어리들을 지워내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고개숙인 조선의 불상보다 체구가 당당하고 활달하며 균형있는 신라불상의 모습이었으면 합니다."

조용히 읊조리는 박준주씨의 말을 들으며 혼돈의 세계에서 헤엄쳐 다니는 우리들의 자화상은 어떤 모습일까 가만히 그려보았다.

김원우 기자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왜 두렵고 공포심이 나는지요

문 혼자서 야간산행을 조용히 즐기고 싶은데 막상 야간산행을 하려니 두렵습니다. 공포감에서 벗어나는 방편은 없는지 여쭙습니다.
〈최정근·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답 어떤 대답이 나올지 알고 계시면서 물으시는 것 같군요.

아다시피 '나'라는 생각이 공포와 불안을 낳습니다. 내가 있다는 생각, 내가 한다는 생각이 있는 한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공포와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까짓것 죽기밖에 더하겠느냐는 정도로 생사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만 어떤 경계가 닥치든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두려움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낮에는 혼자서 산행을 해도 두렵지 않더니 밤에는 두렵다, 그러면 뭣이 다르냐? 어둠 때문인데 어둠이 왜 무섭냐? 어둠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습지 않습니까?

내가 예전에 혼자서 산속을 몇 년이고 돌아다녔는데 어느때 한 묘지에 기대어 잠이 막 들려는데 묘지속에서 두런두런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 놀라서 도망치다가 뭔가에 탁 걸려 주저앉았는데 그때 무슨 나무 그루터기인가에 엉덩이를 꽉 찍혔습니다. 그 순간에 공포는 싹 사라지고 아픈 생각뿐이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어떠했겠습니까? 아하! 그만 속았구나. 귀신은 무슨 귀신,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것을! 하고는 다시 그 묘지로 돌아가 벼개삼아 한숨 잘 잔적이 있습니다.

어둠을 두려워하는 것도 내속에서 나온 것이지 어둠이 무슨 귀신짓을 하면서 처사님께 덤벼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속에서 나온걸 그속에서 해결해야지 방편은 무슨 방편입니까? 무슨 주문같은 것이라도 있을줄 아셨어요?

내가 진짜 방편 하나 일러드리지요. 무서움도 거기서 나온 것이니 거기다 되 집어넣어라. 무섭게 하는 것도 어둠이 아니라 거기서 하는 것, 다 내 속에서 나온 것이니 해결하는 것도 내 속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니 정히 뭣하시면 '주인공, 무섭게 한 것도 너이니 안무섭게 하는 것도 너'라고 맡겨버리세요. 그뿐입니다.

윤회와 천도를 알고싶습니다

문 전생은 있습니까? 인간은 윤회라는 틀속에서 영적으로 진화합니까? 죽음은 옷갈아 입는 것이라는데요. 또 우리가 음식먹을때, 일할때 조상과 같이 하는 것인지요? 조상천도하면 9대까지 천도가 됩니까?

스님께서 한마음을 말씀하시는데 한마음과 마음의 차이는요? 〈익명의 독자〉

답 우주의 근본이 내 근본과 다르지 않고 저 태양의 근본이 내 근본과 둘이 아닙니다.

우리가 혼자 먹고 혼자 일하는 줄로 생각하시겠지만 우리는 같이 먹고 같이 일합니다. 우주 일체 삼라만상은 한 통속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내 조상 네 조상이 따로따로인 줄 알지만 실은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서 같이 먹고 같이 일하고 같이 살고 같이 돌아갑니다. 일체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몸뚱이만해도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중생이 들어 있습니까? 이 몸뚱이가 그대로 소우주란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먹는다해서 나 혼자 먹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잘 안믿으시겠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근본은 시공을 넘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점을 의심없이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먹을때 조상과 같이 먹느냐고 하셨는데 일체가 같이 먹으니 조상뿐이겠습니까?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시공을 넘어 더불어 살고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 9대뿐인가요. 3대다 5대다 9대다 그러는데 삼천년 전의 부처님이 오늘에 계시고 오늘이 곧 삼천년 전인데 몇대라고 정할게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3대다 하면 3대고 9대다 하면 9대고 영원한 오늘이다 하면 영원한 오늘입니다. 그러니 따로 전생이다 후생이다 할 것도 없습니다.

과거는 짊어지고 나왔으니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없습니다. 고로 지금 이 찰나입니다. 찰나도 말이 찰나이지 찰나라고 할 고정된 순간이 없으니 현재도 없는 셈이지요. 그냥 일체만물이 고정됨이 없이 나투고 돌아가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공입니다.

전생이라는 것, 윤회라는게 다 마음으로 짓고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본래 공인줄을 모르니까 과거에 지은 업이 업식으로 채곡채곡 쟁여져서 오늘의 현재의식에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윤회하는 주체가 있어서 전생이다 후생이다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업식의 작용이란 말입니다.

한 생명체가 탄생하는 데는 영원한 생명과 업식과 사대로 뭉쳐진 육신의 계합이 따릅니다. 영원한 생명은 달리 불성이라해도 좋고 진여라 해도 되고 한마음이라 해도 됩니다. 이 한마음은 늘지도 줄지도 않으면서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이 공부하는 목적은 궁극에 가서 해탈 열반하자는데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의 삶이란 진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업식의 노비문서를 다 태우고 대자유인이 되기까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길에서 몸이 낡아지면 다시 새 옷으로 갈아입어 가며 마음을 닦아나가는 것입니다.

선운사 도솔암은 잘 알려지지 않은 기도보궁이라 심오한 적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솔암 성지순례 및 방생법회 안내

"한 곳에서 방생도 하고, 보궁도 참배합니다"


도솔암 경내 보물 제1200호 마애석불


도솔암 경내 도솔천 내원궁

선운사 도솔암은 역사가 1,400여 년이 넘은 백제고찰로서 해동제일의 지장기도 보궁입니다.
또한 경내에는 보물 제280호 지장보살과 보물 제1200호 마애석불이 모셔져 있고 천연기념물인 동백꽃과 상사꽃으로 유명한 서해제일의 기도영험도량입니다.
도솔암 주위에는 신라 진흥왕의 기도지인 진흥굴과 용문굴의 절경이 있고 또 500m 이내에 맑은 계곡물을 막은 5만 평 규모의 거대한 저수지(도솔제)도 있습니다.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천애의 방생기도도량인 저수지(도솔제)에는 100여 대의 대형버스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도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지순례 불자님들을 위해 이번에 선운사 큰 절에서 도솔암까지 대형버스 길을 닦았고 도솔암 입구에 천여 평의 주차장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한 곳에서 방생도 하고 해동제일의 지장보살도 친견하시기 바랍니다.

도솔암 오는 길

승용차편
1. 경부고속도로 이용 호남고속도로로 진입 정읍I.C에서 내려 좌회전 고창방향 흥덕 선운사까지 15km
2. 남해고속도로나 88고속도로를 이용 호남고속도로로 진입 백양사I.C에서 내려 좌회전 고창읍까지 10분 고창읍에서 선운사까지 20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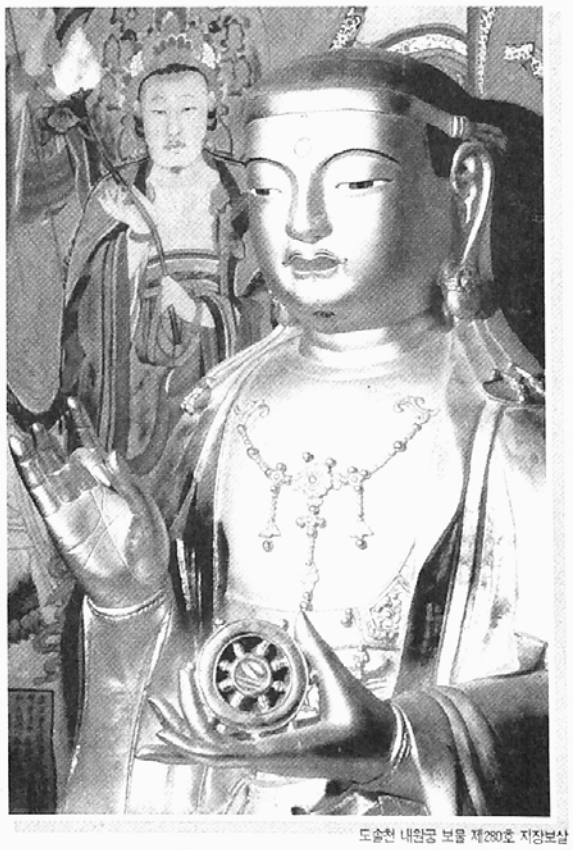
열차편
서울역~정읍역 새마을 또는 무궁화열차 이용 정읍역에서 도솔암까지 택시 이용

버스편
강남 고속터미널~고창읍이나 정읍에 도착 도솔암까지 택시 이용

♣ 부산, 경남, 대구, 경북방향은 광주고속터미널에서 하차 선운사행 또는 고창행 버스를 이용하여 선운사에 도착 도솔암까지 택시 이용
♣ 보궁참배 및 방생법회를 오실 때 사전연락을 주시면 무료공양 및 안내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해동제일 지장기도보궁 선운사 도솔암

전화 : (0677) 64-2861, 63-4612 팩스 : (0677) 64-8317
문의처 부산·경남 : (051) 632-0383/대구·경북 : (053) 255-2838/서울·경기 : (02) 238-9910


도솔천 내원궁 보물 제280호 지장보살

불교토착화 나라마다 다르다

이기영박사 '동아시아 3국…' 학술회의서 주제발표



"한국·중국·일본 동아시아 3국의 불교는 각기 다른 역사적 순환속에서 많은 동일성을 지니고 있는 반면 서로 다른 모습의 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기영 원장(한국불교연구원)은 지난 26~27일 서울 힐튼호텔서 열린 동아일보와 중국 인민일보 공동주최 '동양사상과 사회발전' 주제의 96국제학술회의에서 '동아시아 삼국에 있어서의 불교와 문화' 주제 발표를 통해 3국의 불교의 수용과 변이 과정의 고찰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韓-보수 日-자유 中-가변성 특징

먼저 불교 수용상의 특징으로 한국은 보수적이며 사대(事大)적이었던 반면 문화의 80%가 불교적인 일본은 비교적 자유분방하고 독창적인 면이 강했다. 중국은 정치권력을 쥔 지배자들의 성향과 토착문화의 배경에 따라 많은 차이를 가져왔다는 설명이다.

나름대로의 우주론과 역사철학 윤리 문화적 풍토 등 시대와 사람·장소에 따라 임의로 수용되고 변형되는 것은 필연적 과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한국, 일본의 경우 문화의 축이 중국에 있어 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몽고의 중국지배에 의한 영향으로 중국과 한국에서의 불교적 영향력은 점차 상실된 반면 몽고의 침략을 막을 수 있었던 일본은 불교의 완전 토착화에 성공을 거두게 됐다는 것.

따라서 불교는 일본인의 언어와 생활문화의 토양으로 자리잡게 됐으나, 한국은 조선왕조가 들어서며 지배이념이 바뀌는 진통을 겪으면서 과거의 문화전통에서 단절되고 급기야는 왜곡된 역사관을 갖게 됐으며 이는 결국 한국의 현대사회에서 불교가 지성인들로부터 외면받는 주된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불교와 역사를 올바로 바라보고 그에 따른 이해와 실천은 분명 인간역사를 뒤바꿔 놓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원장은 아놀드 토인비나 칼 야스퍼스와 같은 서양 철학자들조차도 불교의 사상이 밑바탕을 이루고 있음을 강조한다.

죽음을 이기는 종교 불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지혜를 통해 삶의 正道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준다. 따라서 이기적인 현대문명에서도 이타주의적 보시를 통한 정토구현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한명우 기자

日학자 의상사상 왜곡 비판

김지견박사, 이시이 '화엄사상 연구' 분석



김지견박사(정신문화연구원 교수)는 日불교학자 이시이교수가 지난 2월 동아시아의 화엄사상을 집대성해서 펴낸 〈화엄사상의 연구〉(춘추사 刊)에서 의상대사(625~702)의 독창적인 이론과 수행과정에 의문을 제기한데 대해 "검토결과 이 책은 근거없는 사실을 토대로 고의로 의상대사를 평가절하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를 반박하는 논문을 저자와 일본의 주요 신문사에 보냈다고 밝혔다.

오·탈자 많은 신수대장경 인용 잘못

신라의 고승 의상대사는 스승 지엄스님 입적 3개월전인 668년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라는 명저를 지었으며, 여기에는 이인다라(理因陀羅·이치와 진리의 세계)와 사인다라(事因陀羅·현상과 사물의 세계)의 개념을 정립해 이이무애법계(理理無碍法界·진리는 서로 상충됨이 없고 진리와 현상은 두개가 아니다)라는 독창적 사상체계를 세웠다.

그러나 이시이교수는 문제의 부분인 이 책 '제1부 제3장 신라의 화엄' 편에서 '理因陀羅尼' '事因陀羅尼'라고 표기하면서 의상대사가 새 이론을 만들면서 의도적으로 합성한 조어로 추정했다. 용어 끝에 '尼(니)'를 붙인 것은 '因陀羅'와 '陀羅尼'를 합성한 것으로 정식 범어(산스크리트)에는 없는 엉터리 조어법인 것이다. 따라서 이시이교수는 스승 지엄이 이런 과격적 조어를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의상대사가 스승의 교시를 받아 '화엄일승법계도'를 완성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김지견박사는 이시이교수 자신도 인정하듯이 전승과정에서 수많은 탈락과 오식으로 믿을만한 텍스트가 못되는 신수대장경(新修大藏經)을 그대로 인용한데서 비롯된 것이며, 텍스트에 대한 면밀한 검토조차 없이 잘못된 용어를 토대로 의상대사를 왜곡한 것은 신라화엄종의 종조를 무시, 한국의 화엄사상 전체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박사는 "단적으로 해인사에 소장된 〈법계도기총수록(法界圖記叢髓錄)〉이나 균여가 지은 〈법계도기원통기(法界圖記圓通記)〉 등에는 분명히 '尼'가 없는 '因陀羅' 표기돼 있는 것만 보아도 이시이교수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것인가를 밝혀주고 있다"고 단언했다.

"문화재 전문행정인 늘려야"

경북도청 오장홍씨 석사논문 '문화재관리…'



일선에서 문화재관리 행정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우리 문화재관리의 현주소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 논문을 발표해 관심을 끈다.

이 논문은 오장홍씨(경북도청 문화예술과장)가 〈문화재 관리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경상북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경북대 행정대학원에 제출한 행정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이론적 측면을 탈피해 행정일선에서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문화재관리의 실태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밝히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장조사 강화·보수자 양성등 대안제시

오씨가 지적한 문제점은 중앙·지방관서의 조직·인력, 문화재 지정, 보수, 예산 등 크게 네가지. 우선 조직·인력의 경우 각 도는 문화체육관광국 산하 문화예술관에 문화·예술·문화재계가 있으나 형편상 업무처리를 통괄해야 하는 처지고, 인력이 부족한 상태여서 전문적인 문화재업무 수행은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이다.

문화재지정의 경우에는 현장조사 및 수시점검의 소극성 및 정부와 국민의 문화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등을 꼽았으며, 보수의 문제점으로는 문화재보수·설계업체 부족과 공기지연으로 인한 부실공사 등을 들었다.

또 예산부족의 문제점은 차치하고라도 국비보조사업이 제때 사업비가 책정되지 못해 보수에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오씨는 조직·인력의 경우 건조물 1·2계와 기념물계로 구성된 문화재과를 설치하고, 도에는 학예연구직을 증원하며, 각 시·군은 학예관련 전공자를 별정금으로 채용해 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할 것을 주장했다.

지정문제도 문화재관리국이 연차적으로 시·도를 정해 지정·비지정문화재를 일괄조사를 결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수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보수기술자 양성과 엄격한 공사시행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예산의 경우에는 국비, 도비를 막론하고 해당 시·군의 시장, 군수가 보수비 지원신청시 보수대상 문화재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대규모 정비, 보수사업의 계획수립시에는 사전에 도와 협의, 비지정문화재의 보수비 지급신청을 가급적 억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깨달음의 시간 단계 무의미"

禪敎일치 지향 좌선폐단 지적…사회문제에도 관심

보조국사 지눌은 돈오(頓悟)론자인가 점수(漸修)론자인가. 그러나 학자들은 지눌에 있어 이같은 논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지눌의 돈(頓)은 깨달음의 시간이나 단계보다 무엇을 깨달았는가를 중요시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5편의 논문을 통해 지눌사상에 대한 철학·불교학·윤리학·역사학적 측면에서 다양한 고찰을 시도한 연구서 〈지눌의 사상과 그 현대적 의미〉(한국정신문화연구원 刊, 한국사상가대계 제3권)는 학계의 관심을 끈다.

정신문화硏 간행 '지눌의 사상과 현대적 의미'



◇정신문화연구원이 간행한 「지눌의 사상과 그 현대적 의미」.

우선 김형효교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 철학)는 '지눌사상의 실존성과 본질성' 연구를 통해 그동안 일반적으로 인식돼 온 깨달음(頓)의 '때' 즉 시간단계의 중요성을 지눌의 돈오점수(頓悟漸修)사상의 고찰을 통해 무의미한 것으로 규정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과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선돈후수(先頓後修)를 시간적 순차로서만 간주하게 될 경우, 돈오를 마치지 못하였기에 윤리적 수행을 할 단계가 아니라는 이른바 사념(思念)과 실천의 괴리를 낳는 괴상한 反종교적 자가당착이 도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길희성교수(서강대 종교학)는 '지눌 禪사상의 구조'에서 지눌의 돈오는 수행이전의 깨달음인 해오(解悟)로써 선의 시작일 뿐이며, 점차적 수행(漸修)이 뒤따라야 하는 것을 에서 원효와의 비교를 통해 지눌은 자신의 철학을 표명하지는 않으나 함축이 깊어 곱씹어야 그 맛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언설의 소유자였다고 단정한다.

원효가 경전 주석 방식으로 자신의 철학을 전하려 한 것과는 달리 지눌은 몇 안되는 주석서에조차 자신의 의견을 전혀 삽입하지 않았으며, 원효의 장황한 언설과는 달리 지눌에게는 그런 군더더기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한교수는 원효가 '철학자'였다면 지눌은 '교사'였다는 말로 지눌의 자상함과 친절함, 부드러움을 설명한다.

최병헌교수(서울대 역사학)는 '지눌의 수행과정과 정혜결사(定慧結社)'에서 지눌의 정혜결사는 역사를 정화하기 위한 신불교운동이었다고 주장한다. 즉 거조사(居祖寺)에서의 출가자 위주의 수행을 강조했던 것에 비해 조계산 수선사(修禪寺)에서의 정혜결사는 세속인까지도 포용하는 보다 확대된 신불교운동으로 전개된 것으로, 이는 속세를 떠나는 방향에서 추진되었던 정혜결사가 속세를 향한 방향으로 돌아오면서, 그 세속에 물들지 않는 단계로 발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허우성교수(경희대 철학)는 '지눌의 윤리사상의 특성과 한계'라는 주제로 몸과 마음의 청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지눌의 윤리사상을 소개하면서 현대에서 마음과 몸의 청정의 연속을 강조하는 보조선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화두를 던져주고 있다. 〈우〉

백양사

해운각

今日巖前噎(금일암전서)
噎久煙雲收(서구연운수)
一道清谿冷(일도청계냉)
千尋碧嶂頭(천심벽장두)
白雲朝影靜(백운조영정)
明月夜光浮(명월야광부)
身上無塵垢(신상무진구)

한국 사찰의 주련

권영한

구름 걷히니 마음은 자재롭고…

心中那更憂(심중나갱우)

오늘 바위 닮으려고 앉았더니
흠연히 구름연기 걷히어서
한줄기 푸른계곡 오늘따라 더욱 차고
천길 높푸른 봉우리가 제모습 분명하다.
아침나절엔 흰 구름 그림자도 고요하고
한 밤에는 밝은 달빛 드리워서
이 내몸도 한 점 티끌 허물조차 없으리니
마음 속에 어찌 다시 근심 걱정 있을 손가.

해설 백양사가 자리한 백양산은 산세가 아름답기로 이름이 높다. 해운각의 주련을 음미하노라면 백양산의 청정한 풍광이 마음을 밝혀준다. 뿐만 아니라 높은 바위에 앉아 묵묵히 좌선삼매에 든 수행승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한다. 천길 높은 봉우리가 선명히 보이는 맑은 날에 바위같은 부동심을 닮고자 좌선하고 앉은 그 자체가 이미 자연스런 구도의 한 단면이 아니겠는가.

그런 풍광 속에서 고요한 낮과 밤의 기운을 몸에 합일시키니 앉은 몸과 그 몸을 둘러싼 배경이 둘이 아닐 수 밖에. 그래서 마음은 자재롭고 근심걱정이 없으리니 그 자리가 견성성불의 자리일 것이다.

〈대구 덕은불교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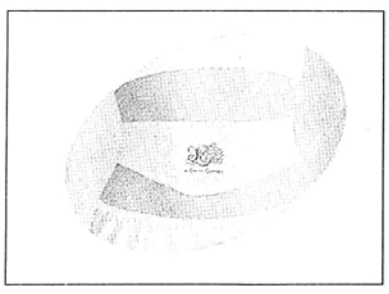
가산학보 5집 불교이론과 정신분석 비교연구

한국의 불교사상사와 불교이론의 정신분석학적 연구를 특집으로 다룬 〈가산학보 제5집〉(가산불교문화연구원 刊)이 나왔다.

논문부와 금석문부, 원전주석부 등 3부분에 걸쳐 모두 13편의 논문이 수록된 5집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서성원교수(동국대 철학과)의 '구사론(俱舍論)과 성업론(成業論)을 통해서 본 종자설(種子設)'과 지관스님(가산불교硏원장)의 '군위 인각사 보각국존(普覺國尊) 정조탑비문(靜照塔碑文)'.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 두통·생리 (송파구 이 남 숙)

저는 20년이 넘도록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다써 보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차 아는분을 통해서 향비라는 조그마한 팩을 배꼽에 차며는 모든것이 좋아질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3日이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생리도 불순했는데 생리도 정상이고 색깔도 너무 맑고 깨끗해져서 나 자신이 놀랄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로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株)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80) 200-4545, 02) 755-9821

정토불교대학 '96 하반기 개강

"정토불교대학에서는 바른불교, 쉬운불교, 생활불교를 보다 널리 펼치기 위해서 강의를 개설하고 체계적인 불교교육을 실시합니다. 4학기 2년 과정인 본 대학은 96년 하반기 개강을 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보다 풍요롭고 지혜로운 삶 누리시기 바랍니다."

	개강일	기 간	요 일	시 간	차/기	교 과 과 정
홍제	9월6일(금)	9월6일-12월20일	매주 금	주간.야간	4차 2기	■ 제4차 제2기 ● 인간본다, 그 위대한 삶 ● 불교사상의 뿌리, 근본불교 ● 수행의 본질과 힘, 오대수행
서초	9월5일(목)	9월5일-12월19일	매주 목	주간.야간	3차 4기	
성남	9월3일(화)	9월3일-12월18일	매주 수	주간.야간	3차 4기	
대전	9월2일(월)	9월2일-12월20일	매주 금	주간	4차 2기	■ 제3차 제4기 ● 불교의 세계적 변천사 ● 진리의바다, 경전의세계 ● 마음을 찾는 길잡이, 심우도
대구	9월4일(수)	9월4일-12월18일	매주 수	주간.야간	4차 2기	
부산	9월5일(목)	9월5일-12월19일	매주 목	주간.야간	3차 4기	
경주	9월6일(금)	9월6일-12월17일	매주 화	주간.야간	3차 4기	

"법륜스님" 개강기념 특별법회
■ 주제 "정토로 가는 길"
■ 일정
대전(9월2일, 월)
성남(9월3일, 화)
대구(9월4일, 수)
부산(9월5일, 목)
경주(9월6일, 금)

● 주간 : 오전11시 - 오후1시 / ● 야간 : 오후7시30분 - 9시30분
● 본 과정은 2기와 4기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원서교부 및 문의·접수처 .....
● 서울 홍제 정토불교대학 / 전화 : 02-379-1650,1,2
● 서울 서초 정토불교대학 / 전화 : 02-522-2841, 582-1080
● 성남 정토불교대학 / 전화 : 0342-721-7062
● 대전 정토불교대학 / 전화 : 042-534-9166
● 대구 정토불교대학 / 전화 : 053-761-5970
● 부산 정토불교대학 / 전화 : 051-557-2746
● 경주 정토불교대학 / 전화 : 0561-772-1950

● 대상 : 누구나 다
● 참가비 : 6만원
● 접수.문의 : 각 지역 정토불교대학

정.토.불.교.대.학
맑은 마음 / 좋은 벗 / 깨끗한 땅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6-5 서일빌딩 5층
전화 : 522-2841 / 582-1080

다시 푸는 경서

虛雲和尙의 참선요지 ⑩

老參上座 知道了這個困難
노참상좌 지도료저개곤란
立卽提起 本參話頭
입즉제기 본참화두
抖擻精神于百尺竿頭 再行邁進
두수정신 우백척간두 재행매진
直到高高絶頂立 深深海底行 撒手縱橫去
직도고고봉정립 심심해저행 살수종횡거
與佛祖覿體相見 困難安在 不亦易乎
여불조적체상견 곤란안재 불역이호
話頭卽是一心 爾我此一念心
화두즉시일심 이아차일념심
不在中間內外 亦在中間內外
부재중간내외 역재중간내외

노참의 상좌가 길을 알아서 그같은 곤란을 해결하면
드는 즉시 본참 화두를 일으켜
정신을 가다듬고 저 백천간두에서 다시 앞으로 뛰쳐 나아가매
곧바로 높디 높은 봉우리에 다다르고 깊디 깊은 바다 밑을 가되 손을 놓고 종횡으로 다닌다.(참선의 순일무잡한 걸림 없는 경지에 들어감)
부처 조사를 더불어 친견하매 곤란함이 어찌 있으랴. 이 또한 쉽지 않겠는가.
화두란 곧 한마음이다. 그대와 내가 이 한생각 마음의 나툼이다.
한마음은 중간에도 안팎에도 없고 또 중간에도 안팎에도 있으니

不執著他 不隨逐他 也不要排遣他
부집착타 불수축타 야불요배견타
只不相續 則忘想自離
지불상속 칙망상자리
成謂 妄起卽覺 覺妄卽離
성위 망기즉각 각망즉리

내가 여러분께 고하노니 망상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한 쫓으려고 힘을 허비하지도 말라 망상을 항복키 위해 다만 망상을 망상인줄 인식하고 망상에 집착하지도 좇아 버리려고도 배척하려고도 하지말라.
다만 망상이 꼬리를 잇지 않게, 즉 절로 떨어지게 할 뿐이다.
이른바 망상이 일어나면 망상인줄 깨닫고 망상인 줄 깨달으면 곧 망상은 사라진다.

若能利用妄想做功夫
약능이용망상주공부
看此妄想從何處起
간차망상종하처기
妄想無性 當體空寂卽
망상무성 당체입공즉
復我本無的心性 自性淸淨法身佛 卽此
부아본무적심성 자성청정법신불 즉차
現前
현전
究實言之 眞妄一體 生佛不二
구실언지 진망일체 생불불이

생사와 열반, 보리와 번뇌가 모두 본래의 마음이요 본래의 성품이다.
분별이 필요치 않고 좋고 싫음, 취하고 버림도 부질없는 일이다.
이 한마음은 청정하여 본래 부처이니 한 법도 필요치 않다.
이 속에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는가.
참!

龍眼

"망상을 두려워하거나 쫓으려말고 어떤 자리에서 일어났는가 보아라"

如虛空的不動而偏一切處
여허공적부동이편일체처
所以話頭不要向上提 也不要向下壓
소이화두불요향상제 야불요향하염
提上則 弓起掉擧 壓下則 落于昏沈
제상칙 인기도거 염하칙 락우혼침
違本心性 皆非中道
위본심성 개비중도
大家怕妄想 以降伏忘想爲極難
대가파망상 이항복망상위극락

마치 허공이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일체처에 두루함과 같다.
그러기에 화두를 위로 끌어 올리려 할 필요도 없고(애써 화두를 든다는 생각을 지으려 말고) 화두를 억누르려 할 필요도 없다.
끌어 올리려 한즉 어수선해지고 억누르려 한즉 혼침에 떨어지니
본래의 심성을 어기는 것이라 다 중도가 아니다.
여러사람이 망상을 두려워해 망상을 항복케함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여긴다.

我告訴諸位 不要怕妄想 亦不要費力去
아고소제위 불요파망상 역불요비력거
降伏他爾 只要認得妄想
항복타이 지요인득망상
不執著他 不隨逐他 也不要排遣他
(이렇게) 만약 능히 망상을 이용하여 공부를 지어가되
이 망상이 어떤 자리에서 일어 났는가를 보라.
(그러면) 망상은 자성이 없어 당체가 공하였으며 또한 나의 심성이라는 것도 공하였으니
자성의 청청 법신불이 바로 눈앞에 나타나리라.
실답게 말한다면 진여와 망상은 둘이 아니며 중생과 부처도 둘이 아니다.

生死涅槃 菩提煩惱 都是本心本性
생사열반 보리번뇌 도시본심본성
不必分別 不必欣厭 不必取捨
불필분별 불필흔염 불필취사
此心淸淨 本來是佛 不需一法
차심청정 본래시불 불수일법
那裏有許多罣礙索 參
나리유허다괘색 참

생사와 열반, 보리와 번뇌가 모두 본래의 마음이요 본래의 성품이다.
분별이 필요치 않고 좋고 싫음, 취하고 버림도 부질없는 일이다.
이 한마음은 청정하여 본래 부처이니 한 법도 필요치 않다.
이 속에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는가.
참!

龍眼

우란분절 특집 지상법석

이웃을 내몸처럼 아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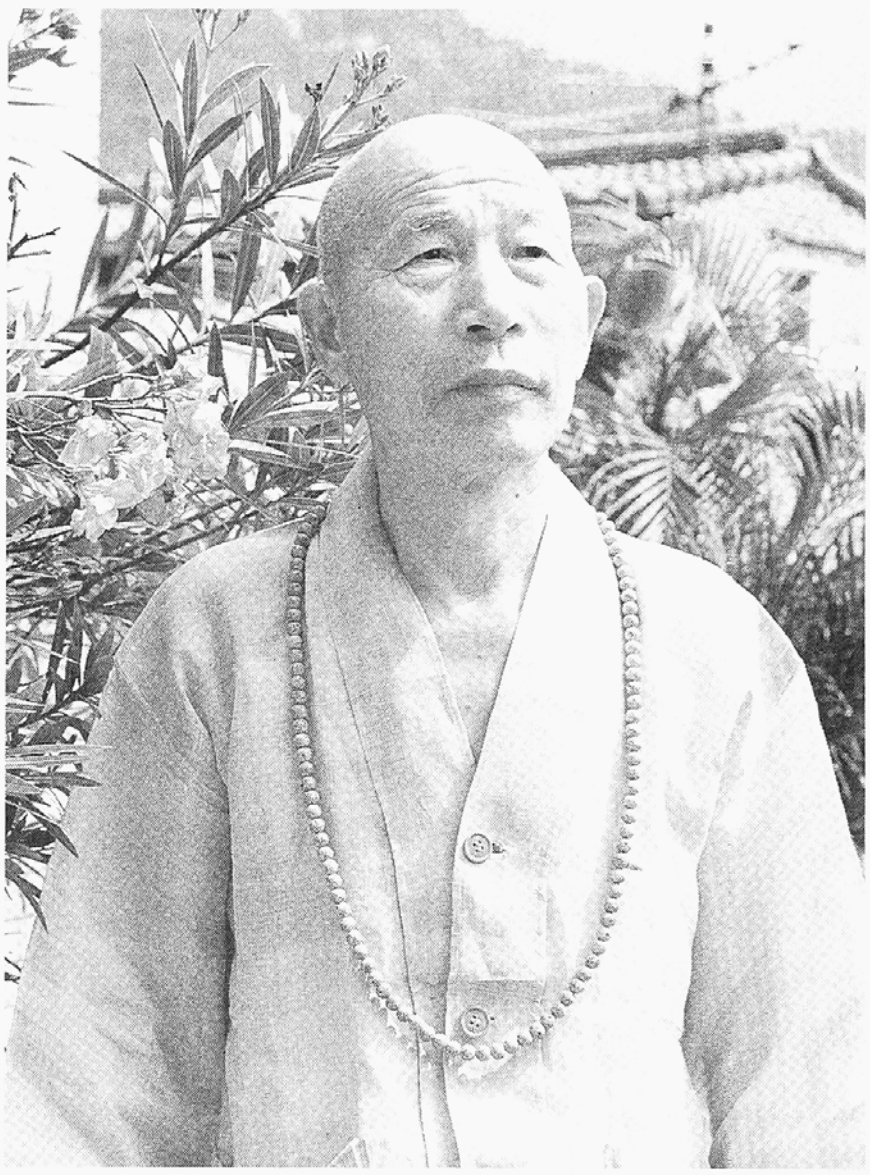
莫言地藏閑遊 (막언지장득한유)
地獄門前漏不收 (지옥문전루불수)
造惡人多修善少 (조악인다수선소)
南方敎化幾時休 (남방교화기시휴)

지장보살님이 한가히 논다고 말하지 말라
지옥문 앞에서 눈물을 거두지 않으신다
악을 짓는 사람 많고 선을 닦는 사람 적으니
사바세계 교화는 언제쯤 끝이 나려나

오늘 7월 초하루를 맞아 보름간의 지장기도를 입제하는 법회라서 지장보살을 찬탄하는 게송을 먼저 소개했습니다. 다른 절에서는 4월 보름날 지장보살기도 입제를 해서 7월 보름까지 하는 경우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란 온전히 마음을 모으는데서 시작되는 것이지 며칠기도이고 무슨기도라는 제목을 정하는데서 시작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도의 끝도 나의 염원을 나의 삶으로 현전시키는 힘을 얻는데 있는 것이지 거창한 회향식을 준비하는데 의의를 두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에서 시작하여 마음에서 마치는 기도가 부처님 법을 그르치지 않는 기도라 할

"중생고와 죄업 끊임없이 계속되는 사바세계 구제는 '나부터 선업쌓자' 서원가질때 가능"

수 있는 것입니다.
법(法)이라는 것 있잖아요. 그 글자를 풀어보면 물(水)이 가는(去)것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것이지요. 물이 흘러가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웅덩이가 있으면 채우고 구부러진데가 있으면 굽어가는 것이 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물은 거꾸로 흐르지도 않고 그 가는 곳의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침묵 그 침묵 속의 장구한 흐름이야말로 우리 부처님께서 밝혀 보이신 이 우주의 진리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옛말에 류수부쟁선(流水不爭先)이란 말도 있는데 이는 흐르는 물은 앞을 다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서로 자기것을 더 많이 채우려하고 먼저 가려고만 하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는 흐르는 물도 이렇게 많은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기도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임을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지장도살님은 지옥중생들, 일체중생들을 다 제도하고 나서 성불하겠다는 원(願)을 세운신 분이라 대원본존 지장보살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지옥 중생을 다 제도하고 나서 부처가 되겠다는 원력은 성불하지 않겠다는 말과 똑 같은데도 그런 큰 원을 세우고 계신분이예요. 아무나 그런 원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왜냐하면 나는 성불 안하겠다는 말과 똑 같은 말이니까요. 지금 한창 재판중인 노태우 전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범법자를 마구 잡아들였고,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개혁을 잘한다 해도 여전히 상상도 못할 범죄들이 일어나고 수해(水害)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고 그러니 언제 이 사바세계의 중생고와 죄업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러니 고통과 괴로움으로 얽혀 있는 사바의 모든 중생을 성불시키고 자신이 성불하겠다는 것은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말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러한 원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바로 성불입니다. 성불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원을 세운 것은 바로 부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지장보살님께 기도하면서 '나 좀 건져 주시오'라고만 하지말고 '나도 지장보살님처럼 돼야 되겠다'고 대원을 세우고 보살행을 열심히 하면 그 길이 바로 지장보살이 되는 길이지요. 부처가 내 속에 살아 있는데 지장보살인들 내 몸 밖에 있을 까닭이 있겠습니까.
꼭 절에 와서 지장기도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집에서라도 항상 조상님을 위해서나 나를 위해서 지장보살님의 원을 마음으로 새기면서 기도하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장보살님의 교화가 언제쯤 끝나겠는가하는 안타까운 한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악을 멀리 하고 선을 닦는 것으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지장보살님의 원을 닮아 가는 것이고 바로 부처되는 길인 것입니다. 부처를 멀리서 구하지 말고 바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부처와 하나되는 것임을 명심하고 생활해야 합니다.
백중을 앞두고 시작한 지장기도를 통해 여러분은 모두 지장보살님의 큰 원을 실천하는 현세의 지장보살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장보살의 길과 성불의 길이 다르지 않으니 이 혼탁한 세상에 촛불같은 서원 하나 밝혀들고 지옥문전에서 눈물 거둘 날이 없으신 지장보살님을 생각하며 정진하자는



운문스님 〈운문사 주지〉

약력
- 1928년 전남 장성 生
- 인곡스님 은사로 도봉산 망월사에서 득도
- 고암스님 계사로 비구계수지
-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등 역임
- 찬불가 3백여곡 작사
- 〈불교성가집〉 〈불교동요집〉등 찬불가집 다수 출간



"여성들의 건강을 위하여 황토로 만든"
가정용 전통 쑥좌욕기 "탄 생"

전통 쑥 좌욕기란?
하복장기의 질환인 자궁병, 냉·대하, 치질, 변비, 방광염, 전립선염등을 치유시키는데 그어떤 방법보다도 탁월한 치료효과를 나타내었던 옛선조들의 지혜와 슬기를 담은 전통적인 세가지 재래식 치료요법을 그대로 살려, 이 세가지 요법이 한곳에서 동시에 발휘되도록 집약시켜 이를 특정부위에 집중적으로 쬐므로서 질환의 치료 예방 효과가 크고 빠르게 개발된 가정용 좌욕 씸질 요법기 입니다.

당신의 건강진단서, 이상 없습니까?
냉이 심하다. 가끔 하혈을 한다. 월경불순과 월경통이 빈번하다. 오랫동안 변비로 고생하고 있다. 치질때문에 고통스럽다. 자궁에 가끔씩 기분 나쁜 증상이 일어난다. 혹시 자궁암에 걸린것은 아닐까? 이런 근심, 걱정, 전통 쑥 좌욕기를 만나는 즉시 말끔히 해소됩니다. 하루 30분씩 전통 쑥 좌욕기에 앉아만 있어도 하복 장기질환이나 모든 자궁병 질환은 저절로 치유되고 예방되기 때문입니다.




"전통 쑥 좌욕기의 요법으로 치유되는 질병 사례들"
(전통 쑥 좌욕은 이런 병들을 치유시키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여성 부인병, 냉·대하, 변비, 치질, 월경불순, 월경통, 질염, 요도염, 방광염, 자궁근종, 자궁암, 불임증, 산후통, 산후조리, 질수축작용, 염증 및 혈액순환촉진, 배가 냉한 사람, 설사가 심한사람, 노폐물제거, 기미·여드름 방지, 전신피로, 배·가슴 근살제거, 갱년기장애 등
남성 치질, 전립선염, 비대증, 전립선암, 조루증, 정력감퇴, 발기부진, 빈뇨, 잔뇨, 소변곤란, 배뇨통 등
◎이상의 열거한 질병이 있는 분은 일단은 무조건 전통쑥좌욕기를 10~15일만 사용해 보십시요 그리고 그 진가를 알으해 주십시요 어느분이고 이 좌욕기로 내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과 함께 그 효능을 확실하게 느끼실 것이며 설령 좌욕기 가격이 몇 백만원이라고 해도 아마 조금도 아깝다는 생각이 안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방차원에서도 일주일에 2~3번씩 가끔 사용하시면 또한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월을 시집보낼때 혼수감 속에 좌욕기는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으로 꼭 넣어주십시요 자궁을 냉한 것으로 부터 항상 따뜻하게 보호해주면서 청결하게 소독해주고 살균시켜주어 자궁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임신했을때 유산되는 일이 드물며, 집에서 산모 스스로 산후조리하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기 때문입니다

특 징
1. 좌대: 열을 받으면 황토기은을 발할 수 있는 황토 분청자기로 만들었습니다.
2. 내열탕기 원적외선이 다량 방출되는 바이오 세라믹 도질로 만들었습니다.
3. 강화약쑥 티백100봉지(100일분)의 100% 순정품 황토가루 100일분이 포함되었습니다.
4.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않고 누구나 손쉽게 30분~1시간 이상 좌욕할 수 있어 편리하며, 좌욕기 한대로 남녀노소 전가족이 공동으로 사용가능 합니다.
5. 오래 앉아있어도 불편하지 않고 질병치유 효과가 크도록 구조 및 규격이 설계되었습니다.
6. 보급가격이 효능 및 효율성, 품질의 우수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전통쑥좌욕기는 "움직이는 황토빙"이며 "이동식쑥찜질방"입니다.



치료원리
• 1시간이상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뜨거운 수증기안에 약쑥의 탁월한 효능과 황토의 신비한 약성과 기적의 치유력을 나타내는 원적외선의 심달력이 삼위일체로 합쳐져, 인체조직 파괴의 위험없이 신체심부까지 골고루 깊숙이 스며들어서 피부모공과 내분비선공을 열어 피부호흡 및 호르몬분비를 촉진함으로서 대사기능 증진과 혈액순환을 좋게하고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고 병원균을 살균시켜 질병을 치유시킵니다.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 않는"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암, 중풍,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쑥뜸비방"
◦현재 가족중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원인을 알수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위에 오랜기간 병을 낫고자 별방법을 다 써도 치유되지 않아 오랜기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밀쑥뜸요법으로 완치되었고 현대의학도 포기한 수백명의 환자들이 바라밀쑥뜸으로 다시 살아난 실증예가 많기 때문이다.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 치료의 사례들
(바라밀 쑥뜸은 이런 병들을 고칩니다)
중풍, 히리디스크, 요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안면마비, 반신무통, 빈혈, 수족냉증, 반신위장병, 위염, 궤양, 위암, 대장염, 간염, 간암, 간경화, 황달, 당뇨병, 비만증, 심장, 제 그밖입, 피부,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 천식, 편도선염, 후두염, 축농증, 정신피로, 갱년기장애, 기미, 주근깨, 여드름, 바로잡, 피부미용, 시력증진, 알레르기성체질, 숙취 단배 냄이 드시는 분, 정력강의, 각종 성인병예방 등



전국지회모집 전국 시·군·구지회 미개설지역·방문 및 전화상담
제조원 : 바라밀 건강연구회
• 본회 : (지하산업문의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전화 (0335)34-9490, 39-1906/아간(0342)706-3060
서울사무소 : (02)508-3284/5
• 본원 : 전상감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한식산가 5363호)
대한불교조계종 보문포교원(원장 각광스님) 부설 불교바라밀건강연구원
전화 (051)864-3740

◎가능한 가까운 지회를 통해서 구입해 주시기 바라며 단, 미개설 지역의 경우 지회가 개설될 때까지 본회에서 구입신청을 받습니다.

서울(02) 서초:508-3284~5 강남:553-0261~2 송파:417-8922 성북:942-6430 은평:305-2910 도봉:942-6430 종로:747-7033 노원:942-6430 마포:715-2062 강북:994-3108 반포:597-7581 부산(051)연제:864-3740 부산진:803-0108 경남 마산:(0551)23-9016 창원:(0551)62-0076 진주:(0596):73-0039 울산:(0522)74-7536 경북 경주:(0561)772-3255 구미·군위:(0578)83-5308 포항:(0562)82-3155/6 경기 의정부:(0351)873-0532, 44-3114 수원:(0331)291-8549 분당:(0347)66-0049 광주:(0347)65-1047 광주(062) 동구:228-8544 대전(042) 중구:222-4936 서구:534-4211 대구(053) 북구:칠곡:323-2598 남구:474-2828 충북 제천·단양(0443)46-3023 강원 강릉(0391)645-2117 전북 전주:(0652)75-6733 제주 (064)22-3324

우란분절 특집 지상법석

누구나 지장보살 화신

"이기심·원망하는 마음 씻어내고 지금 이 자리서 성불씨앗 파종합시다"

중생 어리석음 극락·지옥 분별하는데서 시작
삼라만상이 법신…흘러가는 물도 부처님모습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서원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오늘의 입제법회는 이미 회향의 기쁨으로 넘쳐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 세상 인연을 먼저 마치고 간 유주무주의 영가들을 위해서도 좋은 인연의 실타래를 드리울 축원을 하셔서 온 중생계의 성불을 간절히 빌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절에서의 생활을 토굴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로 보면 초라한 작은 절에 불과하지만 토굴로 보면 호화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혼자서 지내다 보니 혼자서 목탁치고 절도 하고 법문도 하고 청소도 하고 모든 것을 해요. 어떨땐 혼자 북치며 야파는 약장사 같다는 생각이 들어 혼자 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토굴 생활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고 그게 또 편해요. 누구 간섭도 안 받고 신도분들이 마음대로 하니까요.

이렇게 딸과 함께 도인의 생활을 누린 방거사도 그분의 도반스님이 '요사이 뭐하고 지내느냐' 하니까 '나는 밥먹고 잠자고 물길고 청소하는 것 이상 없다'고 얘기했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일상적인 것 이상 더 특별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절에 오고 일상 생활하는 것 속에 도(道)가 있고 부처님도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상생활속에 밥먹고 잠자고 청소하고 집안 살림하고 걸어다니고 숨쉬고 하는 모든 것이 바로 도인의 생활인 것이지 도인의 생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님을 아시고 평소에 도인의 마음으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지옥문 앞에서 눈물 흘리는 지장보살님, 그분이 눈물을 흘리며 서 계신 곳이 바로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이곳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사는 이곳이 극락이다가 지옥이기를 반복하는데 어떤이는 극락의 마음을 가져 극락에 노닐고 어떤 사람은 지옥갈 죄업을 지어 지옥의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는 곳이 여기 이 세상이 아닙니까. 극락과 지옥을 굳이 나누어 분별하는 데서 이미 중생의 어리석음은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성불을 하겠다'고 서원을 했다가 '아이고, 금생에는 안되나 보다. 다음생에 성불하기로 하자'한다면 다음생에 그 서원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곳 서원을 한 이 자리에서 성불의 씨앗을 파종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지 그 열매를 따 먹을 일에 미리 마음을 옮겨가서는 안되는 겁니다.

산에서 흐르는 물소리가 바로 부처님의 광장설이라
산의 여러 모습이 어찌 부처님의 청정법신이 아니겠느냐

어제저녁의 얘기나 잠꼬대가 팔만사천 게송인 것을
그것을 다른 날 어떻게 사람에게 주겠는가

중국의 위대한 시인 소동파 선생이 불인요원(佛印了元) 선사와 하루밤을 같이 지내고 나서 도를 깨쳤는데, 소동파거사가 읊은 오도송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물흐르는 소리가 바로 부처님의 법문이요, 산의 푸른 빛 높이 솟은 바위의 모습이 바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큰 절에 비로자나불 아미타불 석가모니불 등 여러부처님을 모셔놓은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우리 중생들의 신앙의 대상을 삼기 위해서 모셔놓은 것이지 반드시 그런 모습속에만 부처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그런 모습을 떠나서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모습도 비로자나불이고 삼라만상 그대로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비로자나불 속에 푹 파묻혀 살고 또 여러분 자체가 바로 비로자나불인 것이지요. 삼라만상 그대로가 청정법신인데 여러분의 몸뚱이가 어찌 비로자나불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부처인줄 모르고 있는 여러분들을 모두 부처 만들어 드렸으니 모두 오늘부터 부처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부처로 살아가십시오 부처님처럼 큰 마음으로 나 바꾸고 세상 바꾸며 일상을 청정하게 사세요"

옛날에 중국의 큰 절에 행자와 노스님 한 분이 있었는데 행자가 어느날 법당 부처님을 향해 침을 탁 뱉는 것을 보고 노스님이 감히 부처님앞에 침을 뱉는다고 호통을 쳤지요. 그랬더니 그 행자가 "부처님 아니 계신 곳을 알려 주십시요. 그러면 제가 거기다 침을 뱉겠습니다" 했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은 어디에나 있는 것이예요. 한 강물이 흘러가는 것이나 바람이 부는 것이나 태풍이 일어 물결이 출렁이는 것 모두가 부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돌려서 그렇지 세상 모든 모습이 바로 부처님이다 이 말입니다. 소동파 거사가 그날 밤에 읊은 팔만사천게송을 다른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주겠는가 하고 안타까워 하는 이유도 바로 우리가 너무나 몰라준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바로 부처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이나 모습들이 또한 부처의 나툼이라는 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잊지 않고 지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극락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밖으로 보이는 것만 듣고 보지만 마음으로 삼라만상이 법신임을 굳게 믿는다면 모든 사람의 말이나 자연의 소리가 바로 부처님의 법문으로 들릴 것이고 저절로 청정한 마음이 일어나 기쁨이 한량없고 선을 닦아가게 될 것입니다.

흐르는 물소리에서 여러가지 자비의 소리도 듣게 되고 바라밀 법문도 듣고 신통지혜의 법문도 듣게 되어 청정한 마음을 일어나게 해서 나쁜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하니 저절로 선업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세상을 바꾸고 그 속의 나를 바꾸어 가면 선을 닦는 사람이 많아지고 악을 짓는 사람은 줄어들어 지장보살님의 원이 앞당겨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바로 지장보살의 화신이니 내가 성불하려면 다른 중생들의 고통부터 먼저 살펴 풀어주고 타인들부터 부처님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같이 살아가는 가족을 위하고 직장동료를 위해 마음 써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라는 굴레, 이기적인 생각, 원망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국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너와 내가 따로 없이 모두 부처라는 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크게 살피고 마음을 넓게 쓰면서 생활한다면 부처님 경전에 설해진 아미타 극락세계가 바로 여기에 펼쳐질 것입니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82

김 성 구

반야심경과 물리학 (19)

무색과 상대성의 세계

물리적현상 관측자따라 다르게 표현
空은 허무아닌 정신·물질 모든것 근원

"…시제법공상 불구부정 불생불멸 부증불감…"이라고 설한후 경전은 바로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이라고 설한다. 공한 상을 애써 설명한 후 곧바로 공(空) 가운데는 아무 것도 없다고 선언한다.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은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와 다른 뜻인가?

물질계만을 생각할 때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공(空)이 물질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가지 물리현상을 예로 들어 이미 설명하였다. 물리적 진공에서 입자와 반입자가 생성되기도 하고 입자와 반입자가 만나 에너지를 내놓고 소멸되기도 하며 또한 물리현상은 진공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니 공에서 색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현대물리학이 뒷받침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 뜻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은 공이란 결코 허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경전은 모든 것의 공한 모습이 생기지도 아니하고 없어지지도 아니하는 것이라 풀이한 후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이라고 선언한다. 이에 처음부터 공에는 색도 없고 지각·감각·의지·인식작용도 없다고 한다. 물질도 없고 그것을 인식하는 정신작용도 없다면 경전은 다시 허무를 주장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분별지로 인식하는 일체의 객관적 실체가 꿈과 같은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일단 물리현상에 국한시켜 보자면 물리적 진공은 입자와 반입자가 서로 결합하여 끝없는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이니 이런 상태를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무색 무수상행식이란 물질이 공에서 나왔지만 이렇게 나온 물질이라고 해서 객관적 실체라고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분별지를 떠나서 참을 보라는 뜻이다. 또한 무수상행식은 정신-물질의 이중성을 뜻하는 것이다. 입자-반입자의 이중성에서 보듯이 이것은 물질 저것은 정신이라고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나눌 수 없는 것을 나누어 놓고서 하나를 정신이라 부르고 이 정신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분별지로 세상을 인식하는 것이니 보는 자도 보이는 세상도 다 꿈과 같다는 뜻이다.

물리학이 불교에서 말하는 공(空)의 개념을 그대로 설명할 수는 없고 물질계만 생각하여 물리적 진공의 구도를 살펴보고서 오관으로 관측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물리적 진공의 구조와 오관으로 감지하고 인식하는 물질계의 구조에 차이가 없고 또 물질이 진공에서 나오고 들어갈 수 있다는 뜻에서 공즉시색 색즉시공이라고 했지만 처음부터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생기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기에 진공을 생각할 것도 없이 무색이라고 하는 말은 공즉시색이라고 하는 것과 다른 의미를 가지므로 "시고 공중무색…"이라는 말은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말이므로 물질의 의미를 지금까지 설명해 온 양자역학과는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지금까지 설명해 온 양자역학적 물질관은 미시적 세계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보는 색계(色界), 거시적 세계를 설명하는 물리학의 이론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이다. 색계를 완전히 학문적으로 기술하려면 양자역학과 상대성이론을 결합하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물리학자들은 이 두 이론을 완전히 결합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결합하여 우주론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우주론은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상대성 이론부터 살펴보겠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보는 물질계는 관측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다르게 보인다고 해서 그중에 누구의 것이 옳다는 것이 없고 다르게 보이는 것이 그대로 다 옳다는 것이다. 시간·공간의 길이나 의미도 다 객관적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며 시공간과 물질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물질없이 시공간이 없고 시공간을 떠나 물질을 생각할 수도 없다. 물질이 형체없는 에너지로 바뀌고 형체없는 에너지가 물질로도 바뀐다.

〈이화여대 교수·물리학과〉

壯元 생엿

새 영양물질 발명! 생엿, 그냥 엿이 아닙니다. 동양철학의 결정체입니다.

건강보조 식품계의 대혁명



특허청
특허출원번호
제536351호

바다의 나트륨성분과
육지의 칼륨성분을 추출한,
독특한 영양물질 탄생!

▶ 인체의 건강은 음성원소군(대표자 칼륨)과 양성원소군(대표자나트륨) K/Na의 조화에 의하여 유지됩니다.
▶ 인체의 질병은 체질의 산성화로 냉(冷)한데에 있습니다.
▶ 장원생엿은 두원소의 비율을 조절하는 영양식품으로 100%순수 식물로 구성된 한방식품입니다.

1개월분 표준가격 : 280,000원

壯元 생엿

장원 생엿!
이런분께 소개합니다.

⊙ 고혈압, 당뇨, 관절염, 신경통으로 고생하시는 분!
⊙ 남녀40세 후반부터 생기는 여러증상으로 고민하시는 분!
• 얼굴색이 누렇고 피부가 매끈하지 않고 울퉁불퉁하다.
• 검버섯이 생기고 원인모를 두드러기가 자주 일어난다.
⊙ 뼈가 시리고 몸이 무겁고 손발이 차고 저린 분
⊙ 산후 비만으로 고민하시는 분!
⊙ 과다 체중으로 고민하시는 분!
⊙ 피로에 지친 수험생!
⊙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장인 여러분!

21세기 건강식품

☆장원……으뜸 일등 제일
☆생엿……생약 재료 엿처럼 만든것
☆건강……장원 ☆장수……장원
☆미용……장원 ☆행복……장원
☆공부……장원

연구개발원
인강당 생약 연구원
제조원 : 남광산업주식회사
판매원 : 불 교 건 강 원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 2동 384의 10

상담실 (051) 465-5100

☎전화주문하시면
전국 어디든지 배달하여 드립니다

고은 불교대하소설



수미산



90

바야흐로 무욕도량에는 호서북부 바닷가의 뜻있는 사람들에 의한 지원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이번 내포와 서산 당진 그리고 안면도 일대를 휩쓴 괴질과 몇번의 작은 봉기 때문에 농사도 제대로 지어낼 수 없었던 것이다.

아무리 무욕도의 수행이라 한들 이런 참담한 현실을 그 환경과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면 그 정신이 지탱해야 할 물질의 결핍 자체가 정신적인 난관이 되어 마땅하다.

그런데도 이 섬의 살림이 그럭저럭 겉으로 초조하지 않게 이어온 것은 위낙 우녀의 타고난 내핍을 바탕으로 삼은 살림 솜씨 때문이기도 하였다.

두 어린이 건너오다

그녀는 그 극단에 이르러서는 이곳에서 마실 물만 끊어지지 않는다면 이승의 몇10년은 엄마든지 떳떳하게 살수 있다고까지 말한 적이 있다. 그것은 어떤 과장이나 허세도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그런 예비된 결단이 그녀의 오늘까지 지배할 정도로 힘찬 의지가 갖추어져 있다.

바위의 절경으로 된 섬이라 어느덧 그 바위를 닮아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아무튼 최근에는 무욕도는 그동안 아침에 먹던 묽은 죽까지 없애고 사시(巳時)를 지난 점심과 저녁을 대신하는 솔잎 뜬 가루를 물에 타 마시는 정도의 음식이어서 사실상 하루에 한번만 먹는 것으로 되었다.

대해는 처음 며칠은 눈두덩이 푹 꺼졌고 발을 헛디디기도 할 만큼 하루하루의 부족한 음식 때문에 이 섬을 어떻게 뛰쳐나갈까 하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그런데 소석행자는 한창 무르익은 처녀여서인지 한 끼니로도 끄떡없었다. 아니 남자가 여자보다 덜 생명력이 강인하다는 것을 이런때 보여주려는 것 같은 그녀의 의지도 그대로 그녀의 심그러운 몸으로 하여금 드러내고 있었다.

인담이 우녀에게 들으라고 하는지 아닌지 모르거니와 옛 시 한편을 읊었다. 한시로 읽고 우리말로 다시 풀어서 읊는 것은 누가 들으라는 의도가 아닐 수 없었다.

지난해 가난이야 가난이 못되나니
올해 가난이 가난이겠네
지난해에는 송곳 하나
꽂을 땅 없었건만
올해에는
송곳조차 없구려
(去玄年貧未是貧
今年貧始是貧
去年無卓錐之地
今年錐也無)

이 시는 본래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상태를 읊은 것은 아니다. 그런 시야 만년의 두보(杜甫)가 보여준 남루하기까진 한 정직함으로 그의 가족과 함께 떠돌며 겪는 가난을 노래한 것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는 송곳 하나 꽂을 땅이 없는 가난이 올해는 그 송곳 하나 없는 가난으로 치달은 상태는 분명코 끄런 가난이 아니라 정신의 일일 터이다.

옷 두어벌로 더위와 추위를 겪고 바릿대 하나에 찬밥 한 덩어리 담아 먹는 출가생활의 그 무소유야말로 송곳조차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 시는 그것만을 노래하고 있지 않았다. 아는 것, 깨달은 것도 내버리고 나라는 것 남이라는 것도 다 버린 것을 뜻하고 있다. 그래서 진리는 말에도 있지 않고 침묵에도 있지 않음이었다.

말해라!

말을 죽여라!

이 두 가지가 다 선당(禪堂)의 장군죽빗감이건만 이 장군죽비조차 마군(魔軍)노릇밖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래서 무문관(無門關)에서 관히 입을 놀려대기를 길에서 만난 도인 말도 침묵도 없이 만날테면 만나라 하였던가.

무욕도의 가난을 짐짓 모르는 척하고 짐작할 뿐인 인담이 노래한 옛 사람 지한(智閑)의 시를 꺼낸 것을 어찌 우녀의 밝은 귀가 듣지 않겠는가. 그녀의 귀는 다른 세상에 태어나 떠돌고 있는 옛 도반들의 소리도 다 듣고 있는 것이므로 저만큼 떨어져서 제법 풍월의 앉은뱅이 노릇을 하고 있는 인담의 수작을 못들을 까닭이 없다.

한동안이 흘러갔다. 파도소리만이 오직 더 자라나며 하늘까지 울리며 푸르렀다. 우녀가 그런 파도소리를 뚫고 한마디 내질렀다.

"이 놈의 파도야! 물방울 하나 남지 말아라."

이 말은 물방울 하나도 남기지 않을 만큼 한 방울의 사랑(思量)과 분별(分別)도 남기지 않은 그 구경의 적멸(寂滅)을 이르는 것인데 이 말 한 마디가 무욕도 앞바다를 호령함으로써 그 호령의 첫 메아리가 인담의 얼굴에 부딪치게 한 것이었다.

인담이 우녀쪽으로 일어서서 왔다.

"묻는 놈 없는데 웬 대꾸인고?"

"저 놈의 파도소리가 누가 듣는다고 들리던고?"

"하하 땡감 하나가 익은 감 노릇이로다."

"호호 그 익은감보다 익은감 속의 감씨나 탐내는 엄큼한 사내가 장님이 되어 제 지광이가 남의 다리인줄 아는구나."

"좀 길다. 남의 다리가 대들보니라 하면 솔만하였다."

"그땅… 대들보가 쓰러졌다."

"집 지을 일 없어졌다."

"시원하겠도다."

"언제 앞에 산이 있었더냐. 날마다 시원한 바다인 것을."

"에끼! 건방지구나."

"건방진 것도 모르는 젖먹이 같으니라구."

"하하."

"호호."

"하하."

"호호."

이쯤되면 누가 누구인지, 누가 말하고 누가 대꾸한 것인지 통 모르게 된다.

사람은 마치 그것이 목적인양 거기서 서로 등짝 한번씩 쳤다. 하지만 인담으로서는 우녀의 등짝을 치기보다는 어루만졌다는 것이 맞았다. 두 사람이 그렇게 다정하게 있어본 적은 거의 없었다.

그들 두 사람만으로 살던 때도 그런 적이 없었다. 그런데 대해나 소석의 눈길 따위에 구애받지 않고 꼭 옛날 얘기속의 오누이인양 그런 정경을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어디 정(情)이었던가. 아니다. 소나무 잎과 잎이 서로 바람이 부딪치는 것이고 달빛이 지상의 어둠을 어루만져 주는 그런 것이나 거의 다를 바 없었다. 그들에게는 음양의 정이 있으려면 진작 있어서 실컷 불타고 남았을 것이다. 불타고 난 재조차 흩어져 버렸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기회들을 만들래꽃 씨앗처럼 방함도 모르고 흩어지는 일에 실려보냈다. 인담에게도 실로 무서운 남성의 기운이 있었다. 그의 장작 패는 도끼질은 아주 사나운 짐승을 떠올리게 한다.

우녀 역시 그가 한번 남성을 이성으로 사로잡을 작정이라면 이 무욕도에 있던 뭇 사내들을 다 넋부러지게 만들고 물 건너 육지의 사내나 지나가는 배의 사공들을 불러들여 그들까지도 벌목장의 벌목 나머지 따위로 뿐어버리게 만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이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그녀의 제7식 제8식들이 나와 5관(五官)과 의식 따위를 봄눈처럼 녹여버린 것이다. 아니 8식과 6식이 다른 것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정답게 앉아서 해가 수평선으로 기울기 잔에 한참 그의 영향력을 펼치는 낙조로 온통 새빨갛게 하늘을 칠해놓고 있는 저녁을 흠뻑 누리고 있었다.

"이곳에 황금부처도 있고 쌀과 소금이 동굴속에서 무진장 나온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건방진 것도 모르는 젖먹이 같으니라구."

"하하."

"호호."

"하하."

"호호."

이쯤되면 누가 누구인지, 누가 말하고 누가 대꾸한 것인지 통 모르게 된다.

사람은 마치 그것이 목적인양 거기서 서로 등짝 한번씩 쳤다. 하지만 인담으로서는 우녀의 등짝을 치기보다는 어루만졌다는 것이 맞았다. 두 사람이 그렇게 다정하게 있어본 적은 거의 없었다.

그들 두 사람만으로 살던 때도 그런 적이 없었다. 그런데 대해나 소석의 눈길 따위에 구애받지 않고 꼭 옛날 얘기속의 오누이인양 그런 정경을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어디 정(情)이었던가. 아니다. 소나무 잎과 잎이 서로 바람이 부딪치는 것이고 달빛이 지상의 어둠을 어루만져 주는 그런 것이나 거의 다를 바 없었다. 그들에게는 음양의 정이 있으려면 진작 있어서 실컷 불타고 남았을 것이다. 불타고 난 재조차 흩어져 버렸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기회들을 만들래꽃 씨앗처럼 방함도 모르고 흩어지는 일에 실려보냈다. 인담에게도 실로 무서운 남성의 기운이 있었다. 그의 장작 패는 도끼질은 아주 사나운 짐승을 떠올리게 한다.

우녀 역시 그가 한번 남성을 이성으로 사로잡을 작정이라면 이 무욕도에 있던 뭇 사내들을 다 넋부러지게 만들고 물 건너 육지의 사내나 지나가는 배의 사공들을 불러들여 그들까지도 벌목장의 벌목 나머지 따위로 뿐어버리게 만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이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그녀의 제7식 제8식들이 나와 5관(五官)과 의식 따위를 봄눈처럼 녹여버린 것이다. 아니 8식과 6식이 다른 것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정답게 앉아서 해가 수평선으로 기울기 잔에 한참 그의 영향력을 펼치는 낙조로 온통 새빨갛게 하늘을 칠해놓고 있는 저녁을 흠뻑 누리고 있었다.

그런 새빨간 낙조의 한쪽 바다위에 무엇인가가 언뜻 보였다. 우녀의 눈은 그녀의 귀와 함께 밝아서 하늘에 뜬 솔개의 그것이었다. 아니 천안통(天眼通)의 씨앗 그것이기도 하였다.

그것은 움직이고 있었다.

"고래라도 나타난 것인가? 나는 요새 눈이 먼저 늙어가는지 잘 안보이는구료."

"고래도 아니고 고래새끼인 것 같아요."

우녀의 대답이었다.

"이곳에 황금부처도 있고 쌀과 소금이 동굴속에서 무진장 나온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은 그것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우녀가 한참 뒤에 말하였다.

"아무래도 한번 뱃사공이 되어야겠어요. 인담화상께서…."

"그러지…그러지요."

"이왕이면 대해처사와 함께 타세요. 그 사람이야 바다에는 하늘의 제비 같으니까."

"그러지요."

인담이 대해를 봤다. 이제 인담도 알 수 있었다. 바다 위의 그것은 사람이었던 것이다. 사람이 뗏목 따위에 몸을 걸치고 떠있는 것이었다.

두 사람이 무욕도의 대해를 저어서 파도의 가닥을 헤쳐내며 앞으로 나아갔다.

과연 몇개의 통나무를 칡넝쿨로 따위로 엉성하게 얽어매어 거기에 두 어린 아이가 의지하고 있었다.

하나는 기진맥진한채 몸의 상체만을 통나무 위에 걸쳐놓고 있었고 하나가 바동거리며 그들이 탄 것을 조금씩 움직여 나아가고 있었다. 그것이 덮치는 파도들을 뚫고 나아가지 못하므로 거의 제자리에서 맴도는 실정이었다.

대해가 익숙한 솜씨로 대배를 갖다 대놓고 우선 고개를 쳐박은 아이부터 옮긴 다음 아직 움직이고 있는 아이도 옮겼다.

아이들의 통나무 뗏목도 대배에 묶어 달았다. 이런 일을 대해는 물 위를 땅위로 삼고 해내는 것처럼 보였다. 황해를 주름잡아 중국의 등해안이나 조선의 여러 해안을 오고가며 장사를 하던 내력이 어디 가겠는가.

인담은 입을 다물고 있었고 대해가 아이들을 큰 소리로 얼러댔다. 아니 거칠게 꾸짖기까지 하였다.

"네놈들 웬놈이냐!"

이런 말이 그들 중의 기진맥진한 아이를 깨우는데 성공하였고 아직 눈을 뜬히 뜬 아이한테도 정작 살아있다는 안도감 때문에 넋을 놓지 못하도록 하는데 유효하였다.

"네놈들 웬놈이냐! 웬놈들이냐?"

"네…."

"네… 우리 마을 새말 40가호에 역병이 돌아 스무명이나 죽어나갔어요…저희들의 부모도 눈감고 누워있어요…그래서 무서워서 우리 둘이 무욕도로 건너오려고 나선 것이어요."

"너희들이 무욕도를 어찌 아느냐?"

"무욕도야 다 알아요… 이곳에 황금부처도 있고 쌀과 소금이 무진장 동굴 속에서 나온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허어…."

그림 · 조향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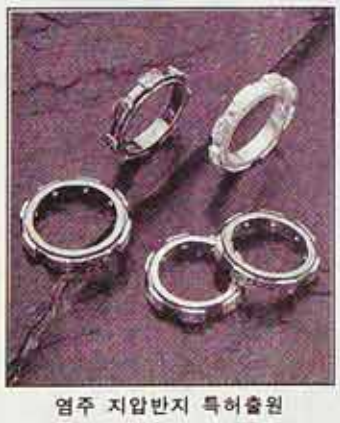
"마을에 역병이 돌아 스무명이나 죽었어요
무서워서 우리 둘이 무욕도로…"

회전식(법륜)

(銀)염주지압반지 탄생 !

- 건강과 기도수행하며 소원을 이루는 반지 -

염불하는 공덕으로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성불하는 인연되어지이다.



염주 지압반지 특허출원

특 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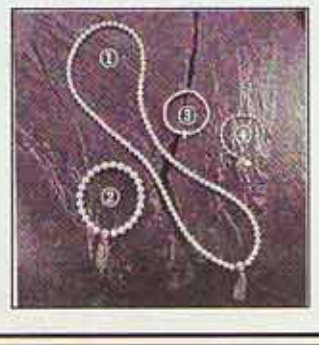
옛은 예로부터 법류 역사를 공부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밀접한 관계속에서 오늘날까지 지혜롭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옛은 우리 인체의 해로운 성분과 만나면 금빙 색깔이 반응한다는 것과 인체의 해로운 650여종에 살균효과 또 임금님의 수라상에 은수저가 올라갔던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은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일상에서 많은 기여를 하기 때문입니다. 출발나마스떼에서는 불지님들의 건강과 기도하실 수 있도록 옛(92.5%)으로 만든 회전식 법륜 염주지압반지, 은단주, 합장주, 호신불 팔찌, 목걸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법륜 회전식 염주 지압반지의 좋은점

옛은 92.5%로 된 회전식 법륜염주 지압반지는 지압효과를 볼수있는 참구가 안쪽에 있으며 바깥쪽이가는 면에는 원마,천마표, 지장, 관세음 보살이 양각되어 전철, 버스, 목욕탕등 언제 어디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단주, 염주처럼 하나씩 돌리면서 수행 정진할 수 있습니다. 법보시 용이나 수계식때 불시보시용으로도 좋은 반지고 건강과 기도를 함께 수행하며 자신의 근기에 따라 소원을 이루는 반지 입니다. 원불하며 성불하겠다는 원력을 세우신 불자님에게 꼭 필요한 수행기구 입니다. 14k, 18k는 별도 주문 제작하여 드립니다. (소비자준장가 W10,000)

자매품

① 은염주 은(銀)92.5% 규격 8mm W96,000
② 은성불 단주 은(銀)92.5% 규격 10mm W50,000
③ 합장주 은(銀)92.5% 규격 5.6mm W17,000
④ 호신불팔찌 은(銀)92.5% 규격 5.6mm W15,800



•판매원 : 출발나마스떼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5번지 삼익패션타운4층 153호 TEL:779-1932 · 779-1938 FAX:779-1932
사무실 : 대표전화 318-3522
FAX:779-1440

•지역대리점 : 서울 (종로)제일사274-0797 (종로) 진은사 273-4864 광주성민유통 062-222-5537 대구제일사 053-252-4370 부산세진051-644-7151 은혜공방 051-241-2135 부산불교전시관 051-647-7393 제주 한라불교신문사 064-55-2203

관절염, 류마티스

CELL-GUARD(셀가드)

관절염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은 있다.

· 노령에 의한 관절염
· 신경정신 상태로 인한 관절염
· 체중이 무거워서 발생되는 관절염
· 유전적인 원인으로 발생되는 관절염
· 퇴행성 골 관절염
· 류마티스성 관절염
· 통풍성 관절염

등에 대한 효능실험에서 엑시코 국립대학 임상연구결과 80명을 상대로 98% 이상의 완화(시카고 트리번지) 등에서 관절염, 관절통(통풍)등 기타 염증으로 인한 통증 및 부종과 유리기에 의한 신체조직의 파괴 및 관절염 노화 면역기능 악화에 탁월함을 역설하고 있다.

특수영양식품
국립보건원
자가기준 및 규격
제 893-606호



"미국수입완제품"

하루 딱 한번만 복용!!

2달분(정제형)₩270,000
은행카드 소지자 3~12개월 분할 혜택

사례문

김진길(56세) 세계참피온 류명우 스승

상기 본인은 셀가드가 관절염 · 류마티스 · 통풍에 좋다는 소식을 세계참피온 지도자 조희동(前 세계참피온 박종팔의 스승)씨 등 많은 권투인들로부터 전해 듣고 관절염과 통풍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좋은 약은 다 먹어 보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해서 2달분을 구입하여 복용을 하기 시작하자 1달 후부터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그래서 꾸준히 복용하여 6개월이 지나자 완쾌 되었습니다. 지금은 몸이 완전히 나아져 저 처럼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하여 이 제품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삼 일 양 행

서울 : (代) 790-8200 (휴일도 근무함)
본사 :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108번지

지방에서 주문시 온라인 주문방법
예금주 : (주)한국복지공사
농 협 : 094-01-146584
우체국 : 010025-01263305-11
입금후 주소는 전화로 알려주세요(등기,소포우송)

독 자

독자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또 현대불교에 대한 의견·제안·제보도 받습니다.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 (02)722-4162 FAX : (02)737-0698
부다피아 인터넷 : gobaoou@buddhapia.co.kr
천리안 : aeum 하이텔 : 34713 나우누리 : sutta

민족성지 백두산에 쓰레기 버리는 관광객

지난해에 이어 문화유산답사의 일환으로 백두산을 찾았다. 이번 백두산 답사는 천문봉에서 달문을 거쳐 천지와 비룡폭포에 이르는 코스였다. 그중 천지에 갔을때의 느낌에 대해 몇가지 적고자 한다. 천지에 다달았을때 그곳에는 마구버린 쓰레기로 인해 악취가 진동했다. 소주병, 음료수캔, 담배꽁초, 음식찌꺼기, 필름통…… 이것들은 대부분 우리상표가 붙은 쓰레기들이여서 또한번 놀랐다.

이같은 쓰레기는 천지뿐 아니라 고래등 평원의 야생화초원, 천문봉 정상에도 마찬가지였다. 단원들이 쓰레기를 줍기는 했지만 턱도 없었다. 민족의 성지를 관광지로만 여기는 한국인들의 몰지각성에 대해 분노를 느꼈다.

또한 쓰레기만이 아니라 이곳을 찾는 한국관광객들의 태도는 정말 가관이었다. 괜티같은 반바지에 등과 가슴을 다 드러낸 헐렁한 T셔츠를 걸치고 샌들을 질질끌며 마치 해수욕하러 가는듯 한 차림들이다. 게다가 헤픈 씀씀이로 민족간의 빈부 위화감마저 조성하고 다니는 그 자체가 이미 인간 쓰레기 모습이었다.

최근 한 이벤트회사에서 백두산에다 산악자전거 코스를 개발한다고 한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다. 돈버는 일이라면 어디라도 개발하고 레저라면 어디라도 찾아가겠다는 발상, 이것이 문제다.

백두산 천지는 우리 민족만의 영지는 아니다. 북방의 여러 민족들에게도 영산이요, 성지다. 우리 관광객들의 그 무례함과 방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는 관광객들의 방북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그에 앞서 국민들의 관광의식부터 고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지한 · 두레문화기행 간사〉

"가을에 군법당 착공 완공자금 모자라요"

법당이 없어 일요법회를 보기위해 트럭에 올라탈때, 수요법회를 열기위해 식당 회의실등을 전전할때 법당마련은 더욱더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 '법당 불사'라는 서원을 세워 본격적인 불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원력을 세운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인근사찰에 수십통의 편지를 부쳐보았고, 조계종 총무원에 서류도 제출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연이 닿지 않은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저희들의 원력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신문이나 잡지를 보셨다면서 보시를 해주시는 분도 계셨고 힘내라는 편지를 보낸분도 있었습니다. 마치 부처님께서 보고계신것처럼 너무나 힘들었을때 힘이 되주셨습니다. 이러한 불자들의 도움으로 가을이면 법당 착공에 들어갑니다. 착공을 할 수 있는 불사금은 모았으나 완공할 만한 자금은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제 제가 전역을 하게되어 후임군종병에게 모든것을 일임하게 되었습니다. 후임군종병이 법당을 완공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경호 병장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적1리 사서함 100-36호〉

파라미타 여름캠프 현장 준비·진행 미숙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무주에서 개최한 파라미타 연합캠프 참가 이후 몇가지 지적하고 한다.

전국규모의 행사로 2천여명이란 많은 학생들이 모인것은 뜻깊은 일이지만 진행상의 많은 미흡으로 인해 캠프 참가자들을 지루하고 힘들었다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인연맺기, 천수천안 프로그램은 내용자체가 진행지도자가 수급돼지 않았다는 이유로 에어로빅과 참선으로 변경되었고 일부프로그램들은 진행지도자가 없다는 이유로 인솔지도자들이 진행을 감수해야만 했다.

한마디로 진행지도자들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무더운 여름, 어린 청소년들은 프로그램이 진행될때마다 짜증을 냈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속출했다. 그러나 어느누구도(진행지도자 조차) 그 이유를 알지 못한채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던 것에 대해 주최측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야영지의 장소 문제, 화장실 샤워실 전기시설 등은 학생들의 수를 전혀 고려치 않은 처사하고 생각된다.

많은 인원을 참여시켜 외부적으로 대규모 행사이기를 바라기 보다는 적은 인원이라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즐겁고 유익한 캠프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은 행사였다.

앞으로 교계에는 이와같은 행사가 계속될 것이다. 관계자들은 행사에 앞서 철저한 현장답사와 진행지도자들의 교육이 선행될때 청소년의 포교는 진일보한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이민향 · 조계사학생회 간사〉

전통문화 배우기 시간 청소년 행사마다 활용

우리는 선우가 지난 1~4일까지 실시한 국악캠프의 운영부원으로 참가한 소감을 몇가지 적고자 한다.

운영부원으로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없었지만 열의를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강사들과 열심히 교육에 임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뿌듯한 자부심을 느꼈다.

어색함과 지루함으로 가득했던 학생들의 표정이 시간이 지날수록 강사와 청소년들이 하나로 조화돼 흥겨워하는 모습은 아름답기만 했다.

3박4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전문적이고 심오한 우리의 가락을 전수한다는 것은 무리다. 하지만 서양의 문화에 물들어가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부여하고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깊었다.

특히 '우리들의 시간'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의 것에 쉽게 친해져 원활히 공연을 펼치는 모습을 보면서 청소년들에게도 우리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

우리의 국악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정서적인 면을 표현할때 그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캠프가 활성화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한다.

〈윤영길 · 항공대학 4년〉

현대불교를 읽고

가야산국립공원내에 가야산골프장 건설을 저지해야 한다는 기사를 보고 이에 동감한다.

가야산 골프장 건설을 놓고 우리들은 왜 반대해야만 할까. 우리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과 가야

가야산 골프장 반대

대장경 보존성지에 위락시설이라니

산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대할 것이다.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정하고 관리하는 국립공원 안에 산림과 지형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괴해가면서 골프장을 건설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국립공원내에서는 조그만 건물도 제대로 지을 수 없고 취사행위도 용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다. 그런데 무려 48만여평이나 되는 땅을 몇몇 사람들을 위해, 레저 스포츠장인 골프장을 건설한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소수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처사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

가야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해인사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팔만대장경이 소장되어있다.

이와 같은 국립공원인 가야산을 파헤쳐 소수의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개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박광석 ·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본에 의해 국토는 물론 경제, 교육문화를 강탈당했던 일제치하 36년의 잔재는 광복을 맞은지 반세기가 지난 오늘에도 여전하다. 그 잔재를 제대로 인식하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된다. 그런면에서 볼때 지난 89호 '사찰조경에 식민잔재 그대로'라는 기사는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일제의 잔재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좋은 기사라는 생각이 든다.

사찰조경 일제잔재

불교의식·생활속 잔재도 바로 잡아야

법당 주변에 심어진 나무를 근사하다고만 생각해 온 나로서는 그것이 일제의 잔재라는 사실에 자못 놀랍기까지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식민잔재속에서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로 살고 있었는가?

누구나 말로는 일제 36년을 제대로 극복하고 참다운 광복을 해야한다고 강조하지만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나 노력들은 너무 부족했다는 반성이 된다. 이런 기사가 광복특집으로만 다루어 질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교계나 생활속에 남아 있는 잔재를 찾아 바로 잡아 나갔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본다.

〈김광희 · 부산 수영구 남천동〉

군인불자를 육성하자

저희 군불교진흥회는 이십여년전 불교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군내 포교를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안녕을 위해 모든 현실적 욕망을 뒤로 하고 군문에 와 있는 우리의 청년들은 호국불교의 맥을 잇고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보살들입니다.

군불교진흥회는 군포교에 전력하고 있는 군법사들과 군법당 건립등 각종 불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도 이 대작불사에 동참하시어 더 큰 원력으로 불국정토를 이루시길 부처님전에 기원드립니다.

군불교 진흥회 회장 박상길 합장

군법당 건립등 호국불사에 동참을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군불교진흥회 (02)749-5135
우)140-600 용산체신청 직원
우체국사서함 83호
은행지로 6909804
우체국 010025-0102390(군불교진흥회)

만화 法句經 법구경

* 애착의 장 *
잡초는 논밭을 망치게하고
애욕은 사람을
망치게 한다

이 향 원



사진으로 보는 법보시용 경전
칼라판
쉽고 재미있는 생활불교 1
50대원 석가모니불
쉽고 재미있는 생활불교 2
지장경
쉽고 재미있는 생활불교 3
장수멸죄경
어떤 중생이 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오역죄를 범하였어도,
이 경을 자신이 쓰고, 읽고, 외우고, 지니거나, 남을 시켜 쓰게만 하여도,
그 죄업에서 벗어나 천상에 태어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 살아서 선업을 맺지 못하고 악업만 잔뜩 지었다 해도,
명을 마친 뒤에 가족들이 그를 위하여 이 경으로 복을 닦으면, 업장이 소멸되어
죽은 뒤에 바로 인간세상이나 천상에 태어나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학림 엮음/신국판 칼라회보/값 각권4500원
법보시용으로 좋습니다
운주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전화:720-9372~3 팩스:723-0646

김재웅 법사와 함께하는 금강경독송회 ! 이들의 현대적 수행담
분별은 바치고 마음은 밝은 곳으로
1부 : 금강경 독송회 평신도님들의 신앙체험담
생활속에서 바치는 법을 실행하며 밝은 생활을 누리시는 따스한 이야기가 봄 햇살처럼 가득합니다.
2부 : 오직 수행에만 전념하고 있는 수자님들의 이야기
지극한 부처님 시봉과 불같은 정진에 몰두하고 있는 수자님들의 이야기는 푸른 공기처럼 우리의 가슴을 적셔줍니다.
금강경독송회 엮음
김재웅 법사의 세번째 책
그 마음을 바쳐라
신국판 267쪽/ 값 7,500원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지혜를 가로막는 일이니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버리라고 하면 아까울 것이니
그 마음을 바쳐라.
바치는 마음을 연습해서 남을 위해 살고 부처님 시봉하는 삶을 산다면
그 마음이 우주에 가득차서 결국 부처님이 되지 않겠는가.
거기 어디에 네가 있고 또 내가 있는가?
너, 나 없는 그냥 한마음 아닌가.
〈 백 선생님 법문에 〉
요지
도서출판 용화/ 경북 영일군 흥해읍 성곡2동 1269/전화 (0562)61-2231/ 서울 연락처(02)742-0172
판매보급처/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 720-9372,9373/ 팩스 (02) 723-0646
금강경독송회/ 서울 혜화법당(02)742-0172/ 포항 우현동 법당 (0562)47-0323/ 포항 금강정사(0562)61-2231

지금 서점가엔 윤회책 '열풍'

'천년의 사랑' '…전생여행' 등 베스트셀러 진입
'윤회의 진실' '…라마승이었다' 번역서도 인기
드라마·가요·광고 환생주제 줄이어

전생과 윤회·환생을 소재로 한 문화 상품들이 화제가 되고 있다. 서점가는 물론 TV드라마와 다큐멘터리, 가요, 광고에까지 '환생 신드롬'이 불고 있다.

소설 〈천년의 사랑〉을 비롯, 같은 주제의 영화 '은행나무 침대(감독 강제규)', 댄스그룹 룰라의 대중가요 '천상유애', SBS TV드라마 '8월의 신부'와 KBS 2TV '전설의 고향' 등 윤회와 환생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독자와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같은 환생 신드롬의 시작은 지난해 8월 출간된 양귀자씨의 장편소설 〈천년의 사랑〉(살림 刊)을 비롯한 윤회관련 서적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초판을 인쇄한 지 6개월만에 110만부 이상 판매되면서 밀리언셀러 목록에 오른 이 책이 환생 신드롬 조성에 한 몫을 했다. 〈천년의 사랑〉은 고아 출신의 젊은 여성이 믿었던 사랑과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한 뒤 전생의 연인이었던 한 수도자를 만나 천년만에 사랑을 완성한다는 통속적인 줄거리를 편안한 문장으로 속도감있게 구성한 소설이다.

정신세계사의 전생·윤회 시리즈도 이 신드롬 조성에 한몫을 했다. 〈김영우와 함께 하는 전생여행〉〈티벳 사자의 서〉를 비롯, 번역서인 〈윤회의 진실〉〈나는 티벳의 라마승이었다〉〈전성요법〉〈나는 환생을 믿지 않았다〉〈죽음 저편에서 나는 보았다〉 등이 그것이다. 이중 세간에 화제가 된 책은 〈…전생여행〉과 〈티벳 사자의 서〉다. 〈…전생여행〉은 신경정신과 전문의인 김영우씨가 환자 치료를 위해 최면요법을 사용하다가 '전생 기억 유도'에 성공한 사례를 담은 책으로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의 주목을 받았다. 죽음을 통해 삶을 배우게 한다는 〈티벳 사자의 서〉(파드마 삼바바 저)는 죽음과 환생 사이의 중간 상태 기간인 49일안에 해탈의 길로 이끄는 방법을 기록한 경이다. 심리학자 칼 융의 해설을 비롯한 상세한 해제와 주해를 더해 원전의 진의가 드러나게 했다.

이밖에 장경각과 시공사도 윤회관련 서적을 많이 펴냈다. 장경각은 일반인을 위한 문서포교의 일환으로 〈윤회의 비밀〉〈전생의 나를 찾아서〉〈누구도 윤회를 부정할 수 없다〉〈환생〉〈팔리 경전이 들려주는 업과 윤회〉 등을 펴냈다. 시공사는 전생과 윤회를 주제로 한 Q북스 시리즈로 〈삶 이후의 삶〉〈영혼의 탐구〉를 출간하고 〈삶 이전의 삶〉을 출간 준비중에 있다.

이같은 책들이 대부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흥미위주의 읽을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과응보와 윤회설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건전한 윤리의식을 선양하고 삶과 죽음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과 시각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크다는 것이 교계의 시각이다.

김재경 기자

출판소식

'출판정보통신' 창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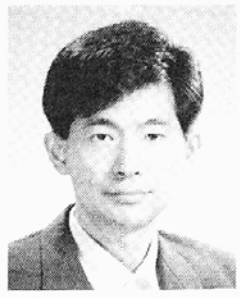
출판유통의 정보화 사업을 전담하게 될 컨소시엄 사업체 (주)한국출판정보통신이 지난 20일 정식발족했다. 출판정보통신은 출판유통 현대화의 토대인 출판정보데이터베이스화를 비롯, 출판사-도매업체-서점을 하나로 연결하는 광역정보통신망(VAN)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한국문학번역 지원

(재)한국문학번역금고는 한국문학작품 번역및 출판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는다. 한국문학을 영·불·독·스페인어등 4개어로 번역 출판하는 사업으로 번역의 경우 1천5백만원, 출판보조비는 5백만원내에서 지원. 10월15일까지. (02)720-3820

명사추천 불서 100선

'만다라-깨달음의 영성세계'



남 진 우
〈시인·문학평론가〉

이탈리아가 낳은 세계적인 영화감독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가 영화 '리틀 부다'를 완성했을 때 나 또한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기대에 찬 시선을 보낸 적이 있었다. 젊었을 때 좌익 이데올로기에 심취하기도 한 이 감독이 노년에 이르러 동양사상에 구혼의 눈길을 던진 것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빼어난 영상미학이 부처님의 인생이란 고답적 주제를 되살리는데 얼마나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궁금증 때문이었다.

그러나 막상 개봉된 영화는 서양 지식인의 단순 소박하기 이를데 없는 동양 이해의 한 단면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여러 차례 실소를 금치 못하게 했다. 하지만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만은 매우 강렬하게 보는 사람에게 호소해오는 면이 있었다. 그것은 한 고승이 그때까지 모래 위에 정성들여 그려오던 만다라를 단 한번의 손놀림으로 지워버리는 장면이다. 그 장면은 지금까지 내 기억의 서랍속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공(空)의 요체를 아주 집약적으로 선명하게 포착한 영상으로 남아 있다.

만다라는 원과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그림이며 불교, 특히 탄트라 불교에서 명상 수행을 돕는 도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만다라에 대한 보다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에겐 그동안 마땅한 서적이 전무한 실정이었다. 소장 종교학자 김용환 교수(충북대)의 〈만다라-깨달음의 영성세계〉(열화당 刊)는 바로 그러한 갈증을 지닌 사람에겐 무더운 날의 단비처럼 반가운 책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신비의 암호'로서 베일에 싸여 있는 만다라를 심층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그것이 갖는 종교적 의미를 차근차근 풀어보이고 있다.

만다라의 도상은 하나의 우주를 표상하므로 수행자는 그것에 몰입하고 동화될 필요가 있다. 미궁 모양의 만다라의 내부로 진입함으로써 그는 자기자신의 중심에 접근하는 동시에 미혹의 늪에서 빠져나와 보다 더 높은 지혜의 땅에 이르게 된다. 그것을 융처럼 심리학적으로 의식과 무의식의 조화, 진정

도상이 갖는 의미 심층 분석
'신비의 암호' 이해범위 넓혀

한 자아의 발견으로 보든, 미리암처럼 도상학적으로 미적 영원성의 통찰로 보든 만다라엔 영적 완성에 대한 인간의 근원적 열망이 깃들어 있다. 저자는 역사적으로 초기 중기 후기를 대표하는 '태장만다라' '금강계만다라' '비밀집회만다라'를 차례로 분석하고 시각형식의 변천을 탐구하는 한편, 이 도상이 불교 의례나 교리와 맺고 있는 관계를 설득력있게 제시해 보이고 있다.

학술적인 저서 특유의 딱딱함을 털어버리지 못했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만다라…〉는 이 분야의 입문서로는 출중한 책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만다라를 불교라는 특정 종교의 관점에서 떠나 심층적으로 해석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럴 때만이 만다라가 갖는 영적 의미 또한 보다 풍부해지는 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법화경 요품강의 | 현해 지음

실상묘법 현대적의미 체계적 기술



〈법화경 요품(要品)강의〉는 현해스님(월정사 주지)의 30여년 〈법화경〉 연구의 결실이다. 〈법화경〉의 사상과 성립, 구성과 주요 참고문헌, 여러 한역본에 대한 소개와 아울러 〈법화경〉 28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여덟 품(방편품 비유품 신해품 여래수량품 상불경보살품 약왕보살본사품 묘음보살품 관세음보살보문품)을 뽑아서 강의·주석한 책이다. 또 강의는 원문을 하나하나 풀이해 상세히 설명하고 각 단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과 그 현대적 의미를 명쾌하고 체계적으로 설하고 있다.

〈법화경〉은 부처님께서 〈화엄경〉과 아함·방등·반야경 등 3승법을 설하신 뒤, 마지막으로 왕사성 영축산에서 회삼귀일(會三歸一)의 최상승인 실상묘법을 일러주신 가장 심오하고 공덕이 많은 경으로 알려져 있다.

〈민족사 1만5천원〉

화제의 책

종교에 나타난 성 | J·파린더 지음

종교간 성의식 의학·심리학적 분석



날이 갈수록 성(性)문화가 일회용 상품으로 전락하고 있는 가운데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등 세계 종교의 성에 대한 관점차이를 고찰한 책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영국의 심리학자 조프레이 파린더가 쓴 〈종교에 나타난 성〉(김동규 역)은 각 종교의 성에 관한 부분을 추려내어 상호 비교·검토하고 현대의학과 심리학으로 재조명함으로써 미래 인류를 위한 새로운 성윤리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불교에서는 성적 황홀감이 그들이 추구하는 열반과 경쟁관계에 있다고 간주한다. 부처님께서 "우리는 여인들에 대해 어떻게 처신해야 하겠습니까"라는 제자의 질문에 "절대 그녀들을 쳐다보지 말라"고 답했다는 것. 그래서 스님들의 출가 생활은 '모든 성관계를 포기한다'는 뜻을 지닌 '브라마차리아'라고 불린다.

〈동심원 8천원〉

수필집 '저거는…' 시리즈 펴낸 우학스님

"생활속 단상 진솔하게 표현"



우학스님(관음사 주지·영남불교대학장)이 쓴 수필집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 시리즈가 서점가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며 지난달부터 '책방 여시아문'집계 베스트불서의 수위를 달리고 있다.

"현실속에 살아있는 언어와 내용으로 불교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추상적 관념으로 흐르기 쉬운 불교사상을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글을 썼다는 스님은 일단 독자들의 관심유발을 위해 '튀는 제목'을 선정했단다. 탈고정관념을 지향하는 선적 취향은 '이시발' '동성연애' '어묵' 등 튀는(?) 내용에도 그 맥이 닿아 있다. '스님이 지나치다'에서부터 '솔직담백하다' '출가기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등 독자들의 반응은 다양한 편.

〈저거는…〉 2권과 3권에는 신심명과 증도가의 원문 및 해설이 곁들여져 불교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오는 9월 중순

4번째 작품 곧 출간
불교교육복지관 개관

경 출간될 〈저거는…〉 시리즈의 마지막인 제4권은 회정스님의 구도행각과 보덕각시의 보살행을 소설형식을 빌어 다룰 예정이다.

사찰 주지, 불교대학장, 출판사 사장 등 1인 다역을 맡고 있는 우학스님은 오는 9월3일 대지 270평 지하 1층 지상3층 규모의 불교교육복지관 개관도 앞두고 있다. 이 복지관에는 불교간병인회, 장애인법당, 문화교양교실 등이 들어선다.

스님은 "책이 많이 판매되어 복지관 불사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고 말을 맺는다. 〈대구=이윤호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 자	출 판 사
1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2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우 학	좋은인연
3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법 정	샘 터
4	기도	일 타	효 림
5	무소유	법 정	범 우 사
6	마음을 숙이면 인생이 즐겁다	편 집 부	정 토
7	그 마음을 바쳐라	김 재 웅	용 화
8	한국사찰의 주련	권 영 한	전원문화사
9	참선교육	현 담	수 선
10	전생여행	김 영 우	정신세계사

구입문의:(02)737-0695

새로나온 책…



▲불교와 인간(나라 야스아키 저·오진스님 역)=부처님을 향한 깊은 신앙심, 자신에 대한 철두철미한 문제의식 등 재가신도들의 현실생활을 중심으로 불교의 현대화·생활화를 모색했다. 일본 고마자와대학 나라 야스아키 총장이 짓고 오진스님(동경대 동양문화연구소 협력연구원)이 번역했다.

〈경서원 7천5백원〉

▲깊은 밤 램프에 불을 켜고(손춘익 저)=박목월 김동리 등 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긴 문인들의 숨겨진 일화와 문학세계, 실크로드를 따라 티벳고원을 넘어 카트만두에 이르는 대장정에서 체험한 이국의 풍물과 문화·문학 등을 담은 작가 손춘익의 문학기행문. 티벳의 부처, 혜초의 신비, 막고굴의 불심 그 신기루, 티벳민족과 포탈라궁의 신비 등 불교적인 단상이 돋보인다.

〈책만드는집 6천5백원〉



▲인생미학(앤소니, 샐리 심슨 편저)="스무살엔 의지가, 서른살엔 지혜가, 마흔살엔 관단력이 지배한다."(벤저민 프랭클린) 철학가 시인 소설가 음악가 미술가 정치가 등 한 시대를 풍미한 세계 저명인사들이 0세부터 100세까지 느꼈던 각 나이에 대한 단상을 모아 엮었다. 나이를 먹는 것과 생존에 대한 자세가 지난 몇세기에 걸쳐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시공사 6천5백원〉

▲대뇌혁명(하루야마 시게오 저)=정신과 의사인 저자가 인간두뇌의 생리와 심리현상의 인과관계를 설명한 과학서. 긍정적인 사고가 몸과 마음에 최고의 약이 된다는 사실을 의학적 과학적으로 밝혔다.

〈사람과책 6천8백원〉

7월의 문화인물 도선국사 | 도선국사 위상 바로잡기

천년의 법력을 지닌
도선국사는 누구인가?

김 종 록 장 편 소 설
제왕의 길



베스트셀러 풍수 의 작가 김종록이 3년 만의 침묵 끝에 내놓는 참 지도자의 비전 제왕의 길 을 만나십시오

이 땅을 만다라로 보고 불법으로 다스린
도선국사의 거대한 생애!

한 나라의 운명은 용기있는 지도자에 의해 거듭난다.
한 개인의 운명은 지혜로운 선도자에 의해 거듭난다.
어지러운 시대 상황 속에서
천년의 무심한 시간을 뛰어넘어
역사 속에 거인 하나가 걸어나왔다.
이 땅과 겨레를 눈물겹게 사랑했고
청사를 빛낼 지도자의 출현을 고대한 선지자
해동의 대사상가, 당대의 선승(禪僧),
제왕학의 달인 도선국사 일대기.

신국판 /328쪽 /6,800원

추천의 글

진실적인 위대한 인물 도선국사. 그분은 고려를 개국한 왕건의 스승이었다.
도선국사의 큰 삶을 추적하여 이 민족 복원해낸 작가정신이 놀랍다.
진정한 지도자가 없는 시대에 삶의 정도를 예시해준 <제왕의 길>!
일독을 권한다. -김원일(소설가)

평소 아끼던 청년작가가 우리 시대의 묵시록 같은 소설을 씌웠다.
올바른 길보다는 잔재주가 판치는 시절에 정치한다는 일이
한없이 부끄럽기만 하다. 이 소설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짐 하나를 지운다.
그것은 남부끄럽지 않은 지도자를 우리 스스로 갈라내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이다. -제정구(국회위원)

출판원고를 보내주시면 잘 가꾸어 보겠습니다 태일출판사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4가 36 전화 927-2831 팩스 924-3236

THE LAST WORD
부처님의 유언
공파 스님 역해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다. 이제
세상은 모두 다 도(道)를 놓아 버렸다!

부처님 자비의 극치!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 남기신
금쪽 같은 최후의 유언!

아! 아!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 끝까지 간곡하게 당부하신
이 유언은 부처님 자비의 극치를 나타낸 것이로다.



그러므로 제자가 된 사람들은
아니 두 발로 땅을 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 최후의
말씀을 뼈에 새겨두고 간에
기록해야 할 것이다.

신국판 400면 값 7,000원

전국 유명서점
절찬 판매중!

태일출판사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4가 36 전화 927-2831 팩스 924-3236

"禪과 춤의 만남서 불성찾기"

禪舞 워크숍 여는 재미무용가 이선옥씨

9월1일~10월15일 동숭아트센터
11월1일~12월15일 예술의 전당

"선무(禪舞)란 춤으로 하는 수행이란 뜻입니다. 즉 행선의 원리 그대로를 춤으로 옮겨 춤을 통해 자신을 관(觀)하며 이와 동시에 기와 화두가 합쳐져 자신이 평소 느끼지 못하던 동작이 나올수 있는 무궁무진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종합예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미무용가 이선옥교수(美 뉴욕대 무용과)가 서울에서의 선무워크숍을 위해 최근 귀국했다.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월~목 오전 10시~오후 1시) 대학로 동숭아트센터에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각각, 무용관계자 교사 무용전공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선무워크숍은 미국의 권위있는 록펠러재단산하 '아시아문화재단'의 재정지원을 받아 이루어졌다. 이선옥교수는 단전호흡과 화두, 몸의 동작등의 조화 일치로 이루어지는 선무의 기법을 집중적으로 가르칠 예정이다.

지난 72년 뉴욕에서 숭산스님을 만나 참선에 몰두하면서부터 선속에서의 춤, 춤속에서의 선을 연구하다 자연스럽게 선무 기법을 개발하게 됐다는 이교수는 선무가 생각은 화두로 비우고 입에서는 주력이나 염불, 단전호흡으로 기를 온몸에 보내는 동시에 손으로는 결인법(結印法)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정(靜)과 동(動)을 다양하게 구사하는 춤이라고 소개한다.

예술기교면에서는 갈데까지 간 서양인들이 정신적인 공허함을 메꾸고 내리막길에 선 서양문명 속에서 그 돌파구로 찾는 것이 동양사상, 그중에서도 불교사상이고 특히 선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이라고 전하는 그는 "지식인들은 선에 관한 책을 한권이상 안 읽은 사람이 없다고 할만큼 관심이 대단하다"고. 그래서인지 선과 춤을 합일시킨 선무공연이나 워크숍에 쏟아지는 서양인들의 관심과 찬사는 놀라울 정도라며 이번 워크숍이 우리나라에서도 선무활성화에 기폭제역할을 하기를 기대했다.

"생각은 화두로 비우고 입으로는 염불하고 단전호흡으로 氣 모으고 손으로 결인법 실행"

"미국에서 한국무용을 가르치다 보면 영어로 된 변변한 한국무용서적 하나 없어 늘 아쉬웠다"는 이선옥교수에게는 두가지 원력이 있다. 한가지는 선무문화재단을 만들어 그것을 주축으로 세계에 선무를 전파시키는 것. 또 하나는 불교전문예술대학을 설립해 불교예술의 맥을 이어가고 세계예술인들이 한국불교예술을 배우러 한국으로 워크숍을 오게 하는 것.

이선옥교수는 김백초 이매방 김천흥 선생에게 현대무용 및 한국무용을 사사받고 도미, 세계적인 무용가 마사그레함, 에릭호킨스등으로부터 테크닉을 사사받았으며 지난 84년 뉴욕대에서 선무관련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94, 95년 파리와 뉴욕에서 각각 '바라밀다'를 공연, 호평을 받았으며 현재 이선옥선무용단(ZEN DANCE)을 이끌며 활발한 공연을 펼치고 있다. 워크숍 문의 (02) 765-7951



이경숙 기자

불심시심 〈60〉

시속에 담는 자연

翠壁懸精舍 (취벽현정사)	푸른 벽에 매달린 정사
樓前複澗通 (루전복간통)	누대 앞 복도로 뚫린 시내
出門聞水聲 (출문문수성)	문을 나서면 들리는 물소리
開戶見花叢 (개호견화총)	창호를 열면 보이는 꽃 숲
松影秋宜月 (송영추의월)	솔 그림자 가을 달이 더 좋고
溪聲夜作風 (계성야작풍)	시냇소리 밤이면 바람으로 변하다
仙區無限趣 (선구무한취)	신선 세계 한없는 멋을
輸入小詩中 (수입소시중)	작은 시편으로 몰아오다

위 시는 풍계(楓溪)대사(1640~1708)의 시이다. 풍계대사는 편양대사의 법사인 풍담(楓潭)의 제자이다. 대사의 이름을 명찰(明察)이고 자는 취월(醉月)이다. 속성은 밀양 박씨로 대대로 높은 관직이 끊이지 않았던 명문가의 후손이다. 그의 조상에는 숭불한다는 이유로 파직이 된 분이 있었으니, 대사가 불문에 귀의하게 된 데에는 어쩌면 이러한 숙연 때문이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런 인연으로 해서 대사의 문집에는 승속간에 주고받은 시가 격의없는 소탈함이 많다. 그밖에 여러 곳의 유람에서 쓴 시를 지역별로 편집하여 〈유완총록(遊玩總錄)〉이라 하였다.

위 시는 〈관동록〉에 있는 시로 '누전복간(樓前複澗)'이라는 시다. 시내 언덕에 있는 누대를 중심으로 한 자연을 소탈하게 읊은 시이다. 스님에게는 자연이 더 말할나위 없는 진리의 현현이니, 사로써 이 진리를 표현한다면 이 자연이야말로 더없는 시의 소재들이다. 위 시는 이러한 면에서 시인이기 이전에 스님으로서 자연사물 하나하나를 한 공간으로 잘도 모아 놓은 좋은 예라 하겠다. 그러기에 번역에 있어서도 되도록 소재 하나하나를 나열식으로 늘어 놓았다. '푸른 벽에 달려 있는 절'이란 구절에서 이 달려있다는 표현이 재미있다. 누대 앞에는 거듭되는 시내가 복도처럼 흐른다. 문을 나서면 들리는 것이 물소리이고 보이는 것이 꽃숲이다.

사시사철 언제나 있는 것이 달이요, 달이 있으면 그림자는 절로 있는 것이니, 특별한 계절이 따로 있을 리 없지만 그래도 달빛의 맑음은 가을이 제격이다. 시냇물 소리는 밤이 되어 더 거세지기에 이 또한 바람소리로 오인할 소지가 항시 있다. 이러한 것들은 절을 에워싸고 있는 풍경의 일반적 현실이다. 그러나 이 현실이 바로 진리의 현현이요 법리의 나툼이다. 이것을 스님은 시로 수합한 것이다. 끝 귀는 바로 이를 설파한 것이다. 어쩌면 모든 시인이나 스님의 시관이나 사물관을 대변한 듯한 결론이기도 하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옷속에 관세음보살의 자비"

이기향씨 '환경 21' 패션전 불교소재 작품 출품



◇이기향교수가 '환경 21' 주제 패션전에 전시할 작품 마무리에 여념이 없다.

전국대학의 의상학과 교수들과 유명디자이너 등이 모여 지난해말 창립한 '한국예술의상협회(회장 배천범)'가 주관해 '환경 21'을 주제로 오는 31일~9월24일 예술의전당 제4·5 전시실에서 창립기념 패션전을 개최한다.

인류의 가장 심각한 당면과제인 환경을 주제로 산업사회의 폐해를 고발하면서 자연으로의 회귀를 갈망하는 마음을 담은 1백여점의 예술의상이 선보일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불교를 소재로 한 작품 두점이 전시될 예정. 서양의상에 탱화속 불 보살의 도상을 응용한 이미지패션화작업을 시도하고 있는 이기향교수(한성대 의류직물학과)가 관세음보살과 자연의 이미지를 결합시킨 독특한 작품을 전시한다.

"오염되고 파괴된 자연이 원력과 자비의 화신인 관세음보살의 포용성에 의해 눈부신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다는 주제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면에 핸드페인팅과 퀼팅으로 관세음보살과 호랑이 얼룩말 앵무새 개구리 코끼리 등 동물들을 직접 표현하고 식물의 잎을 따로 만들어 붙여 입체감을 나게 했다. 선명한 색을 사용해 마치 빛이 들어온 정글에서 관세음보살을 중심으로 평화롭게 어울려 있는 동물들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이 작품을 보고 "자연은 곧 나라는 불교의 동체대비사상만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해결의 길을 제시한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깨달았으면 한다"는 이기향교수 외에 김동순 박윤수 루비나 오은환 설윤형 김훈 진태욱씨 등 유명디자이너 50명이 패션전에 참가한다. 〈숙〉

한국불교미술 '북유럽포교'

불미협, 97년 덴마크·98년 네덜란드 초대전

한국불교미술인협회(회장 박찬갑, 이하 불미협)가 내년엔 덴마크에서, 오는 98년엔 네덜란드에서 '그룹초대전을 갖는등, 한국불교가 잘 알려져 있지않은 북유럽에서 미술을 통한 한국불교 포교에 새 장을 연다. 불미협은 내년 8월 덴마크의 코펜하겐시 국립박물관에서 불미협회원들의 초대전을 열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회장 박찬갑씨가 오는 9월초 덴마크 현지로 떠난다.

박찬갑회장은 "몇차례 개인전을 통해 한국미술에 대한 서구 특히 북유럽인들의 관심이 대단함을 느꼈다"면서 "우리미술의 뿌리가 불교미술인만큼 내년전시회는 북유럽인들에게 한국 불교미술의 면면히 이어온 특징과 예술성을 선보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덴마크에서는 고려시대및 조선시대 고미술품들의 전시회는 열려 호평을 받았으나 현대불교미술의 대대적인 전시는 아직까지 전무해 불미협의 전시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불미협은 양국 불교문화교류에 많은 역할을 담당할 크로포드 덴마크 문화담당영사와 브롱코스트 네덜란드참사관을 각각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명예지회장으로 추대, 지난 24일 추대패를 전달했다.



"화실을 선방으로"

한국화가 강행원씨가 북가좌동 화실을 선방으로 개방, 지난 22일 정식으로 아미타부처님 점안식〈사진〉을 갖고 본격적으로 시민들의 '불교배움터'로 무료운영하고 있다. 화가와 그림을 배우러 오는 사람은 물론 가까운 지역민들에게 첫째 셋째 목요일 (오후 2시)에는 선(禪)에 대한 질의응답과 함께 좌선을 가르치며, 둘째 넷째 목요일엔 선학을 중심으로 한 기초불교교리강좌를 실시한다. (02) 372-4848

전시·공연

이만익씨 개인전

우리민족의 정서를 특유의 부드러운 선과 강렬한 색채로 정감있게 그려온 이만익씨가 오는 9월 8일까지 강남 쥴리아나 갤러리(514-4266)에서 개인전을 갖고있다. 25점이 전시된 이번 작품전에서는 검은 색을 배경으로 붉은색으로 간결하면서도 정감있게 표현한 '백제관음〈사진〉'이 눈길을 끈다.



진주 불교음악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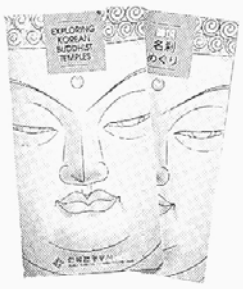
진주불교회관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제3회 불교음악제가 오는 9월 15일 저녁 7시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시명범조 정률 지범 도신 스님 등과 김경녀 김무한씨 등이 동참해 '원왕생가' '반야심경' 등 찬불가와 가곡 등을 노래할 예정이다. (0591)747-0108

'한국명찰순례' 영·일어판 나와

한국관광공사 발간

한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한국불교의 진수를 간결하게 알릴 수 있는 〈한국명찰순례〉 영문판과 일어판이 각각 나왔다.

한국관광공사가 펴낸 이 책자는 전면 컬러 50쪽 포켓용으로 한국불교에 대한 전반적인 개황과 사찰생활, 전국에 소재한 23개 유명사찰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사찰에 이르는 교통정보와 지도



등도 수록해 외국관광객들이 혼자서도 찾아갈 수 있게 했다. 무료배포 (02)729-9408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 생활용품 • 개인업체
• 불교관련용품 • 정보교환, 소식
• 자체홍보 • 안내
• 각종행사 •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절터 최적지
장소 : 경남 하동군 횡천면(하동 진주 사이) 지리산 줄기,양질의 지하수 도로, 토목공사 완료
평수 : 11,460평 (평당 10,000원)
연락처 : 0346) 594-4974

포교당 안내
장소: 강남선릉역 근방 3층 25평 시설완비 보증금 2천만원 월세 88만원 시설비 절충가
장소: 장안동 3층 50평 시설완비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8만원 시설비 절충가
연락처: 577-3310, 011-574-8879

땅 급
장소: 경남 의령군 대의면 천공리 웅곡마을
땅300평(대지), 기초공사 완료
연락처 : 72-9395
011-552-9396

기도·회향 보시 방법지도
지장경독송방법
참회·업장소멸과 자녀교육에 도움
가족법회, 건강문제
꿈바위사회교육문제연구소
종로구 인사동 179 - 2
(02)739-5007~8

무효공고
사단법인
대한불교법화종 창녕교구 소속
사찰명 : 감로사
주 소 : 경남 창녕군 고암면 갈산리
감로사 직인과 주지 직인을 1996년 8월 5일자로 무효 공고함
사단법인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김대호

불교공예

본 불교공예에서는 20년 전통의 신용과 기술로써 각 사암의 법당을 장엄하여 천년을 기리 남을 정성을 다하여 봉사하겠습니다.
대표 임태복 합장
진도 쌍계사 : 시왕전, 불단
속초 구복암 : 천불전, 단집, 산신각, 문짝
제주도 원각사 : 불단, 단집, 범상등외
설악산 오세암 : 천불전
삼각산 연화정사 : 천불전, 단집외 등
구로동 원응사 : 불단, 문짝
불교여래원 : 불단, 운각, 경탁외
망우리 보문정사 : 불단
안양 약수암 : 불단, 단집, 천불외 다수 사찰 불사
연락처 : (0346)553-6480
011-266-6485

寺刹 및 古殿건축 木材에
■ 木材放火劑 (화재예방용)
■ 木材활열방지제 (갈라짐 변색)
■ 木材방충·방부제
■ 木材탈취제 (청변균제거)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56-11 상원B/D(을지로 2가)
전화 : 02)266-2629 ,팩스 : 02)266-2679
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

보리수
취급 품목 | 각종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神秘한 東洋哲學
신생아 작명 역학 개인지도
선남·신녀궁합,학생적성
☎738-2045,2046
현대불교신문사앞
韓國民俗哲學研究所

급 사찰안내
주지스님 건강 관계로 사찰을 운영할 수 없어 급히 양도코저하오니 뜻있으신 분은 내사후 참관한뒤 적정 가격에 협의하여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 법당내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천불전 모셔짐
■ 요사채 시설 일체 완비
■ 종각 9층탑 정원 수려함
장 소 : 제주도 서귀포시 동홍동
연락처 : (064)32-1495

학생 모집
◆포교교육과 .. 동양종교, 종교음악
◆유아교육과 .. 유아놀이, 아동미술
◆종무행정과 .. 상담실무, 상담행정
1. 수료후 수료증 수여 및 자격증(포교사·법사·유아놀이사·상담사)취득가능
2. 소형 버스 통학 가능
3. 충북 괴산에서 월2회 강의 (교육장인가 57호)
TEL.02)931-6075~6
만대교학대학원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불사업적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왕시(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백화사) 법당 수미단 응각 복전함
• 음성(삼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충무(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진관사) 대웅전 문짝 닫집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천진사) 대웅전수미단닫집경탁경상
• 서울(학림사) 회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貞玉 합장

승복점
장소: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평수 15평
보증금 2500만원
월세 12만원
* 승복·한복 겸하여 운영중
연락처: 0331) 254-1263, 015-125-1263


◇해주스님

대봉정사 주지·신도 10여명 우란분절맞아 장기기증 서명

우란분절을 맞아 주지스님과 신도회 간부 10여명이 생명공양실천본부에 단체로 장기를 기증해 화제다.

태고종 충주 대봉정사(주지 해주스님)는 지난 11일부터 백중불공기간중 생명을 사회에 공양하자고 결의하고 1차로 주지스님, 동참신도등 10여명은 오는 28일 생명공양실천본부에 장기기증서를 접수키로 했다. 또 대봉정사 신도회는 생명공양 운동을 백중불공법회에 참석증인 신도들에게 확산시키기로 결의해 이 운동에 동참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대봉정사는 사찰에서 수용하고 있는 고아들과 무의탁 노인들을 위해 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신도회를 중심으로 자비회가 사회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사회복지 모법사찰로 발돋움하고 있다.

중국북경대 종교학과 개설

9월 3~5일 국제 종교학술토론회 열어

중국 북경대학이 사상 처음으로 종교학과를 설치하고 이를 기념하는 국제학술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주의 국가로서 종교학연구를 시작하고 그에 따른 국제간 대화를 모색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95년 9월 종교학과 설립을 결정하고 종교학 연구를 위한 꾸준히 토대를 마련해 왔던 북경대학교는 '실사구시 과학정신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종교문화 연구'를 기치로 올해 본과(4년), 연구생과정(3년), 박사연구생과정(3년) 3개 과정에 불교·도교·기독교 등 여타 종교에 대한 전공과목을 포함한 종교학과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북경대학교는 9월3일부터 5일까지 '중국 종교학 연구현황과 전망' '오늘날 세계종교 발전의 주요 추이' '각 종교간의 대화와 비교연구' 등을 주제로 이를 기념하기 위한 국제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 국내 학자로는 김상현교수(교원대 역사학)와 윤이흠교수(서울대 종교학)가 초청돼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해외소식

日정토진종 여성주지 임명안 의결

일본의 조도신슈(淨土眞宗)의 한 파인 오타니(大谷)파는 지난 달 동경에서 열린 종회에서 여성주지를 인정하는 의안을 통과시켰다.

일본불교의 주지는 전통적으로 남자에 한해 가능했다. 그러던 것이 5년전 오타니파가 남자 후계자가 없는 경우에 여성이 주지 승계를 인정하기로 했다가 이번에는 조건없이 여성주지를 인정하게 된 것이다.

현재 약 7천8백명의 남성주지에 여성주지는 15명 정도로 대처승이 주류인 오타니 종파에서는 주지들의 '부인모임'과 '여성차별을 생각하는 모임' 등이 "아들·손자로 내려가는 세습제가 근본 문제이다. 원래 사찰은 가족의 것이 아니고 구도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주장을 통해 종단내의 여성 차별 철폐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오타니파에서 주지를 계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아들이나 손자가 우선하기 때문에 일정한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춘 여성일지라도 주지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여성주지 의결에도 불구하고 오타니파 내부에 여성차별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비난이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태고보우스님 법어·논총' 10월 발간 준비

中 구법행로 700리 고증답사

덕암·운제스님등 조사단 15명 잘못 전해진 임제법맥 재조사

태고종 대륜불교문화연구원(이사장 덕암스님)은 태고 보우스님의 구법 7백리길 발자취를 따라 9월 5일부터 10일까지 중국을 현지답사한다.

이번 중국답사는 오는 10월 〈태고 보우국사 법어 및 논총〉 발간을 위해 지난 1월부터 태고스님 출생지부터 열반지까지 7개월동안 태고스님의 국내유적지 20여곳을 현지답사한데 이은 것이다.

덕암스님(선암사 방장)을 단장으로 운제스님(전 총무원장) 혜초스님(총무원장) 한정섭법사(한국불교교화원장) 무공스님(대륜불교문화연구원장) 최석환씨(불교영상회보사 실장) 등 15명으로 구성된 이번 조사단은 태고스님의 구법기 가운데 잘못 전해지고 있는 부분을 고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태고 보우스님이 한국에서 견성하여 중국 석옥화상과 문답한 것을, 석옥화상에게 법을 배워 인가를 받고 임제의 법맥을 받은 것으로 돼 있는 잘못된 부분을 고증키 위한 일환이다.

조사단의 중국답사는 태고 보우스님이 2년간 주지를 하면서 고려 공민왕이 볼모로 중국에 잡혀와 법문을 듣고 '차후에 왕이 되면 태고 보우스님을 국사로 모시겠다'는 다짐을 했던 북경 영령사지와 대관사를 방문한다. 원나라 수도였던 개봉의 최대사찰 상국사 임제선풍의 고향이며 석옥 청공화상과 만난 항주 천호암 그리고 개봉박물관도 답사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이미 국내최초로 태고 보우스님이 신돈에 의해 유배당한 전주 보덕산 보광사지 위치를 찾아내고 구산선문중 하나인 가지산 보림사에서 깨달음을 얻고 가지선풍이 쇠퇴한 고려말 주지를 맡아 임제선풍을 일으켰다는 자료를 수집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태고보우국사 법어및 논총〉은 덕암스님이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필생의 역작으로 힘을 쏟고 있는 1천쪽 분량의 책자. 20쪽은 태고 보우스님 유적지 사진집이고 5백쪽은 일대기 및 법문, 5백쪽 분량으로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논문이 수록된다.

한편 덕암스님은 중국답사의 성과를 묶어 별도로 〈중국유적지 답사기〉라는 제목으로 발간할 계획으로, 이 또한 태고 보우스님의 기록이 많지 않은 학계에 중요한 사료가 될 전망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원우 기자


◇대륜불교문화연구원 조사단이 문경 봉암사를 방문하여 주지 효광스님으로부터 봉암사에 모셔져 있는 태고보우스님 부도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진각청년수련회 성료 진각종 전국청년회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울릉도 금강원에서 제 23회 하기수련대회를 개최했다. 청년회원들은 진각종 창종 50년과 진각청년의 상관성을 깊이 새겨 지역교화 활성화에 힘이 될 것을 발원했다.

목탁소리

특수포교 나서야한다

임 연 태 〈취재3부 차장〉

부처님께 귀의하지 않은 사람을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도록 하는 일을 우리는 포교라 한다. 포교의 시원은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이후 다섯비구를 찾아가 설법을 한데서 찾을 수 있다. 부처님이 최초의 포교사인 셈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다섯비구를 직접 찾아 가신 점이다. 포교는 대상을 찾아가서 하는 것이지 앉아서 해서는 안된다는 무언의 가르침을 우리는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불자 개개인이나 각 종단의 포교담당 부서들에 대해 포교 채점을 한다면 상당히 부끄러운 점수를 줄 수 밖에 없는 것이 오늘 한국불교의 현실이다. 개인을 향한 포교의지는 차치하고라도 집단에 대한 포교의지도 매우 산만하고 미약하기 때문이다.

90년대 들어서 직장이나 군부대 교도소 태능선수촌등 특수집단으로 이어지는 포교의 발길은 꽤 분주한 편이었다. 더욱이 예술 스포츠 바둑 등 대중적 영향력이 급증하는 특수분야는 개인 집단의 구별없이 포교적 관심이 늘고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교의 결과는 언제나 미지근하다. 가장 중요하게 꼽아야 할 원인이 있다면 체계성과 전문성의 부족이다. 어떤 조직에 의한 포교전략도 없이 산만하게 특수집단 포교를 벌여 온 그간의 노력을 이제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전략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간의 노력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교단차원에서 포교적 성과를 크게 거둘 수 있는 특수분야에 대해 인력과 프로그램을 갖추면서 최첨단 포교를 벌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불자 인기국악인이 불자 올림픽금메달리스트가 불교계가 불자라고 떠드는 동안 지극히 개인적인 의지에 의한 개종을 두고 불교계는 포교의 허실을 따져야 한다. 그것은 한 사람을 귀의시키는 기쁨보다 한 사람의 불자를 잃는 슬픔이 더 크기 때문이다.

핫·프·로

'대승의 꽃 동북아불교' 3부 다큐

불교TV '한중일 불교대회 특집' 9월9일 방영

불교TV가 제2회 한중일 삼국불교대회에 맞춰 독특한 대승불교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불교의 오늘을 살펴보는 다큐멘터리 3부작 (가제)'대승의 꽃 동북아 불교'(PD 임동민)를 오는 9월9일~11일 3일간 방영한다.

한국 중국 일본의 현지취재를 통해 생생한 불교의 숨소리를 전달하게될 이 프로는 먼저 제1부 〈다시 피어나는 연꽃 중국불교〉에서는 남성과 지식층, 젊은이들이 주축이 되고 있는 중국 거사불교의 신행모습과, 경제개방화 물결로 윤택해진 중국인들의 종교생활, 그리고 중국불교의 중요한 복원사업의 하나인 석경산 1만여점의 석경도 소개된다.

제2부 〈생활속에 뿌리내린 일본불교〉에서는 경제적 안정을 기반으로 일본인들의 생활 깊숙히 존재하고 있는 일본의 장의불교, 종파불교, 해외포교의 현황들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3부 〈대승으로 불국토를 한국불교〉에서는 한국불교의 오늘을 살펴보고 미래 한국불교의 과제와 역할을 모색할 계획이다.


◇일본 보문사의 한 스님과 일본불교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임동민PD.

방송가 소식

보각스님·유하영씨 'TV불교백과, 그건…' 진행


◇보각스님


◇유하영씨

중앙승가대 교수 보각스님과 탤런트 유하영씨가 불교TV 가을개편과 함께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 'TV불교백과, 그건 이렇습니다'(PD 김대우)를 진행한다.

'TV불교백과…'는 신행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초심자들의 불교에 대한 여러가지 궁금증을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알기쉽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TV불교백과사전.

이 프로에서 보각스님은 불자들의 궁금증을 간결하고 쉬운 해설로 설명하게 되며, 탤런트 유하영씨는 신행의 현장을 찾아 불자들의 궁금증을 대변할 예정.

'유리' '만다라' 등 출품 부산국제영화제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PIFF)가 오는 9월 13일부터 22일까지 열려 세계 32개국 총 1백71편의 화제작이 소개된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는 아시아 신인감독들의 첫번째 작품이 소개되는 새로운 〈경향(New Currents)〉 부문에 우리나라 양윤호감독의 '유리'가 올라있다. 또한 80년대부터 95년까지 만들어진 한국 뉴웨이브영화를 돌아보는 회고전(Retrospective)에는 임권택 감독의 '만다라'가 선보일 계획이다.

시청자위원회 발족 BBS 불교부산방송

BBS불교부산방송은 제1회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지난 9일 부산 크라운호텔에서 개최, 15명으로 구성된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김무조, 부위원장에 강동균, 문종술, 김문숙, 총무에 이종관 위원을 선출했으며 부산지역 정서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자체제작 비율을 높이고 질높은 방송을 위해 방송사고 예방 등을 논의했다.

수행자 양성 전문 교육(1년과정)
제1기 불교(禪敎) 과정 신입생 모집
1. 현묘 선원 개설 취지
선(禪)과 교리(敎理)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선교일치를 이루어 견성 성불하여 부처님의 경지에 계합하는 수행자를 양성코저 현묘 선원을 개설함.
2. 모집안내
가. 과 정: 선교(禪敎)과정
나. 모집인원: 50명
다. 접 수: 96년 8월 20일 ~ 9월 9일
라. 개강일시: 96년 9월 9일 오전 10시
마.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 사진(3x4) 2매
바. 문 의 처 : 선원 사무국 (02)3474-9619
3. 교과목: 시간 , 교수
가. 월, 수, 금 : 오전반 10:00~ 13:00 불교교리: 고영섭 교수
선수행지도: 문경섭 교수
오후반 14:00~17:00 불교교리: 고영섭교수
선수행지도: 문경섭교수
나. 화, 목, 토 반 가항과 동일함
4. 교수 저서및 학력
고영섭 교수: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및 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저서: 불교경전의 수사학적 표현(경서원)
문경섭 교수: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및 행정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저서: 국유현요지도(서림문화사)
5. 위 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44-12(지하철 3호선 양재역 7분거리)
전화: (02)3474-9619
玄 妙 禪 院
원장 無虛金人

막힌곳을 편안하게 통하게 해주는 氣針法 !
파-워침 요법
■ 파-워침 요법은 전혀 피부를 찌르지 않고, 압통점(경혈)을 자극하여 통증을 조절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신속하고 획기적인 동양의학요법입니다.
■ 파-워침 요법은 머리, 허리, 어깨, 목, 관절, 팔, 다리, 무릎 등 불편한 곳에 대고 지그시 눌러주면 즉석에서 편안해지는 체험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 10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파-워침의 효능! 사용해 보신 분들이 주위분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으시면 일단 5분만 체험해보세요!
<반영구적제품>

〈파-워침 종합세트〉
머리, 허리, 어깨, 목, 다리, 무릎이 아프십니까?
보건복지부 허가 제 558호
보건복지부 품목허가 제1호
※ 5분 무료 체험 교실 운영 (수시방문)
우체국 013193-0047886 김광식
농 협 100067-52-124519 김광식
⊙ 파-워침 / 원기 보존법 책자를 우송해 드립니다
덕산의료기 파워-침 연구학회
전화문의 02) 455- 6944(대)

-우학스님 수필집-
저 거 는 맨 날 고 기 묵 고 …
이 시 대 베스트셀러
-나오는 내용-
동성연애자의고민
선방·강원·토굴이야기
귀신의 장난
가정우환 소멸법
영가천도
정력 … 비법
이성을 사로 잡는법
잉꼬부부
출가의 험한 길
정통불교 수행
산중의 스트립쇼
죽음이후의 세계
영원한 사랑을 하려면
큰 스님의 경책
-좋은인연 책들-
1 새로운 불교 공부 (불교 기초교리 강의서)
2 부처님은 왜 신을 가르쳤나요 (어린이 및 초심자 교리 문답서)
3 불자수행지침서 (신도 신행 의식집)
4 불교한자공부·사경및 해설 (금강경·천수경·반야심경·법성게·화엄경약찬게·예불문·아미타경)
5 재미있는 금강경 산책
◎가까운 서점에서 찾으세요
도서출판 좋은인연(053)475-3706-7)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주·야간 9월 개강) (053)474-8228

포켓용 불자 독송집
불자님들께서 항상 지니면서 신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편집·제작 하였습니다
■ 기본판 국반판 256p·고급비닐커버 ▶ 정가 2 000원
■ 증보판 국반판 352p·고급비닐커버 ▶ 정가 2 500원
※ 법보시 하실 사람 환영합니다
우리말 지장경
석 일 화 편저
● 크기/신국판 300페이지, 고급비닐커버
● 법보시가격/4,500원
● 부록/용어해설, 지장보살신앙영험록
※ 표지에 사찰명 뒷장에 법보시자 법회안내 등을 넣어 드립니다
김로출판사 ☎(02)723-4306~7 FAX 738-8682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안국동로타리)

현불뉴스

30일 복지지도자 워크숍

불교사회복지협의회(회장 각현스님)는 오는 30, 31일 양일간 대전 유성관광호텔에서 '21세기 불교사회복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복지사회건설을 위한 역할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불교복지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보각스님(중앙승가대교수)과 김용태 교수(동국대)가 '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불교사회복지의 전망' '21세기 불교사회복지발전을 위한 불자의 역할'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한다.

10월말 포교사 고시

조계종포교원(원장 성타)은 10월27일(장소 미정) 제2회 포교사고시를 실시한다. 포교원은 이에따라 10월1일부터 응시원서 교부를 시작해 15일 각 불교대학을 통해 원서접수를 마감한다.

'맑고…' 임원수련회

맑고향기롭게모임(회주 법정스님)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각 지역본부장 및 운영위원 등 9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북 청도 운문사에서 제1회 임원수련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련회는 새벽예불과 발우공양 등 불교의식과 맑고향기롭게모임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월정사주지 무효건 '각하'

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월서)은 지난 22일 부동스님이 청구한 월정사 주지추천 무효 및 총무원장 임명무효 심판청구의 건을 각하시켰다.

종립학교 신입생 특례

종립고교도 과학·외국어고 등 특수고교와 마찬가지로 건학이념과 목적에 맞는 신입생 선발 특례가 인정된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학장기발전을 위한 세미나'에서 한국교육개발원 박재윤 책임연구원이 발표한 교육법 제정안으로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포카리수영대회 4위

양천구민체육센터(관장 상륜스님)가 아마추어 선수들이 참여하는 포카리수영대회에서 금14 은5 동6개로 종합4위를 차지했다.

평택 심복사 환경파괴 '위기'

건축 폐자재 수거장 건설 움직임
신도·주민 1만5천명 철회촉구 서명

신라시대 사찰인 평택 심복사 주변에 건축폐자재분리수거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사찰 및 자연환경 피해위기에 몰려있다.

평택 심복사(주지 정견)주변에 건축폐자재 분리수거장 설치움직임과 관련 신도회와 현덕면 덕목리·신왕리 주민 멍거니유적지키기운동본부등 9개 단체로 구성된 폐기장설치반대위원회(공동대표 정견스님·인영환 신왕리이장)는 1만5천여명의 반대서명을 받은데 이어 최근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강력대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합)문화산업(대표 이상복)이 심복사에서 2~3백미터 떨어진 현덕면 덕목리 81외 4필지 약 2천 8백여평에 건축폐자재분리수거장(이하 폐기장)을 건설하려하자 이에 심복사와 지역단체 주민들은 지역환경권 수호를 위해 결사반대의사를 천명하고 나선 것.

심복사와 지역주민에 따르면 인근지역일대 1백25만평이 관광문화단지로 지정돼 지난 6월부터 용역이 실시되고 있고 사찰을 중심으로 주변일대가 역사문화공간으로 설치가 예정돼 평택시민의 안식처로 발돋움할려는 시점에서 폐기장 사업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폐기장 건설은 현재도 위험수위에 있는 아산호의 수질을 오염시키고 도로교통 악화와 소음과 분진으로 주거·수행공간파괴를 가속화 할 것이라는 여론이 높다.

이와함께 심복사에는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 565호 비로자나불이 소장돼 있어 문화재보호법 제20조 2항의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평택시는 지난 10일 폐기물장 주변이 구거(하천부지)로 지정된 지역이므로 도로로 사용할 수없다고 결정하고 진입로 확보미비로 폐기물장 용지의 농지전용허가신청을 반려해 일단은 고비를 넘긴상태다.

그러나 폐기장건설에 있어서 관건이되는 진입로개설이 국방부소유의 231-5번지 158제곱미리미터의 땅의 용도변경허가여부에 따라 재개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 30~40평의 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따라 폐기장건립 반대위는 지난 5일 국방부장관에게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국방부소유의 231-5번지의 임야를 폐기장에서 진입로로 사용신청 및 불하허가 요청 가능성이 크다"며 "국유재산법과 건축법에 따라 폐기장 사용승락은 법률상 불가능하므로 불허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평택=김원우 기자〉

조계종 호법부(부장 혜담)는 사건담당제, 사건처리기간 명시 등을 골자로하는 업무규정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법부 관계자에 따르면 "종무행정 혁신의 일환으로 업무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고 "호법종무원의 윤리강령은 물론 사건담당제 정착, 사건처리기간명시, 피조사자의 의무·권리보장, 사건처리통보 등의 세부규칙을 담고있어 부당하게 피해를 입을수 있는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호토록 하고있다"고 말했다.

호법부가 마련중인 업무규정은 총칙, 직무수행, 사건의 접수와 처리, 피조사자의 의무와 권리, 사무 및 문서처리 등 총 6장 26조(부칙1조)로 구성되어있다.

한편 호법부 업무규정은 이달중으로 종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피조사자 권익보호 중시한다"
조계종 호법부 사건담당제등 세부규칙 보완

일연스님 열반 707년 다례제
21일 인각사서… 일연학연구원 발기모임도

〈삼국유사〉를 저술한 '보각국사 일연성사 다례제'가 성사의 열반 707주기가 되는 지난 21일 인각사(주지 대원)에서 봉행됐다. 〈관련기사 4면〉

일연학연구원 발기모임을 겸한 이날 다례제에는 법타스님(은해사주지)을 비롯 설송스님(선본사주지)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했다.

법타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삼국유사는 우리의 유구한 역사를 증명해 주는 민족의 성서이다"며 민족의 얼이 숨쉬는 이곳은 종교를 떠나서 성역화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은해사에서는 오는 10월10일 일연학연구원이 개원될 예정이다. 연구원의 이사장에는 일타스님, 원장에는 법타스님이 위촉됐으며 약 60여명의 연구위원도 위촉될 예정이다.

이와 아울러 인각사 성역화 사업도 병행된다. 현재 경북도는 일연성사 사리탑과 비(碑)(보물 제428호) 복원을 위한 예산을 책정했다.

조직 자주개혁 추진
대불청 서울지구 하반기 사업

불교청년의 조직활성화와 신행혁신을 위한 사업이 대불청 서울지구 하반기 주요사업으로 확정됐다.

대한불교청년회 서울지구(회장 김규범)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으로 각 지회가 대중청년회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위원회 구성, 지구지회의 부장단 강화, 포교방안 연구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불청가족 한마당(9월 15일), 임원연수(9월16~10월4일), 연합철야정진(10월 5~6일), 서울불교청년대회(10월20일) 등을 비롯 청년법당건립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달라이라마 "한국방문 희망"
WFB 한국본부 지난 12일 초청장 전달

세계불교도우의회(WFB) 한국본부(회장 박동기)는 지난 12일 인도 달람살라왕궁을 방문, 티베트 승왕 달라이라마에게 한국방문 초청장을 전달했다.

초청대표단 윤호석단장(사단법인 한국불교전법사회장)이 "오는 11월1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제20차 WFB 한국대회에 초청인사 및 5계수계사로 참석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초청장을 직접 달라이라마에게 전달했으며, 이 자리에서 달라이라마는 "한국에 있는 불교도와 한국국민을 진심으로 만나고 싶다"며 한국방문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정부가 중국의 중재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면서 달라이라마의 한국방문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있어 달라이라마의 한국방문이 성사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에대해 박동기 회장은 "한국정부가 순수한 종교행사에 정치적인 이유로 초청자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티베트는 지난 49년부터 중국정부가 불교를 박해하자 인도북부 달람살라에 망명정부를 수립하고 독립운동을 펼쳐오고 있다.



경찰병원 위로방문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22일 서울경찰병원을 방문 연세대에서 시위를 진압하다 사망한 故 김종희 이경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스님은 부상당한 전경들을 위로하고 위로금을 전달했다.

영가천도재·경로잔치·외국인노동자한마당 등
전국 사암 우란분절행사 다채

오는 28일은 부처님오신날 성도절 열반절과 함께 불교의 5대명절로 꼽히는 우란분절(백중)이다.

그동안 교계는 매년 우란분절이면 각 사암단위로 영가천도제를 봉행해 왔지만 최근들어 우란분절의 참뜻을 되살려 올바른 신행으로 이끌고자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석왕사(주지 영담) 주최 '백중맞이 경로대잔치'와 '외국인 노동자 한마당'이 대표적. 이번 석왕사 경로잔치에서는 효자효부시상, 장기자랑, 연예인 초청공연 등을 비롯 노인들을 위한 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또한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에서도 국내거주 외국인 노동자를 초청, 각국의 민속춤과 놀이, 음악경연대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지구촌한가족축제를 연다.

봉은사(주지 무상)도 유주무주고혼을 천도하는 '생명해방대축제'를 마련한다. 이날 행사는 불교의 전통 천도의식인 시련, 시식, 봉송의 순으로 진행되며 영산재 이수자들의 바라춤과 풍물패의 마당놀이가 펼쳐진다. 이처럼 생명해방대축제는 우란분절의 의식과 백중을 결합한 것으로 축제의 즐거움과 엄숙한 종교의식이 함께 펼쳐진다.

이밖에도 봉선사, 능인정사, 부산 삼광사 등 전국의 각 사암과 단체에서는 선망부모를 위한 천도재와 경로잔치가 다채롭게 진행된다.

또 현고스님(송광사주지)이 '전통사찰 수행환경보존과 대중포교'에 대해 발제하는 등 사회변화에 대한 사찰의 위상과 '기능변화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또한 회향식에 앞서 정홍규목사와 지현스님을 초청, 환경문제와 선우현장결사 사례발표에 대해 특별강연도 갖는다.

9월16~18일 실상사에서 선우도량 수련결사
사원경제합리화방안등 모색

선우도량(공동대표 도법·현봉스님)이 오는 9월16일~18일 2박3일간 남원 실상사에서 '미래사회와 사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11회 수련결사를 개최한다.

지하스님(중앙승가대 학장)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되는 이번 수련결사에서는 법등스님(도리사주지)과 영담스님(석왕사주지)이 '사원경제의 합리화 방안모색' '지역사회에서 사찰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한다.

인도어린이 사진전
수익금 전액 기아 구호

국제기아·질병·문맹퇴치 민간기구 제이티에스(JTS)가 UN이 정한 빈곤퇴치의 해를 맞이하여 제3세계 어린이를 돕기위한 인도어린이 사진전을 오는 9월 9일부터 15일까지 아크리스 백화점에서 개최한다.

제이티에스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인도 보드가야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시회를 마련, 수익금 전액을 인도주민의 무료진료와 식수개발, 주택개량 등의 불사를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구속학생 석방촉구
실천승가회등 성명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전국불교운동연합, 대한불교청년회 등 유관단체들은 지난 1주일여동안 계속된 연세대사태에 대해 평화적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강제진압에 대한 불교계의 입장을 밝혔다.

실천승가회가 지난 18일 종교인협의회소속 단체와 함께 경찰력의 철수와 학생들의 안전귀가 허용을 권고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전불련 대불련이 구속된 학생들의 석방 김영삼정권의 비이성적행위 중단 등을 골자로 하는 '연세대 강제진압에 대한 불교계의 입장'을 천명했다.

또한 불교인권위원회는 구속된 학생들에게 경전을 전달키로 하고 경전구입비와 영치금을 지난 21일부터 모금하고 있다. (02)734-6401

마음 고정된 것은 없다

삼천대천세계는 찰나찰나의 나툼일 뿐입니다.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한마음선원〉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1996년도 도시생활 포교사를 위한(1년과정)

동산불교 한글 의식 교육원 신입생 모집

1. 동산불교의식 교육원 개설 취지

종교의 생명은 의식에 있습니다. 불교의식처럼 다양하면서도 장엄한 의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문으로 구성된 불교의식은 장중·엄숙하기는 하지만 너무 전문적이라 일반인의 접근이 어렵습니다. 이제 한글화한 불교의식의 숙달로 생활속에서, 특히 경조사에서 불교의식 집전은 불교대중화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동산불교대학에서 개설하는 한글불교의식교육 제2기생을 모집합니다.

2. 지도법사 및 교과내용

개강일시 : 96년 9월 7일(토) 오후 2시

지도법사 : 권지홍법사 • 운곡스님 • 혜능스님

한글불교의식 Ⅰ	한글불교의식 Ⅱ
⊙ 아침·저녁으로 행하는 예불의식	⊙ 천도의식(왕생의례, 재공의례)
⊙ 정기적으로 행하는 법회의식	⊙ 축제일법회
⊙ 사시에 행하는 헌공의식	⊙ 특별법회
	⊙ 불자가례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입학금	강의일시·장소
정규반 50명	• 한글불교의식희망자 • 포교사 취득자 • 포교당 운영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장	96년 8월 5일(월) ~9월 6일(금)	일십만원	매주 토요일 오후 2~4:30 (동산법당)

4. 원서교부 및 접수 • 본 교육원 사무국(☎ (02)732-1206~8, FAX:732-1207)
(110-170)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5. 특전 • 수료자는 동산의식법사 자격 수여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불교대학 동산불교 의식 교육원

포교현장의 전문법사양성(3년과정)

96학년도 동산불교 전문연구원 신입생 모집

1. 불교전문 연구원 개설 취지

현대 물질문명의 발달에 따라 부처님 가르침의 필요성이 날로 더해가는 21세기를 대비하여 **부처님의 경전**을 배우고 대승불교의 상구보리, 하화중생, 보살도를 중생속에 실천하는 사명감 있는 전문법사, 포교사를 양성코저 3년과정의 동산불교 전문연구원을 개설함.

2. 교과목 및 교수

	1학년		2학년		3학년		
경전과정 (매주 월요일)	1학기	화엄경 Ⅰ	1학기	화엄경 Ⅱ	1학기	아함경 Ⅱ	• 무진장 스님(전 포교원장) • 한보광 스님(동국대 교수)
	2학기	관무량수경	2학기	아함경 Ⅰ	2학기	금강경	• 총범 스님(승가대 교수) • 정병조 교수(동국대 교수)
응용과정 (매주 화요일)	1학기	구사, 유식	1학기	불교미술	1학기	불교의식 Ⅰ	• 권기종 교수(동국대 교수) • 서윤길 교수(동국대 교수)
	2학기	천태학	2학기	비교종교론	2학기	포교당경영론	• 권탄준 교수(동국대 교수) • 박윤곡 스님(홍천안양사주지)
							• 한정섭 박사(상락향원장) • 오형근 교수(동국대 교수)
							• 박종 교수(한국인성개발연구원장) • 장회옥 교수(동국대 교수)

※과목별 주1회 강의(1학기:5개월)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개강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정규반(30명) 통신반(30명)	①불교대학(정규)이수자 ②불교교양대학(2년) 이수자 ③과목별 이수 희망자 ④포교사 취득자	①입학원서 1통 ②주민등록등본 1통 ③반명함판사진 3장 ④불교교양대학졸업증 1통 ⑤자기소개서 1통	96년 8월 1일 ~8월 31일(토) (서류전형)	96년 9월 2일	매주 월·화요일 오후7시~9시 (본연구원 법당)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자만 지원가능

4. 입학금 • 일십만원

5. 졸업자격 • 경전과정(6과목 이수), 응용반(5과목 이수) 합하여 11과목 이상 이수자에 연구원 졸업장(전문법사)을 수여함.

6. 원서문의 교부·접수 • 본 연구원 사무국(서울 종로구 견지동 13)
• 문의전화 : (02)732-1206~8, 722-0408/FAX:732-1207)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불교 대학 동산불교전문연구원 원장 무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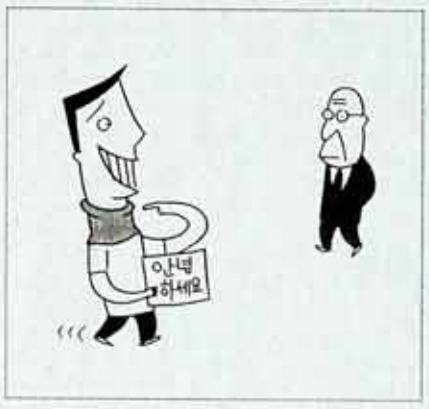
건강백세 ㉒

목 (하)

착추가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 처음에는 아프다기 보다는 은은히 불편하게 자극이 오며 컨디션에 따라 증상의 증감이 오기 때문에 지나쳐 버릴 수 있다. 차츰 악화되면 견딜 수 없는 격통(激痛)이 오기도 하고 전기(電氣)에 맞는것 같은 감전양통증(感電樣痛症)이 나타나기도 한다.

오랜시간 여행이나 운전, 작업 등을 할때 심하게 불편하게 되는 이 디스크증상은 추간판탈출증(椎間板脫出症)이라고 부르며 목부분과 허리부분에서 주로 나타난다. 경추(頸椎)디스크 탈출증의 경우는 손가락까지 통증이 전달된다. 초기 증상에는 자세교정요법(姿勢矯正療法), 운동요법(運動療法), 욕치요법(浴治療法), 침구치료(鍼灸治療)등이 시행되어 호전 되기도 한다.

그러나 증상이 심해지면 수술요법(手術療法)으로 잘못된 연골부를 깍아주어 고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하지



디스크 치료에 수영효과
팔베개등 '목혹사' 습관 버려야

만 일부는 재발(再發)하거나 오히려 악화(惡化)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최근에는 압박된 부분에 약물을 주입(注入)하거나 신경에 닿고 있는 연골부를 꺼내 버리는 침단(針灸) 방법도 소개되어,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서광을 보여 주기도 한다. 여기에서 강조 하고자 하는것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에 유의함이 요구 된다는 점이다.

자세를 반듯이 하고 평소에 적절한 운동을 통해 근육과 골격의 유연성을 잘 유지해야 한다. 국민소득이 향상된 요즈음 우리 모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나태해지고 권한 것 만을 찾는 경향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려서부터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게 되고, 앉아서 두뇌회전이 많이 요구되는 사회는 더욱 나약한 골격들로 만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수영과 경보는 강건한 신체단련에 필수적이며 특히 수영은 치료에 도움이 된다. 잠자는 자세나 베개의 바른 선택과 바르게 앉아서 학습하는 태도도 중요하다. 엎드려서 TV를 시청한다든지, 팔베개를 베고 책을 보는 등 목을 혹사하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전화기를 목에 비스듬히 대고서 통화하는 것은 몇분만 지나도 경부근육통을 일으키고 그것이 굳어지면 경추 디스크 탈출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목부분을 풍이 출입하는 곳으로 봐서 외기의 침입에 주의를 주고 있다. 감기를 감모(感冒)라 하여 외기의 침습을 당하는 것으로 봤다. 목도리와 외투 깃을 두툼히 하면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됨을 실감나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친 보온으로 땀이 난 후에 바람을 쐬면 영락없이 감기에 걸릴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윤 을 상 〈한의학 박사〉

양수리의 법당 ③

주부신행담

사업을 해 볼 생각 한번 안했던 내가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었으며 가게나 지키고 앉아 물건 파는 단순한 일이 아닌 입장에서는 남편의 큰 자리를 더욱 실감할 수 밖에 없었다. 어쨌거나 나는 노력했다. 그간의 업무 공백을 잘 메워준 박부장의 도움으로 나는 생각보다 빨리 가게 운영의 방법과 거래처들에 대한 대략적인 파악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업가로서의 나는 어쩔 수 없는 햇병아리였다. 업계의 치열한 판매경쟁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탓에 상당수의 고객을 잃었던 것이다. 믿고있던 박부장마저 "그나마 사장님의 인품과 수완으로 단골을 유지 했었는데 갈수록 힘들어진다."며 좌절할 때는 정말 힘겨웠다. 그리고 박부장이 사표를 내고 가게를 떠날 때는 앞이 캄캄하다는 말을 온 몸으로 실감해야 했다.

그러는 가운데 허가 바뀌었다. 지난해의 판매실적을 검토하며 다시금 남편의 자리에 새겨진 안타까움이 가슴을 후벼왔고 세해의 운영을 생각하니 암담하기만 했다. 음력설을 지내온 풍습을 핑계로 신년 연휴는 혼자 있기로했다. 그 아쉬움과 암담 속에 갇혀 울고 싶으면 울기라도 할 생각이었다. 새해의 첫날을 집에서 보내고 나니 가슴이 터져 버릴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양수리의 그 법당으로 다시 갔다.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간 것 같기도 하다. 빙판진 산길을 혼자 걸어 오르며 나는 지난 가을 그 혹독한 시련 속에서 용기를 얻었던 고마운 기억을 되짚었다. 그리고 그날도 늦도록 법당에서 기도를 하며 더욱 강하게 살 것을 다짐하고 부처님께 꼭 사업에 성공해서 부처님을 위한 일을 많이 하겠다는 서원도 세웠다.

새해는 새 바람이 불었다. 그러나 업계의 불황은 새롭지 못했고 경쟁은 더해만 갔다. 나는 노력 했다. 그러나 그 노력에 찬물이 끼얹어졌다. 사표를 내고 나갔던 박부장이 우리 가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새롭게 가게를 냈다는 소식에 나는 쓴 배신감과 나의 무능을 함께 느껴야 했다. 신년벽두의 날벼락이었다.

박부장은 이미 남편과 함께 일하면서 다른 생각을 품었었고 남편의 죽음은 그 기회를 준 꼴이었는데 거기다 나는 한동안의 경영을 통째로 맡겼었으니 분난질에 기름을 부어준 격이 아닐 수 없었다. 후회는 언제해도 너무 늦는 것이었다. 어느 재력가의 도움으로 새로낸 박부장의 가게는 규모도 컸고 사은서비스도 대단했다. 당연히 나의 가게는 타격의 정도를 넘는 태풍을 맞아야 했다. 아무런 힘도 없이 대책도 없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허구헌날 "죽을 지경이야"란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이유를 알만 했다. 입어설 조짐만 보여도 어디선가 밟으려고 대드는 치열한 현장에서 어찌 그런 장탄식이 없겠는가. 나도 죽을지경이었다. 현찰은 안돌고 그나마 어음도 약속 안지켜지는 경우가 다반이고 돌은 갈수록 서걱서걱 소리를 내는듯 했다. 그러나 나는 살아야 했다. 내게는 두 아이가 있고 내가 모를 곳에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 보는 남편이 있지 않은가. 그분에게 안타까운 내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될 일이었다. 그리고 내게는 든든한 후견인, 부처님이 계시는데 살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이를 앙당물고 이리저리 뛰어 다녔다.



그림 · 이준석

든든한 후견인 부처님을 믿고 열심히 뛰는데 다시한번 날벼락이 떨어졌다

그렇게 살던 어느날 봄이 왔음을 느꼈고 여름이 지나가는 것을 남들의 얘기처럼 알았다. 남편의 1주기를 맞아 나는 제사를 지내는 아들녀석에게 말했다.

"네 아버지께서 이렇게 변한 나를 보고 무슨 말씀을 하실까?"

"엄마 아버지는 이미 엄마에게 매일 매일 박수를 보내고 계실 거예요"

아들 녀석이 어느새 저렇게 자랐는가 하는 경이로움이 먼저 다가왔다. 그해는 그렇게 분주하게 나의 자리를 다지는 가운데 저물어 가고 있었다. 그 일몰에 다시 한번 날벼락이 떨어졌다.

정 보 리 심 〈서울 성북구 성북동〉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㊸

♦ Is the mind of such a one well disposed towards all beings? - so said the Yakkha Hemavata - are his thoughts restrained as to things wished for or not wished for?

부처님의 마음은 살아 있는 모든 생물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품고 있을까, 또 그분의 생각은 바라던 것이나 바라지 않던 것에 대해서도 자제될 수 있을까, 설산야차가 말했다.

♦ His mind is well disposed towards all beings, the mind of such a one - so said the Yakkha Satagira - and his thoughts are restrained as to things wished for or not wished for.

부처님의 마음은 모든 살아 있는 것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품고 있다. 또 그분의 생각은 바라던 것이나 바라지 않던 것에 대해서도 잘 자제될 수 있다. 칠악야차가 말했다.

♦ Does he not take what has not been given to him? - so said the Yakkha Hemavata, - is he self-controlled to living beings? is he far from a state of carelessness? does he not abandon meditation?

부처님은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을까? 그가 살아 있는 것에 대해 자제하고 있을까? 그는 부주의로부터 멀리 떠나 있을까? 그리고 그는 명상을 그만두지 않고 있는가? 설산야차가 말했다.

*dispose (vt와 함께) ~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품고
*restrained (감정 · 생각 등이) 자제된, 자본한
*hemavata (빠알리어) 설산야차
*disposed (a) ~한 감정을 품고 (~to, toward)
*restrained (a) 자제된, 자본한
*what'은 명사절을 이끌며 [~ 것]
*self-controlled (v) 자제하다
*state (n) 상태, 형세 (a state of ~한 상태)
*carelessness (n) 부주의, 경솔
*abandon (v) 그만두다, 단념하다

오중욱 기자

1996 문학의 해 | 해외불교문학 다이제스트

히말라야의 새 ④
루디아드 키플링 作

킴은 글을 빨리 깨쳤고 공부에도 충실했다

킴은 기차를 타고 럭나우로 갔다. 사비에르 학교의 영국인 소년들과 어울려 공부를 하기 위함이었다. 함께 기차를 타고 오며 열심히 공부해 지랍스런 사히브(영국인)가 될 것을 강조하던 크레이튼 대령은 럭나우에서 킴을 인력거에 태운뒤 작별을 했고 킴은 특유의 수단으로 인력거군을 설득해 럭나우 시내를 구경한뒤 학교로 갔다. 사비에르 학교의 담장 아래에서 킴은 라마의 노스님을 만났다. 스님은 하루 반을 기다렸다고 했다. 킴은 너무나 반가왔다.

"빌라(제자)여, 널 지식의 길로 인도함으로써 나는 많은 공덕을 쌓고 있다. 붉은 홧소를 섬기는 집단의 그 신부가 내게 편지를 보내 내가 바라는 대로 너의 학교 문제가 결정되었다고 알려 주었다. 나는 일년치의 수업료를 보냈고 자금 네가 저 배움의 문으로 들어 가는 것을 보기 위해 이렇게 왔다."

스님은 애써 정에 이끌려 온 것이 아님을 강조했고 킴은 스님과의 여행이 끝난 것이 아니란 점을 분명하게 말했다.

킴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했다. 물론 처음에는 욕설과 담배를 피우는 문제라든가 스승에게 편지를 써 줄 대필사를 만나기 위해 무단 외출을 하는등의 문제로 말썽을 빚기도 했다. 그러나 킴은 글을 빨리 깨쳤고 사히브의 소년들과도 잘 지내며 선생들의 신임을 받았다. 3개월의 한 학기가 끝나고 주어지는 방학을 맞았을 때는 영어로 편지를 쓰는 정도의 놀라운 학습능력을 보여 주기도 했다. 킴은 크레이튼 대령이 원하는대로 측량기사가 되어야겠다는 다짐따위는 하지 않았지만 시험의 중요성도 깨달았다.

방학을 맞았다. 그러나 킴은 크레이튼 대령의 명령대로 다시 가병연대의 학교로 돌아가 방학을 보내야 했다. 킴은 '방학만큼은 나의 시간이 되어야 해'라는 다부진 신념으로 대령의 명령을 어기기로 했다. 그를 감시하는 학교의 눈을 교묘히 피해 밖으로 나온 킴은 움발라로 갔다. 그리고 그 곳을 떠돌며 맘껏 자신만의 시간을 즐겼다.

킴은 움발라에서 다시 마호붑 알리를 만났다. 그는 대령에게 킴은 꼭 돌아올 것이라는 확언을 했다며 킴을 반겼다. 그리고 마호붑은 킴에게 럭나우로 돌아가기 전까지 루간이라는 영국 사람의 집에 머물라고 했다. 루간이 킴을 초대 했다며. 루간은 각종 보석과 공예품을 파는 가게의 주인이었다. 킴은 그의 가게에서 보석을 보는 방법을 약간 배우는등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학교로 돌아갔다. 루간은 킴이 자신에게 와서 일할 경우 후한 대우를 해주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림 · 심민섭

킴은 계속해서 학교 공부에 충실했다. 가끔 말썽을 피우기도 했지만 기초측량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기도 했다. 라마의 노스님 역시 티르탕카르 사원을 근거로 여기저기를 여행하며 부처님의 발자취를 더듬고 화살의 강을 찾는 일에 놀라운 집념을 보였다.

생활 속의 불교 ㊱

고(苦)다, 업보다, 운명이다 하기 이전에



내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내가 되받지 않는다면 누가 받을 것인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짐을 내가 지지 않겠다면 누가 대신 져 줄 것인가.

나쁜 짓을 해서 사직 당국에 붙들려 갔다면 죄 값은 자신이 치뤄야 한다.

좋은 일을 해서 포상을 받는 것도 물론 자기 자신의 몫이다. 어느 누구도 내 짐을 대신 져 주지 않는다. 아니, 져 주고 싶어도 져 줄 수 없다.

대신 밥 먹어 주고 대신 잠자 줄 수 없듯이, 대신 똥누고 대신 아플 수 없듯이 내 짐을 어느 누구도 대신 져 줄 수 없다는 것은 철칙이다. 한 치의 예외도 없는 법칙이다.

누가 대신 해 주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아무리 관세음 보살을 찾고, 아무리 다라니를 외어도 법칙엔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대신 짐을 덜어 주고 싶어도, 아니면 더 보태 주고 싶어도 야속하지만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내가 지은 일. 그것은 나만의 업적(業績)이다. 내가 이루고 내가 쌓아 올린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것은 마치 은행 예금 통장에 입금한 대로 숫자가 찍히듯이 그렇게 찍혀 있다가 시절 인연이 맞으면 그때 술술 풀려 나온다.

고로 지금 내게 닥치는 일체의 경계들, 밖에서 다가오고 안에서 솟아나는 일체의 일들, 사건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든 싫어하는 것이든 그 언제인가 내가 지었던 모든 행위들의 결과이다.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아주 오랜 어느 때부터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벌레로 살고, 때로는 날짐승 들짐승, 혹은 인간의 몸으로 살면서 입으로 짓고 몸으로 짓고 뜻으로 지은 행업의 결과인 것이다.

인과의 씨앗은 썩지 않는다. 고로 피하고 싶어도 피할 길이 없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짓고 받는 그것을 팔자 운명이라고 말한다. 어떤 종교에서는 절대자의 역사(役事)하심이라고 한다.

그러나 반가운 소식이 있다.

부처님께서는 삶을 고(苦)라고 단언하셨지만 아울러 고의 멸도(滅道)를 가르쳐 주셨다. 해탈의 길, 열반의 길도 몸소 보여 주셨다. 업을 녹이고 인과의 씨앗을 볶는 길을 제시하셨다.

부처님께서 성취하고 보여 주신 길은 완전한 자유, 영원한 즐거움 그것이었다.

사람들은 내게 다가오는 경계가 마음에 들면 그것이 오래 계속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고통이라면 하루 속히 벗어나고 싶어 한다.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될 것은 그 경계의 참된 원인을 살펴서 그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모색하는 일이다.

따지고 보면 나라는 존재는 털 새 없이 고락을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과 같다. 그러므로 고의 원인을 밝혀내지 않는 한 하나가 지나가면 또다른 고가 닥쳐 오는 것을 면할 길이 없게 된다.

내가 태어난 것부터 인과의 산물이요, 과거의 없이 쌓이고 뭉쳐 오늘의 나가 되었으니 그 업보가 괴롭다면 한없이 괴롭겠지만 한편 고야말로 나를 해탈의 길로 이끄는 수련 과정이라 생각한다면 오히려 감사하게 여겨야 할 일이 되기도 한다. 인생이 고해라지만 동시에 나를 제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면 인생은 마냥 고만은 아닌 것이다. 그러기에 고다, 업보다, 운명이다 하기 이전에 일체 경계를 놓고 관하는 수행에 전념할 일이다.

협찬: 한능우 · 한기영 · 한기철 한기성 · 한재준